朝鮮日報
夕刊 六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本社定期刊行物 少年朝鮮日報(每週一回發行) 「朝光」 「女性」 「少年」

體症仙藥 趙膏藥 (定價) 五錢 十錢 二十錢

國民總動員新組織大綱

東亞新秩序建設에 國民的大結黨
五日、八相會議서決定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五日第二回八相會議에서 國民總動員新組織 趣意書綱領 及組織大綱等을 決定하게된바 今回의運動은 從來의 國民精神總動員運動이 事變意義闡明의 精神運動을 中心한데對하야 한거름나아가서 聖戰의大目的인 新東亞建設에向하야 物心兩面으로 國家總力을 集中動員함으로써 精神運動으로부터 更히實踐的意義를가지게하야 國民各層을 어組織에 包括하야 政府의政策은 이組織을通하야 全國民에게 徹底시켜 各其職場에서 實踐에옴기게하는 同時에 全國民의總機能을 어에 綜合動員할수잇는 機構로함에잇는것이다 그러나 이를政治運動化함은 各方面에 摩擦을이르킬念慮가잇스므로 一切政治的色彩를排除하기로 八相間에 意見一致를보앗다 五日八相會議에서 決定한 新組織趣意書綱領及 大綱要旨는如左하다

▲趣意書

支那事變은 이제長期建設의段階에 이르러 全國民은 今次事變의大理想達成을 爲하야肇國精神에 則하야 日滿支三國이互相連環의關係를 매즘 東亞新秩序建設의 聖業達成에 向하야 邁進할것으로 全國民의 物心兩面에亘한 總力을 茲에集中動員함이必要하다 이런때를 當하야 今日까지 事變意義闡明及 國民啓發宣傳에 努力해온 國民精神總動員運動은 이를 今日의新情勢에 即應케하고 이에 適合한新運動을 發展시켜서 擧國一致體制를 더욱强化하고 必要가잇다고認定하야이에本團體를 設立하랴는것이다

▲綱領

一、本團體는 我國體의本義에基하야 天業翼贊의 臣道實踐을期함
一、本運動은 國家總動員趣旨에 追從하야 國民의 總智能을動員하야 綜合國力充實發展을期함
一、本團體는 唯物功利思想을排除하고 物心一致의 日本文化完成을期함
一、本團體는 日滿支提携를樞軸으로한 東亞新秩序를建設하야 世界平和에 貢獻함을 期함

▲組織大綱

中央機關
一、總裁 近衛首相
一、副總裁 二名으로하고 一名은 末次內相 他一名은民間各方面과 接觸面이넓은 大臣級 人物
一、理事會
加盟團體中 實質的 指導人物若干名을 理事로하야 理事會를 構成함 理事會에 理事長及 常務理事를置함
一、事務局
理事長미테 事務局을 設置하야 總動員事務의 執行機關으로함 事務局에 總務局을置하고 事務長은 局長이를兼任함
一、總務局에 組織 大陸連絡 宣傳의三部를置함
一、其他部門
事務局에는 總務局外에 思想 文化、經濟、農業、國民生活、靑年等 各部를置하고 各部長에는常務理事가 이에任함
一、顧問
本組織과別個로 顧問을置하야 首相、內相을除한 全閣僚、貴衆兩院議長、政黨總裁、內閣參議를 이에任함
一、參與
各省次官、政黨幹事長 加盟團體中 有力者를 이에當케함
一、評議員會
加盟團體代表一名式으로써 構成하야 理事會諮問에 應하고 또必要에 應하야 建議함
地方機關
一、支部
全國各府縣을 一支部로하고地方長官을 支部長으로함
一、支部組織은 中央機關組織에 準據함

國家的重大權益 毁損은斷乎不許
日蘇漁業條約交涉遷延에對하야 外務省情報部長談發表

004218

【東京電話同盟】日蘇漁業條約改訂交涉에對한 蘇聯態度는 屢次我方이 督促하엿슴에 不拘코 我方의 提案에 應할態度를 보이지안코 도리혀 我方이 條約違反을 하엿다는等 其他理由를口實로 現存漁業權을 無視하는 態度를 取하고잇스므로 外務省은 五日夜 在莫斯科東鄕大使에게 訓令을發하야 어데까지든지 蘇聯으로하여금昭和十一年秋日蘇兩國間에 妥協된協定案을 內容으로하는 我方의提案을 應諾시키고저 嚴重蘇聯側에 反省을 促하기로되엿다 이리하야 外務省情報部長은 如左한 談話를 發表하엿다

外務省情報部長談

漁業條約改訂交涉에關한 蘇聯側의回答은 겨우 去月二十八日 在蘇東鄕大使에게 提示되엿는데 依然 昭和十一年秋 日蘇間에妥協된 協定案을 內容으로하는 것이아닐뿐더러 所謂포츠머스條約違反論 其他各種理由업는 口實을設하야 我方現存漁業權을 有名無實케 하려고 企圖함이아닌가생각하게까지 하게하는 態度를보이고잇다 그러나 이것은 到底히 我方이 容認할수 업는바로 我方으로서는 어데까지든지 所期의 目的을 貫徹코저 昨五日在蘇大使에게訓電을 發하엿다 大體포츠머스條約은 第十一條第一項에서 『露西亞國은 日本海 오호츠크海及 벨링海에 沿한 露國領地의 沿岸漁業權을 日本國臣民에 許與하기爲하야 日本國과 協定을 할것을 約함』이라고 하여잇스므로 漁業權은 포츠머스條約에依하야 帝國에 認定된 基本權으로 漁業條約은 그 基本權行使規定에 不過하다 그리고 蘇聯은 行使規定을 日本國과 協定할 義務를지고잇다 一九三六年漁業條約이 滿期가된以來 我方은 本條約締結에關하야 誠意를가지고 그交涉에 當해왓스나 蘇聯의態度에 依하야 아직까지妥協에 이르지못한것은 遺憾이다 그러나 我方은 如斯한 國家的重大權益이조금이라도 毁損됨은 到底히 許치못할바인 同時에 漁業條約締結은 日蘇間의 正常關係維持를爲하야 延하여는 東亞平和를 爲하야 極히 必要한것인즉 蘇聯에서도 從來와 가튼 遲延策을中止코 一日이라도 빨리 本件條約締結이 行해지기를希望하야 마지안는다

敵機損害二千七百機
支那西部十省空權完全制壓

【漢口五日發同盟】我陸海航空部隊는 武漢攻略戰 廣東攻略戰에 繼續하야 其後도 進擊部隊와密接히協力하야 敗走하는 敵을차저 猛爆을 加하야 或은 敵空軍根據地를 襲擊하야 或은 敵密集地를 襲擊하야 敵空軍擊滅을 敢行하고잇는바 그 膺懲爆擊範圍는 實로 南北二千百키로 東西一千三百키로 面積三千七百平方키로에 達하므로 西部十省은 我空軍精銳의 膺翼下에 制壓되여 이제最後의 殘骸를 示하고잇는 敵空軍은모두 我爆擊下에떨고잇는 狀態이다 即我空軍이爆擊한 重要地區는 如左하야 敵의 最後一線을依賴하는 重要據點이 全部爆彈의 洗禮를맛고잇다

綏遠省東勝(伊克昭盟의首部) ▲陝西省 膚施(支那共產黨의首府) 潼關 西安 漢口 楡林 ▲寧夏省 寧夏 ▲甘肅省 蘭州 ▲湖北省 襄陽 荊門 慶州一帶地區 ▲四川省 重慶 梁山 成都 ▲湖南省 平江 長沙 衡陽 湘潭 株州 衡山一帶 常德 益陽 寧鄕 芷江 ▲廣西省 梧州 ▲貴州省 貴陽 ▲雲南省 昆明 桂林 柳州

그리고 武漢攻略殘餘 我陸海軍航空部隊가 敵空軍根據地를攻擊하야 擊墜 或은爆破한것이百餘機에達하며 西安 梁山 重慶 成都 衡陽 芷口에서 擊滅한것이 가장만헛다 梁山飛行場에서는 二回의攻擊에 三十五機 衡陽에서는 四回連續爆擊을 敢行하야 三十一機 芷口爆擊에서는十四機를爆滅하야 敵으로하여금空軍根據地를 不得已奧地로 移轉케하엿다 그리고事變以來 敵空軍에게준 損害는實로 二千七百機의 多大한數字에 達하고잇다

第四回八相會議

【東京電話同盟】國民總動員組織結成에關한 第四回八相會議는 六日午後二時부터 首相官邸에서 開催 五日의八相會議에서 決定된 新組織趣意書綱領을中心으로 어를具體化할細目에對하야 協議를 遂하엿다

定例閣議

【東京電話同盟】五日의定例閣議는 午前十一時부터 首相官邸에서 開會 首相以下 各閣僚出席下에먼저 永井遞相으로부터 議會制度審議會에 關連하야 年末年始議會休會期間短縮에 關한 質問을하자 이에 法制局長官으로부터 아직 何等 決定하지 못한旨를 答하엿다 遞相은 다시 有田外相에게對하야 國際關係에 關하야 一、二質問이에對한 外相의答辯이잇슨後 同四十分散會하엿다

時事解說
取引所株上場禁止說

池田藏相은 大日大阪서 開催된關西銀行大會에 出席하기爲하야大阪으로가든車中 豫算編成其他 時局談을하엿는데 그中『最近取引所株의低落理由로서 一部에 取引所改革乃至 取引所株上場禁止의 念慮가 傳하고잇는듯하나 余는 同問題에 對하야 아무말도 듯지못하엿다』고 말하야 取引所株上場禁止說은 今始初聞인듯한 表情을하엿다。

◇

이取引所株上場禁止說은 昨年에도 一次傳하야 一時株式의大低落을 演出케한일이 잇든바잇는 取引所株上場은 來然히 一般民衆의投機心만 助長하는것이라하야그 抑制策을 研究하든 바인데 事變勃發以來 經濟統制가漸次强化될을따라 모든商品이 投機性을 剝奪됨에 對하야 株式市場만이 自由市場으로 現狀을 維持하는 狀態이다 그런데 最近 國家總動員法 第十一條發動에따리 配當制限法가 近近施行되게되고 또經濟統制를 一層强化식히게되면 반드시 株式市場에도 무슨統制가 잇스리라는 念慮가 濃厚하게되여 人氣가 硬化되든中 鐵鋼業者招待會 席上에서 이야기한 東條陸軍次官의 蘇支二正面對抗作戰準備說에는 크게 衝動을 바더 그翌日인二十九日 株式市場에는 大暴落이 演出되야 前場에 東京短期 東新이 百十九圓十錢에까지 떠러저서 今年中의 最低價百二十二圓二十錢(七月十二日)을 下廻하야 二、二六事件當時의 低價 百十九圓二十錢 櫻井財政增稅悲觀時의 百十九圓九十錢까지 下廻하게되엿다。

◇

前場에서 百二十圓臺을 下廻하엿다가 後場에는 다시 恢復되엿고 또 今六日東京短期前場寄付에는東新百二十九圓을 唱하고잇스나 如何튼 經濟統制가 一層强化될것은 不可避의 勢이즉 아모리 藏相이 否認한다하드라도 株式市場統制까지 이를것은 必然之勢로서 統制를하게되면 多年間問題되든 取引所株上場禁止問題가 輿論되고잇는것은 明確하다고볼이至當할것이다。

南雄、肇慶空襲

【廣東五日發同盟】空中殘敵을殲滅하고저 ○○部隊는 五日早朝부터 高橋 藤田 石岡 寺西 澤田各部隊○○機는大擧廣東省北部南雄에잇는 敵飛行場及 敵司令部를空襲 地上과 空中에는 敵機를찾을수업섯스므로 完全히 敵軍司令部를 爆破하고 全機○○基地에 歸還하엿다 一方宇佐美部隊도 同日早朝부터 肇慶(三水西方約五十키로)를 連續長時間동안爆擊하야 敵軍司令部를 潰滅하엿다

八面鋒

近衛首相은 豫算案決定을 契機로 革新政策을 斷行하려라고。
◇
革新이란 무엇? 曰 行政機構의 改革、曰 政黨의 解消、曰 國民의再組織、曰 資金統制、曰 貿易管理、曰 輸出入制限、曰 配當制限。
◇
동덕어 自由主義의抑壓、統制主義의 全面的 實施。
◇
隱退中의 久原氏 總裁問題를 解決코저 東馳西驅。
◇
黨을 생각하는 마음은 可賞、그러나 存在의 意義업는 政黨을 살리라는 意는 那邊에 在乎。
◇
時局에 順應하라면 中島氏가 適任、政黨本來의 使命을보면 鳩山氏가 適材。
◇
그러나 모도가 總裁問題解決을 急히할 理由는 못되아。
◇
孫基禎、南昇龍兩君이 希臘에 招聘되어 마라손平野를 달리리라고。
◇
兩君의 榮譽、東洋의 자랑。

滇越鐵道架替材料를 支那側米國에照會

【北京五日發同盟】當地外人側消息에依하면 在漢南米國領事館에서는 滇越鐵道支配人 支那人某로부터 『滇越鐵道는 今回七十폰드의레루 九十폰드의 레루로 架替하게되여 그材料를 佛蘭西側으로부터 一切購入하기로되엿는바 價格과 時日關係로 佛蘭西製品을 中止하고 米國製品을 購入하고저 하니 百키로에對한 價格及 全線에 要할 레루供給期日에關하야 至急秘密로 回答하여주기를바란다』는照會를받엇스며 또그때支配人은 支那의補給路는 무엇보다 滇越鐵道가 最重要하므로 그强化準備는 아수必要하다 佛國이 日本의 미움을 받드면서 軍需品을 輸送하고잇는데 이것도 利益을 爲하여써다 支那는 이것을 諒解하나 어썰수 업는 形便이므로 米國에 註文하는것이다 佛國은 不愉快할것이다 相對者가 米國인以上 참을수밧게업슬것이다 라고言明하엿다 米國側에서는 注文擔保가 極히不確實하다하야 拒否하엿다고한다

雷州、北海市民에게 奧地避難命令

【上海五日發同盟】重慶來電에依하면 急速한廣東攻略以來 戰戰兢兢하고잇는 國民政府南支防衛軍當局에서는 我陸海軍의 廣東省西部 雷州北海方面攻略進擊을 두려워하야 어미同地方一帶市民에게對하야 奧地避難命令을發하는同時에 廣西省梧州에잇는 司令部를 秘密이移轉한模樣이다

鳩山氏病으로 代行委員會中止

【東京電話同盟】久原房之助氏의 要請에 基하야 總裁問題解決을 爲하야 開催될豫定이던 六日의 政友會代行委員會는 鳩山一郎氏가 微恙으로 出席不可能하므로 갈미아마 中止되고同氏의全快를 기다려數日中에開催하기로되엿다

리獨外相 伯林發巴里에

【伯林五日發同盟】리벤트롭프獨外相은 獨佛共同宣言에 署名하기爲하야 夫人과 갓 가우스博士以下 二十餘名을帶同 五日午後九時二十五分 伯林發列車로 巴里로 向하엿다

英米依存斷念코 獨自方針을樹立하라
支那在外使臣蔣에게勸告

【南京五日發同盟】情報에依하면 駐英支那大使 郭泰祺、駐佛支那大使 顧維鈞은 最近連名으로써 國民政府에 如左한 電報를寄하엿다고 傳한다 日獨防共協定은 益益鞏固히 結束하고잇스며 獨逸政府의 支那側大使陳介에 對한 冷遇는 그反映인어 明白하고 蘇聯努力의 歐羅巴로부터의 退却은 이제 不可避의 情勢이다 英佛은 歐羅巴의 現狀維持를 爲하야는 蘇聯을 犧牲할수밧게 업다 中國政府가 只今 英國과 蘇聯에 依存하려는 政策은 歐羅巴의 現下의 情勢에 비추어 不合理하다 英米各國政府는 支那의 最後의 勝利를 밋고잇지아니하니 中國政府는 英米新情勢를 再認識하야 獨自的立場에서 決心함이 必要하다 倫敦方面에의 消息에 依하면 米國은 內部가 複雜하여 英國의 誘引으로 極東問題解決에 나설餘裕가 업는듯하다

高要를空襲

【香港五日發同盟】中央通信梧州來電에依하면 五日 日本軍飛行機○○機는 前後二回에 亘하야 高要(廣東西方八十키로)를 爆擊하엿다 又他○○機는 鬱林을經由柳州를 爆擊 爆彈約○○個를 投下하야 市內軍事施設을 爆擊하야 火災를이르키게하야 모두 多大한損害를주엇다

人事·集會

▲金東勳氏(忠淸北道知事)五日夜入京本町"호텔"에投宿 七日午前五時四十分 京城驛發歸任豫定
▲山澤和三郎氏(慶南知事)五日夜入京 朝鮮호텔에投宿 七日"아가쓰기"로歸任豫定
▲鄭僑源氏(忠南知事)六日夜入京 半島호텔에投宿 七日午後歸任豫定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川島總裁推戴式各位式辭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川島總裁의 總裁推戴式은 六日午前十時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擧行되엿는데 式中다음과가튼 鹽原理事長의推戴辭와 川島總裁의 人事와南總督의 訓辭가잇섯다

總裁推戴辭
鹽原聯盟理事長

今日既히 會員四百數十萬人 愛國班二十八萬의 盛況을 見함에 至하야 聯盟의組織은 一段落을告하야 次期의 活動期에入하려고 하고잇다 此時를 當하야 人格識見一世에 秀하고 且半島와 因緣不淺한 川島大將閣下를 總裁로 推戴하야 總督閣下의 施政大方針下에 總裁閣下의 御指導를 受하야써 本聯盟의 理想에 邁進하려고한다 閣下는 吾等의 眞意를取하야 此大任을 引受하여 주신대 一同의 光榮으로녁이는 바이다 (寫眞은 鹽原理事長)

川島總裁人事

吾等朝鮮半島에 在住하는者 其內鮮人인것과 又官民을 不問하고 一齊히 皇國의臣民 天皇의 赤子로서 益益其自覺을 기괴하고 信念을强固히하야 今日의非常時局에 處하여서는 一段努力 國家戰力의 增强에努力하고 更히 將來를 念慮하여서는 我半島를 皇國의一部로서 永遠히光榮잇게하는 事를 目的으로하야 去七月七日 國民精神總動員聯盟을 組織하엿던바 爾來 風을望하야 參加協力하는者 甚多하야 只今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의 理事會決議에基하야 不肖를總裁로推戴하겟다는것을 듯고 一言人事를말하겟다

時局은 益益重大하게되고 國民의總力을傾注하야 長期建設에邁進할秋에當하야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이 結成된것은 가장 時宜에適하고 且其任務도 實로 重大한것이잇다고 生覺한다

此際不肖를 總裁에推戴하는것은實로 感激에 不堪한다 本來 淺識非才로서 其任이 아닌것은 不肖가 잘아는바이나 我國運의 將來에 對한此聯盟의 使命의重大함에 鑑하야 各人滅私奉公을 하는 秋라고生覺함으로 스스로 不德을 不顧하고 謹히引受한다 然이나 其使命의 重大한것을 生覺하면 各位의 絕對한援助업시는 到底히 其任務를 다할수 업다 此任務를 다할수업을時는 不止하고 實로 國家의進運에 對하야는 重大한影響을 與하는것으로 生覺한다 故로總督閣下를始하야 官民을不問하고 役員各位 又中央과 地方과를不問하고 聯盟總員 內鮮一體의 信念上에一團이되여 不肖를援助하고 不肖又身命을擲하야 粉骨碎身의誠을 效하야 相共히 聯盟의大理想達成에 邁進하고저한다 簡單하나마 以上으로써 人事에代한다 (寫眞은 川島新總裁)

南總督의 訓辭

今回 川島大將閣下가 朝鮮視察에와는데 때마침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에서는 其組織을擴充하는時에當하야 其總裁에 就任하기를 懇請하엿던바 閣下는 快히 此大任을 御引受하여다 이것은 홍로 朝鮮半島를 爲하여서만아니라 我皇國全體를 爲하야實로 慶賀에不堪하는바로서 深厚한 祝意를 表한다

이제朝鮮半島는 內鮮一體의信念上에 二千三百萬同胞가 一體가되여 皇國臣民인 自覺을기과하고 忍苦鍛鍊 總實力을擧하야 生業報國의 精神으로써 國力을增進하야 今後의 東亞長期建設에 對應하고저한다 如此한 情勢下에 在한 本聯盟의 使命은 眞로 重且大한 此秋에 川島閣下의 就任은 本聯盟의 理想到達에 所期의 效果를 招來할것을 信하야 疑心치 안는다 何故나하면 本聯盟은 閣下의 굿셴指導와 統制에 期待를 置하므로써다

次에 聯盟役員인 閣下及各位는 恒常 잘總裁를援助하고 且 이를支持하야 其指導統制에服하야 相互의緊密한 關係를保하면서 各聯盟과의 連絡을 充分히하고 更히進하야 組成分子인聯盟員으로하여금 現下 時局及本聯盟에關한 認識을 一層深刻하게하고 其活力을强하게하야써 東亞建設의 聖業遂行을爲하야 積極的精神運動에 邁進하야 有終의美를完成하기를 切望한다

現下와 如한戰時體制下의 國民의覺悟는去七月七日의 勅語에서 國家의總力으로써할것을 明示하섯다 國家의總力은 即國民의精神力과 經濟力의 總力으로서 歸着處는 各個人의精神的物質的總力을 統合하야 이를皇國의 大我에獻하야 一塊의皇國臣民은 一塊의 熱鐵이되여서 皇道를天下에布함에잇다 此時에 際하야 川島閣下는 本聯盟의 總裁에就任하엿스므로 聯盟의中樞組織인 百有餘萬의 愛國班員을 大規模의組織力에依하야 去六月二十二日聲明한『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趣旨書』에基하야 皇運扶翼의 大使命을다하라는것은 本職의가장 기우차고 또기쁘게生覺하는 바다 願컨대 本聯盟의力에依하야 ……

來世觀念대로現世에品性

고대 법률 학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러케부르지젓다 우리날 계수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심이여 지혜의 마음을 엇게하소서』이는 우리가각각 자기의 목숨에 대하야 정당한 관념을갓는것이 필요함을설파한것이다 녯적『끄리샤』『에비큐리안』파의철학자는 쾌락으로써 인생최상의 행복을 삼고 또는 현세의육체적쾌락을 다함으로써 인생의 목적을 삼은것이다 저희가 이러케 밋게된 리유는 저희령혼의 불멸(不滅)을 밋지안이하고 육체의 죽음을 만사의끗으로 생각한때문이다 그러나 인생에게는영원한 장래가 잇는것이 만물중에 령장된특증이니 이는 성경에 확증한것이다 사람의 수명에 대한관념이 어떠함을 따라서사람의 품성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것이니 혹은 말하기를『위인은 자기의 보잘것업는것을 아는자이라』하엿다 과연 그러타 자기의 운명을 생각하는 자는 지혜잇는 사람이니 이것을 생각하는것이 지혜를엇는 길이오 품성을 기르는 도이다 『쏘크라티스』도『귀중한철학은 우리에게도 덕상의 무와종교상희망을 가르치는 것이라』하엿다 철학도어니와 특히『예수』교는이점에대하야 우리에게 광명을주는종교이다

京城鍾路 朝鮮耶蘇教書會編輯部

全國發賣 教育情報 十一月 十二月 出來
▲大好評・注文殺到 ▲三週年記念・送年特別號
▲定價二十錢 ▲京城臥龍町・教育情報社・振替京城一六六五九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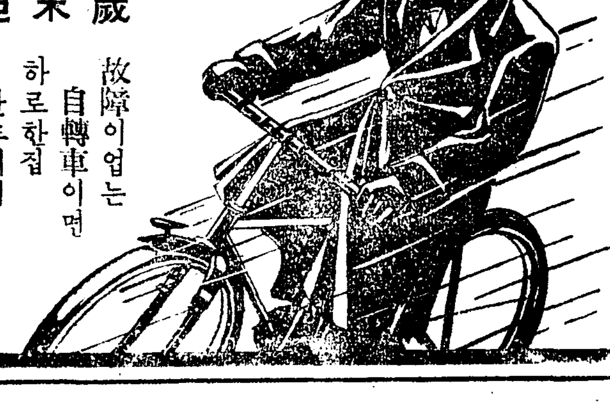
無代進呈・明正月까지學校案內版을注文하시면 教育情報第二十二號一册式進呈함・新年度版
全朝鮮學校案內版
定價五十錢 京城臥龍町・教育情報社・振替京城一六六五九番

물감원료 染料 藥品
京城府鍾路四丁目東大門市場前 愛國公司 福壽洋行 直賣部 電話光化門六一九番 振替京城一六○一四番

(入會金免除(見本進呈)) ▲學費二圓 二個月全集
漢藥種商講義錄 新版出來
漢藥五百餘種(朝鮮語) 京城鍾路二丁目 朝鮮藥業

頭痛에 테-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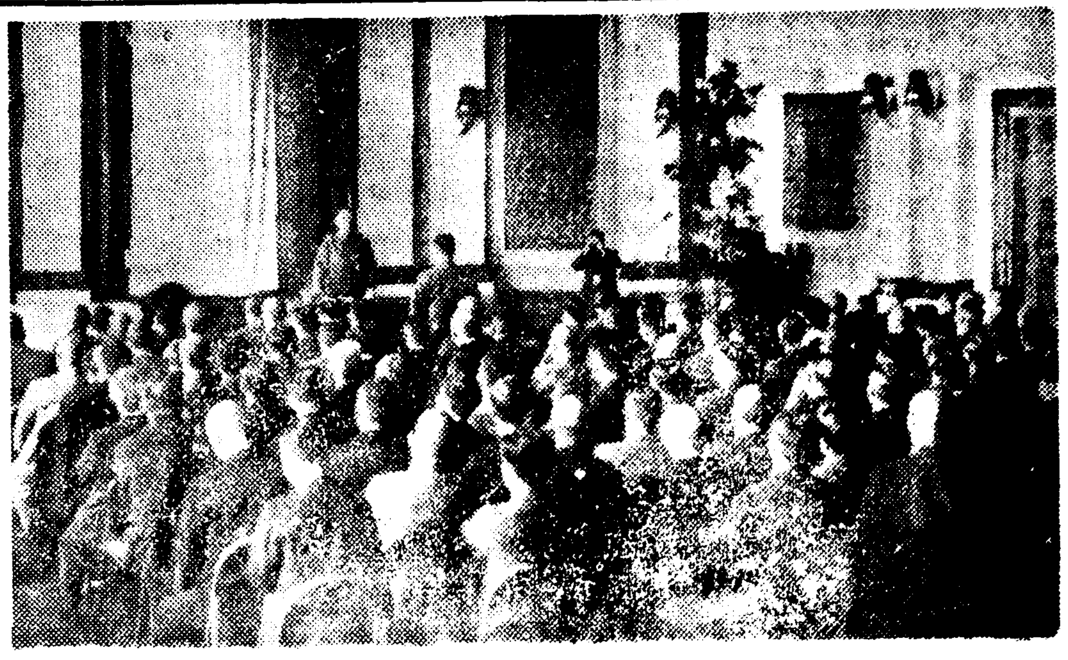
鋼鐵製 全廻轉部防水式 非常時의足
山口의自轉車
一車十年!
歲末迫頭!
故障이업는 自轉車이면 하로한집 반드시더 들려올수잇슴니다 그리고經濟無比!
型錄呈
東京・日本橋・小傳馬町 山口自轉車工場 販賣部



朝鮮總督府免許
粗金、銀、地金買入
一、昭和十三年十一月二十一日開業

五百萬會員의總意로 川島大將聯盟陣頭에

今日總督府에서總裁推戴式嚴肅擧行



남총독이 금년도 춘추각도지사회의에서 시정삼대요강중 국민운동의 통제강화를 역설하야 『반도편민은 중앙지방이 서로상응하야 우선 모범을 일본전국에 보히는 기대와 포부로써 일사불란의 통제아래 유기적전체력의 발휘가 절대로 필요하다』 라고 갈파한이래 사태는 드디어 그긴요성을 더하야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위대한조직이 탄생하야 금후일 이여오백만 회원의 총의에따라 전육군대신 천도의지(川島義之)대장을빗나는 총재에 추대하는날을 마지하게되엿다 이연맹의 영광스러운 총재추대식은 이날 오전열시총독부제일회의실에서 총독부각국과장 감자(甘蔗)경기도지사이하 신산도지사를 비롯하야 연맹이사 평의원 가맹단체대표등 일백오십여명이 열석한 가운데 자못엄숙하게 거행되엿다 개식사로부터식은 시작되여 일동은 황거를요배하고 연원(淵原)이사장은 연맹역원 일동을대표하야 천도대장의총재추대의 인사를하엿고 이에대하야 천도대장은엄숙한거롬으로 단상에올라가서 『이일구를 다할수 업슬때는올른한사람 천도의 책임분만아니라 실로국가의 진운에대하야 중대한영향을 끼칠것이라 고잇는다』 라는 신총재로서의 인사를하고 그다음 시와(矢鍋)이사가 연맹의오백만회원을 대표하야 기쁨에넘치는 인사말을하엿다 마지막으로 남총독은 『연맹은 천도대장을 마지하야 명실함께 국가의 의사와활동에직응하엿할수잇는 완전공고한 조직이 완성되라고하고잇다』 는뜻을 강조하야 연맹의절대적조력과 장래의 망회잇는일부를축복하야 절절한 축사를하엿다 이리하야 일동은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창하야 남총독서정의 국세천신아래 조선이천삼백만민중의 애국적결정의 총지도자인 천도 신총재의 추대를 본연맹의 돗기픈 행사를 거치엇시에모마치엇다 (사진은 천도대장 총재추대식장)

神宮에參拜 今夜 新總裁의第一聲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천도(川島)신총재 추대식은 유일 오전열시부터 총독부제일회의실에서열리여 오전열시삼십분에마친후 즉시총재 총독과총독부각국장을비롯하야 각도지사가 각연맹대표자등 일백오십명의 참석자일동은 조선신궁에 참배를 하엿다 그리고 유일오후여섯시부터는 신총재가 조선『호텔』에서 참석자일동을 초대하야피로연을 베풀게되엿는데 이피로연석상에서 신총재로서의 국민운동에대한 포부를전조선에보내게될터이다

昨年中의各種稅負擔 一人當三圓五十錢

人口增加보다稅金增加가急"렘포"

총독부에서는 지세(地稅)소득세(所得稅) 가옥세(家屋稅)등등 각종의직접세(直接稅)의 작년도부담액을 조사하엿는데 이에의하면 조선인중 법인(法人)부담을빼고 개인의부담만을보면 국세(國稅)가 이천칠백오십이만육천백삼십구원이고 학교비부과금과학교조합비를 포함한 지방세(地方稅)가 오천육십일만구천칠백구십일원으로써 그합계가 칠천팔백십사만육천원에 달하여잇다 전년도 조사액에비교하면 칠백오십일만육천원이 증가되여 일할육리가 증가된셈이다 세금의증가는 인구증가보다 급격한것을보이고잇는데 일인당부담이 삼원오십전이되여 전년도보다 삼십전이증가되여잇다 이것을 부(府)와 군도(郡島)로 나누어서 보면 부의인구는 총인구의 겨우 구『퍼ー센트』박게안되는데도불구하고 직접세부담은 총액의이십삼『퍼ー센트』를 차지하야 군도는이원구십오전인데 대하야 부는 그삼배가넘는 구원십이전으로되여잇다 이것을내지인 조선인 외국인별로 따저보면 내지인일인당부담이 이십구원 조선인이 일원칠십오전 외국인이 이원삼십칠전이어서 내지인의부담액은 조선인의십배가 넘어잇다 그리고 세금종류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보면 국세는 평균십이전 도세는이전 부면세는칠전 교육비부담은 칠전이모두증가하고잇스며 특히국세와교육비부담이 격증을보히고잇다 이와가티격증된국세는 북지사변특별세와외화채(外貨債)특별세의신설 자본리자세령의 개정으로 말미암은것이고 교육비부담의격증은 실행기에드리선 제이차조선인초등교육확충계획에 원인이잇는것이다 이와가티 세금증가는 거의다예약제라는성향이어지도 거의다

京城地方小雪

유일아츰 경성지방에는 눈이 일센치가량쌓하고 날세가 다소 쌀늘한감을주엇는데 눈이온것은 발해만(渤海灣)에잇는 소저기압이 오늘새벽 인천근해에온판게이며 지금지나북부에는 칠백칠십육미리의 고기압이잇서 이것이 동남으로이동함으로 오늘밤부터는 다소추워질것이라고 경성측후소에서 말한다

京仁線列車盜 團長以下捕盡

경인선(京仁線)열차를 무대삼고 출몰하든 벙어리단장의 소년『스리』단이 용산서원에게일망타진되엿다 근일경인간의열차속에서 금품도난사거이 빈번히발생한다는 보고를 접한용산서에서는 극력범인을 엄탐하든중유일새벽에 모종단서를 접하고형사대가인천까지가서 인천역발경성행열차를 습격하야 주소부

夜半의戰慄!

驛前에서行人轢殺코 逃走한怪自動車

警察各方으로犯人嚴探中

·교통사고가운데서 공포에찻여잇는장안 요번에는 사람을 치워서 직사케하고 다라나버린자동차가잇다 육일새벽두시이십분경경성역전차정류장압네루우에 조선옷입은 노동자한명이 쓰러저잇는것을 발견하고 소관본정경찰서에 계출하얏다 동서에서는 즉시숙직중인주근(酒根)고등주임과 사법주임이하 게원이 현장에 달려가서 임검한결과 얼굴과다리가부서지고 모자가 한간밧게떠러저서 남대문쪽을향하야 쓰러저죽엇는데 자동차바회 자욱이 역역하므로 사람이 드문새벽거리에서 자동차가 사람을치여노코 그냥 다라나버린것이두렷이 나타나게되엿다 시체의주인공은 이름도 아무것도 알수업고 다만 조선옷을 입은 마흔네다섯살쯤 되여보이는 노동자비슷하다는것밧게 알길이업서서 시체는부근『세브란스』병원에 수용하고 즉시 경찰부에 보고하야 시내각경찰을 동원하야 살인자동차를 맹렬히수사중이다

被害者의身元判明

피해자의신원은 유일오전열한시경에 판명되엿는데 북아현정(北阿峴町)이십사번지 정영식(鄭□□)이란사람으로 길야정(吉野町)방면에서 술을먹고 집으로도라가는도중에 참화를당한것이다 시체는 경기도형사에서 해부에 부첫다

二見司法主任談

최근 사람을치여노코 다라나버린 부도덕한 운전수가 횡행하는것은 유감스러운일이다 그것을 징게하는 의미에서라도 금번에는 철저한 규명과 처벌을 할터이다

料理店、遊廓의 往來車嚴查

新町택씨運轉手等檢擧

소관본정서에서는 사람을 치여죽이고다라나버린 자동차의정체를아라내라고 물샐틈업는 수사망을펴고활동중인데 위선자정이넘어서 시내와용산방면에 다녀잇는 택씨를 조사하되 의자를 내사하고 잇다 그리하야 유일아침에는 신정택씨오길환(吳吉煥)ー가명ー외십여명의운전사를 검거취조하는 한편비번근무원을비상동원하야거리마다수사진을느리고잇다

支那事變貯蓄債券賣出好況

오일부터 팔기시작한 제칠회지나사변저축채권육만장 총액삼십만원은 첫날하루동안에 이만일천장 즉삼할오분이팔렷스며남

人間饑饉

技術卒業生의配當 朝鮮은申請의二割

명년도에 전국의 광공(鑛工)기술자의수요수는십□만명의二수에달하는데 졸업생은 겨우일만이천명밧게업서서 기획원에서는 학교졸업생사용제한령에따라 각지에 기술졸업자의 배급을 통제하기로되엿는데 최근 조선의 요구인원삼천백팔십사명중 겨우 이할삼분인칠백칠명으로 배정이결정되엿다 명년에 조선에서 나오는 기술졸업생은 경성공업과 진남포(鎭南浦)에서 나오게될터이므로 그나머지 약칠백명이 내지에서 이입하게될터이다 이와가티 배당된 칠백칠십일명의 배당인원의 내용을 보건대 기계(機械)기술사신청수 구백구십일명에 대하야 삼할삼분인 삼백이십칠명이 배당되엿고 조선(造船)기술사신청수 십륙명에대하야 일할삼분인 두명이 배당되엿고 항공(航空)관게 이십삼명의 신청에 대하야는 한명도 배당되지안엇고 전기(電氣)관게 구백필십사명의신청에대하야 그이할이분인 이백십사명이 배당되엿고 응용화학(應用化學)삼백오십명에대하야 일백이십삼명이 배당되엿스며 채광야금(採鑛冶金)일천명의 신청에대하야 그일할인 일백일명이 배당되엿다 그러나 조선에서 나오는 졸업생이 삼백칠십육명이고 작년의 배당수는 작년, 재작년의 신규채용수가 각 기술졸업생이 일명이엇스므로 금년의 신규채용한 가 금상당히 그배당성적이 약속한셈이다고한다

銀翼에孤魂을실고 눈물ㄴ雪怨飛行

高善桂鄕土訪問機今朝京城離陸光州에

내子息의飛行인냥기뻐하는崔潤喜氏

향토방문비행도중에 동승의최비행사를 뜻밧게 대판상공에서 일코 일시 장도가좌절된듯이 전하든 고선주(高善柱)비행사는항공게의 선배며 체신당국의후의로마춤내 장거는계속케되여 일허버린 동지비행사의영웅을 위로하는 비행을결행케되엿다 이날육일 오전열시오십분 경성비행장에서 체신국 우편비행기 살무손기로써 일본방공협회 삼무이사 원곡영일씨의 동승으로 그리운 고향인 광주(光州)로 향하야 떠나게 된것이다 날세는 바람업시 쾌청하야 비행일기로서 마춤맛세이엇스며 더욱이 간밤에내린 눈은 산과 들을 은비츠로장식하여 꿈추춤날려가는 조인의기분을 일층상쾌하게할뜻하엿다 비행장에는 지난번에 고선주비행사와가티 고향에 날러오다가 대판공중에서 불행한 죽엄을한 최진상비행사의부친 최윤희(崔潤喜)씨와 신용욱(愼鏞頊)비행사와항공관계자와 신문관계자등이 다수나와서 그의장도를 축복함에 고비행사는 침착한 태도로 별로히 말도안하며

『끗까지 목적을 달성할생각뿐입니다 이는내동지최군의 뜻이밧들어주는 비행이요 또사회여러분의 성원으로저될것입니다 특히우리선배제씨와 체신국의 후의를감사합니다』

고하엿다 특히그아들을 일흔최비행사의 부친은 극히침통한태도로

『가슴이 미여지는것 갓습니다 하나고군의 오늘비행은 내아들의 비행으로 생각하고 그성공을비려서 여기까지나왓습니다』

고하면서 말로이다하엿다 어욱고 준비가다되여 기관의폭음도명랑 이비행기는 이륙하야 맘우의한눈을남리며 고도를노피자 경성상공을일주순하고 남으로로쏜살갓치 광주로향하엿다 동가는 광주에가서 약삼일간묵으면서 낙하산비행이며 기타공중비행으로저 향공사상보급에 지력케될예정이다 그러고 이번비행을 위하야 신항공사업사(愼航空事業社)에서는 연료가다소손이원을 동원시키어 감별한후원을 하게되여 우리항공게의 적다운사이를보이엇다 (사진은 이륙직전의고비행사)

先輩 愼鏞頊氏談

고선주군이 중로에 동지 최일코도단연 초지를 굴하지안코 향토방문비행을 계속하게된 이면에서 후배의 용기를 도와진력한신용욱씨는 다음과가티말한다 고군이번비행을 계속하게된것은 여러가지 방면으로 뜻기픈 일임을 사회각방면에서도 인식 해주기를 바랍니다 첫째동공의 동지를 일헛다는것은 항공계에 드물게보는 불행이잇스나 그 일시의실수나 사고이엇슬뿐이고 그러햇다고해서모처럼계획햇던 비행을중단치안흘수업는것은 아니엇다는것을 우리항공게의 전도를위하여 세상에 그동의 을필요도잇고 또고군그자신을 위해서도 사내장부의 첫뜻을 완성케하며 아울러중도에서 불행을본 최군의영을위로함이될 더욱뜻잇는일이라하겟습니다 어가티하여 못까지그 한목적을위야 힘을다바치도록우리항공계의 명사람은 그를격려하엿습니다 대판(大阪)잇는 장덕창(張德昌)씨도 만히힘써습니다 그리더데 체신국에서도 만흔호의를베풀어 오늘의비행을하게된것은 더구나감사한일입니다 오늘고군의 비행은 일면비장하고도 다시업시 기쁨일입니다

天氣豫報

豫報 今夜와明日(京畿) 道全區도以上과갓다
昨日最高 九度九
昨日最低 零下二度
今朝最低 四度四
今日正午 零度一

人夫四名生沒

楊平郡下京慶線工事場慘事

오일오전열한시경 양평군저면일신리(楊平郡砥底面日新里)경경선(京慶線)터널공사장 제칠공구(七工區)에서 일하고잇던인부일곱명이 굴속에 파무처버리엿는데 그중세명은 요행히빠저나왓스나 남은네명은 그대로압사하고 시체는 발굴에 전력을 다하고잇다 원인은 비스물이 흘러드러 그처럼 문허진것이라하며 생명된 인부네명의 이름은다음과갓다

楊平郡砥底面日新里 鄭二鉉(三二)
同 朴昌植(二四)
驪州郡北內面費院里 金先雄(二七)
江原道三陟郡北山面九湖里 金鎭萬(二〇)

양평서에서는 곳 게원을현장에 파견하야 인부들을 독려해가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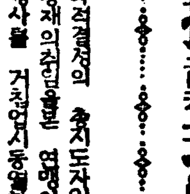
志願兵入營 壯行會盛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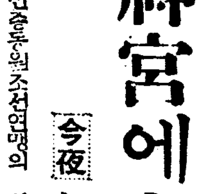
동업매일신보 주최『육군특별지원병입영축하대장행회』는 유일오후두시부터 부민관대강당에서 열리엇는데정각에마추어 이백두명 반도동사가 나팔을선두로보무당당히 회장에당도하는 모양 정의면어리 고도의웅(古島義雄)은 보기에매우씩씩하엿다 (一)의네명을 걸거하야다가 취조중이데 이들은 전기벙어리를 단장으로절도단을 조직하고 열차를 전문으로 승객의금품을절취한사실을 자백하엿는데 판명한피해액만 수천원에달하므로 여죄를추궁중이다

聯盟에一萬圓

朴基孝氏寄附

부내 동사헌정(東四軒町)의박기효(朴基孝)씨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천도(川島)총재추대식에 참석하야 연맹의취지에찬동하고 연맹에대하야 일만원을 헌금할뜻을 기부신청하엿다 (사진비룡빈은 박용진、외이번으로 심상욱군)





朴、沈兩君도 海外에出戰

拳鬪朝鮮氣高萬丈

두선수권대회에서는 비률빈(比律賓)원정의 대표권을 모조리 조선출신선수가 휘득하엿거니와 일직부터 국동권투계에서 용명을 휘날리던 우리의보배 박용진(朴龍辰)군이 명춘을기하야 미국(米國)원정을 떠나기로되여 방금 동경일본권투구락부에서 꾸준한 연습을 거듭하고잇다하며 박군은 지난해부터 『푸로페슈날』로 전향하야 전승의전적을 빛내고잇는 선수인바 국제적선수로서 군의 활약이 크게기대된다 그리고 라이트급의왕자인 심상욱(沈相旭)군도 박군과 어깨를가치하야 역시 원정을 떠나게되엿다

比島遠征軍 送別拳鬪

來八日밤으로追頭

全朝鮮拳鬪聯盟에서는 比律賓에遠征할 金仁泰、金明錫、鄭福壽三選手의 送別拳鬪戰을 來八日午後七時부터 朝鮮日報社大講堂에서 擧行할터인데 이날밤의 出戰者는 지난번朝鮮選手權에優勝한 猛將들로서 모두選手들의熱氣에불타고잇서 當夜의熱戰을豫期케한다 入場料는 大衆料金으로 二十錢을받기로되엿스며 對陣은 메인이벤트三組와 朝拳、靑拳、東拳等의 猛將들만으로七組가參加할터이라한다

比島遠征 籠球送別戰

明夜부터YMCA에서

來十九日 長崎出帆의熱田丸으로 比律賓에遠征할籠球選手 李好善、吳壽喆、吳重烈五選手의送別籠球戰은 中央基督主催 第十二回靑年會籠球聯盟戰第二日(七日)부터 第三天戰에編入시켜 連三日間을 鍾路靑年會籠球코ー트에서 擧行하기로되엿는데 七日午後八時四十分부터는京城OB와比島遠征軍의 第一回戰을行하고 八日에는延專、九日에는OB와 第二回戰을行할터이라는데 世界第一의米國軍과 對戰할 一行의壯途를祝福하는 意味로 多數參觀하기를 바란다고한다

라디오

第二放送 ▲同六時 印度童話 거미줄 金尙鎭 ▲同六時二五分 講演 어린이新聞 ▲同六時二〇分 講演 世界郵便新羅 ▲同七時三〇分 講演 『長期建設과國家總動員』 每新柳光烈 ▲同八時 室內樂 京城絃樂四重奏團 桂貞植 文學準 安聖□ ▲同八時三〇分 唱劇 金泰澔 年秋月 鼓手朴鍾基 ▲同九時 連續野談 『賀多嫁賣門』 申鼎言 ▲同一〇時一〇分 中等國語講座 李完應

色鉛筆

봉건적(封建的)인 구식장사들은 손님이야잇거업거 언듬사리가채거치기도전 새벽여에전방문을열엇다▲이것은물건을 새벽부터 만히팔겟다는 욕심이아니요 일종전통잇는 상인의한가지도덕으로 지켜오든것이다▲겨하야 문만열면 전방압길바닥을비질하고 물을뿌려 행인들에게봉사를한것도 일종의공중미덕!▲이것이 요지음세상에 이르러는 소위현대식상점간판아래 아침아홉시에 문을열고 저녁때만되면 문을닷는것이 일종큰상점의행세!▲더구나 점방압길의소제는 부청에일임하는상태▲산밥에천눈이와서 길바닥을덥고보니 옛상인들의 순풍미속이 더욱그리운일

SINKO PHARM & CO SEOUL KOREA

サツタリム은何故로他種淋藥보다特効한가?

本社는 其理由를千萬가지 誇張보다 學理的 科學的으로 證明하려한다

時代에뒤진 白檀油나 プロタルゴール製劑等은 다시 논論할必要가업고 요새 各新聞이나 雜誌等을 들고보아도 有名無名宏壯하게 떠들고잇는 SO_2NH_2基(スルフオンアミド基라稱함)을 含有한藥 卽 NH_2⬭SO_2NH_2라는 化學構造式을가진 藥이 잘듯는다고 야단치고잇다 勿論 在來淋藥보다 잘들엇다 그러나 世上은 特히 科學界는 날노進步한다 昨日까지 第一조라고하든 NH_2⬭SO_2NH_2라는藥도 今日은一層改良하야 SO_2NH_2基가 一個뿐만아니라 二個를 化學的으로結合시켜 더욱作用을 强化시킨 NH_2⬭SO_2NH⬭$SO_2N\langle^{CH_3}_{CH_3}$라는 藥이나왓다 그作用은 NH_2⬭SO_2NH_2보다 數倍强하야 如何한惡性淋菌이라도 撲滅시키고야만다 サツタリム은 이 强한藥을 主成分으로하고 其他 β—PH—α.α.—DIAMINOPYRIDIN. T. B.U.等 特効成分을配合시켜 一層治淋作用을强化完全無缺하게한것이다 한번만 꼭 써보시라! 絶對한 自信을가지고 良心的으로勸합니다 이 廣告內容에對하야 不明한點이잇스시면 本社나 또는 가장親近하신 醫師藥劑師諸先生께 問議하야주십시오。

全世界的으로有名한サツタリム의特徵은

(1) 一日六錠이란最大量을服用해도絶對로副作用이업고
(2) 特異成分에依한 赤褐黃色尿가나오며
(3) 速하면 二日느저도 六七日後면꼭 낫고
(4) 不過拾餘圓이면完治되니經濟上으로보아도廉價이고
(5) 再發할憂慮가殆無합니다
(6) 本劑는梅毒에六〇六號나 マラリヤ(학질)에キニーネ(금게랍)와가치治淋에絶對特効가有합니다

朴昌薰外科泌尿科
醫學博士 朴昌薰先生發表

過去數年間 パラアミノベンゼン スルフオンアミド製劑가 簇出하야相當한 効果를보앗는데 이제前者보다 一層改良되야 SO_2NH_2基를 二基含有한サツタリム을 使用하야본結果 急慢性淋疾은勿論이고 其他 各種腫氣 後髮際 走馬脂等에 卓効잇슴에 驚嘆不已하얏다 今後醫療界에 큰貢獻을주리라고 確信하는바이다。

皮膚泌尿科專門
醫學博士 鄭槿陽先生談

本劑의主成分은 サルバルサン以後에처음보는 化學療法의成功이요 一般球菌類에對하야 偉効를呈하며 特히急慢性淋疾及丹毒에 卓効를가지고잇다
從來의製品 卽ズルフオンアミド基한個를가진것보다 이것을 두個含有 한本劑의成分은 더한層큰効果를 期待할수잇다

殺打淋

急性用 五圓
慢性用 十二圓
德用 二十圓

サツタリム SATARIME

總發賣元 新興製藥所 京城府堅志町
代理店 新井藥房 京城·鍾路
出張所 ハルピン 圖們 大阪

SINKO PHARM & CO SEOUL KOREA

學藝

時代的偶然의受理
—事實에對한精神의態度—
⑤ 白鐵

그러면 나종問題로서 今日의 偶然的事實을 受理하야 結算的으로 무엇을우리手中에 거둘수잇슬까? 거기에 대해선 前項에도

提示한바가티 하나의 事實을 理解하는結論이 혹시라도 그時의爲政者의 意見과 一致되지지안흘때에는 그受理의 結果가公衆아페 發表해지질안는다 오늘의偶然을 受理해서 무슨結論이 지여지지안는것은 그런時世的인 事情을考慮하고잇는때문일까? 그러타면 今日의偶然은 다만個人的으로 受理하야 各各個人個人의體內에 蓄積하는意味가 될까! 그러나 혹시 그런時世的인點에서 어떤結果가 數字的으로나서지안는다하더라도 여기서 明確히할수잇는것은 明確히할 必要도 잇는것이니 例를들면 知識人이 그 時代的 偶然을 受理하는데도다 또는 人間이 個性的이요 地方的인것을 受理하면서 한개의 普遍과 通하는問題다 知識人이 現在에잇서도知識人다운점은 다른一般市民과合流되여서 大衆과□를하고 憤激하고 興奮하지안는곳에잇다 知識人들은 그

市民的興奮에까지 떠러지기前에 위선그 興奮을 스스로制御하고 그時代와市民의行爲에 冷靜하게分析을加하고 意味를부처서論斷하는態度다. 『嘆息도말고 怒하지도말것 그러나 理解할것이다!』라고 『스피노자』의한말과 『義務도非難도 讓實한知識은아니다』라는 『레오나드·다·빈치』의 말들은 後代의知識이 언제나 敬聽할 知的態度다. 더구나 今日의 知識人과가티 하나의 時代的偶然의興奮아페 선 時期에는 貴重한敎訓이여야할것이다.

知識人에게 잇어 現代의 宗敎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理性의 神을 밋는信仰이요 奉仕할現代思想이 어느것인가하면그것은 精神이 知的인어떤形態로 나타난 大思想이다. 今日의 現代의 某學士가

指摘한바와가티 叡知와 理性의 行使가 人間相互間의 和合하는것을 指示하고 統一하는一大思潮가 나하날 前提를 末來에 가지고잇는것이다. 例를들면 國際關係를 두고 人類가 서로 結合하고 和合하는 問題다.

現代의 國際的인 關係를 事實대로보면一見 그關係가 복잡한것가트나 그關係의 基調가된것은 첫재가利益問題요 둘재가 感情과 種族的인 類似性이다. 여기에今日의國際關係가암만해도 國際的인데나갈수업는矛盾과普遍性에 到達할수업는 限界性을가지고 잇는것이다 웨 그러냐하면 國際關係를 그利害條件이相合하고 感情的인것이 一致되는 限에서 계속되는關係요 決코人類의 永久的인 根本的인 結合은 아니기때문이다. 萬一 그特殊條件이 解除되는날 그들은서로 吳越로서 對立할뿐이 아니라 그러局部的인 數個國의 結合은 同時에 다른

數個國과는 더욱 激烈한對立을 意味하기때문이다. 이와가튼 限界的인 國際關係는 現在의 國家들의現實로서는 하는수업는 事情이줄은 아는바이나그러타고해서 知識人의 理解가그限界에 그대로 머출수는 업는일이다 이限界에 대해서 感情的인것에代하되 知的인 結合을가지고 臨해야된다는것은 人類關係에잇서 普遍的인것을 末來에 期하기때문이다.

이런 事情을 포함하야 月前 某國民族主義가 知識人理解에 대하야 다음과가튼 意見을 말하고잇다. 『그들의 知性은 그것이 現實的인 限에서 戰爭 國家 民族等을 그現實的인 比重에 即하야 再評價할것이다. 同時에 그들은 理想을 잇지안는限에서 平和的인것 社會的인것 國際的인것에 對한思念과 愛着을 斷念하지 안흘것이다…… 그들은 現實的인 立場에서는決然히 戰爭과 國民과 民族側에서는것을 사양치안는다. 그러나 同時의 熱意와 決斷을 가지고 그들은 거기에서 또는 그것을 通하야

文化的인것 人道的인 社會的인것 國際的인 世界的인것을 實現하려는 理想的努力을 계속할것이다』라고. 이것은 우리들이 現實的으로는 偶然우에 處하면서도 그偶然을通하야 偶然과事實의問題를 現在와 理想을 統一하는 契機的인것으로 보겟도그런意味와 通한다. 또한 今日에處하야 偶然과 事實을 受理하되敢히그以上의 意味를차저 眞理를設定하려는 努力은 生活者로선커다란 道德의 意味를가진問題다.(終)

―나의散文詩―(一)
꿈의 告別
林學洙

蒼白한 달이 그의 하로 나그내를 맛첫다. 새들이 건너편 숩으로 깃을 간조롱히 다투어 숨고 바람은 芭蕉닙에좇아 떨에는 귀도리가 百合에 빗나는 이슬처럼 운다. 내가슴에 살든 그가 이세상을 떠나든밤도 꼭 이러하얏다.

一이제 내잡간 그때일을 생각하고 그때일의 올코 그럿슴을 내스스로 反問함에 허뭇치 말어다오一하늘에는 수만흔별이 빗나고 처마끄테에는 비들기가 구구거렷다. 그는 내옷깃을 헤치고 나와 내겻에 안저 머리를 빗고 새옷을 가라입고 最後의化粧을하고 (그때 나는그것이 그의最後의 化粧이 될것을 잘알고 잇섯다) 이상한듯이 내 친상과 천장과 네벽을 돌러보고 그리고 다시 내무릅페 안저 손을 잡으며이러케 말하는것이엇다.

『램프를 도겨주세요 南쪽窓은 열고 東쪽門을랑 다더주세요』

그대로 하니 東窓에는 대그림자가 서늘히 빗최여 바람이 대에 올때마다 그그림자가 속삭어리고 南窓으로는 저 永遠히 살려오고 밀려가는 검은바다가 뵈여 아득히 잠을 깨갈매기의 우름마저 들리는것 가토다 그는 내손을 다시잡으며

『나의 生涯는 짧엇서요 그러나 이제 내가 떠나야만할 때가 되엿서요!』

『이러케 밤이 기프데 들에는 메뚜기 잠자리도 모두 숨엇는데 어떠케 저갈대 흔들리는湖水를 건너 독수리가 움크린山봉오리를 넘어 간다는 말이냐? 날이나 새거든 떠나가렴으나 뒷山 들菊花가 욱어진 끝작까지는 내 너를 전송하야주리라』

『안녕! 당신의 가슴은 나에게 부드러웁고 따뜻한 보금자리엿서요. 나는 그를 感謝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가 당신의 가슴에서 살엇기때문에 이따금 괴롭고 차지안는 願望으로 하야 마음이 슬픈것도 나는 잘압니다. 이제 당신은 薔薇의 한점이란 지극히 짧다는것도 저 몽롱한 水平線 넘어가 決코 天國이 아니라는것도 잘알게 되엿습니다. 이이상 더 내가 당신의 그늘미테 의지하야 조을고 당신의 벼개밋을 아름다히 꾸민대도 오직 당신에게 苦痛을 주는것뿐이요 이슬고 나는 내自身의 가엽은 屍體가 길가에 버려지슴을 發見할뿐이겟지요』

그는 또 말을 이어 갑작이 살잣히 『그러나 지금도 수만혼 손님이 저기 나를 기다리고 잇지요. 나는 오직 세상을 모르고 저 智慧의 열매를 따려하지안는一물타는 情熱을 위하야는 기뻐 生命을 밧치고 도타보지 안는 大膽한 그들에게한 내가 더 한층 實하고 그들에게 一瞬도 어지롭을 要食잇것을 잘 알고 잇지요 나는 이길로 바로 가야겟서요 저밤나스로 나를 기다리기에 지친 그들의 가슴 기피 어서 黃金伴을 키여노아야겟서요 꼿빠一이.』

어리하야 다섯해동안 내가슴에 살든 그는 다섯해전 어느 가을밤 나의 靑春과 함께 가버리더라.

하늘에 별들이 갈칙이 오수수 속삭어려 그들의 새손님을 마저드리는듯 하고 바안에는가벼운 밤의 울新에 아득히 나려치는 소리가 들렷섯다.

그러나 그를 挽留하지도아니하고 나를 저버리고 가는그를 구라여 잡으라고도 하지안엿ᄋ아 그럿이라? 어느 露草얼킨 두던에 가버린 나의靑春을 위하야 하나 石壁을 세울것이다!

꼿도 그때 나는 잣지 안엇든

漢詩
題 新涼
押 人
桐岡考選
佳作之一之六
慶州郡西部面甘一里 申升均

久潦蒸炎積幾旬、
凉隨霽風夜來新、
厭經石鑠金流日、
快坐風清露冷辰、
手裏燕功紈扇子、
牀頭失寵竹夫人、
三庚煩肺今如洗、
却是塵寰幻化身

朝鮮古典文學管見
=特히「春香傳」을圍繞하야=
⑪ 徐斗銖

바꾸어말하면漢語漢文的表現이 오히려 生活化하여잇다고도 보□하다. 大抵 鑑賞이 對象의歷性을 □限함이어서 現在立場에 行해지는 藝術的享受는 만個別的主觀的의일이니 個別로 無知한 文盲이랄지라도 個別的으로는이 여페서 밤울새면서 이漢文的表現에 그래도 올흔바 잇섯다면 이것 무엇을意味함인가? 勿論 어□한理解와 音律的美가 그들□거웁게 하엿스리라. 그러나 좀더 기픈根源이잇스니 歲月동안의 不息不休間 浮動이原因한 漢語에對□慣이 마침내 한거름 나 그네自身의 生活感情을 그대로 때로는 거이純粹母語와의 判別이업슬程度로 알게만큼 漢語漢文的表現으로 하여버리는 含蓄잇는語句使用法을 만든데잇다고본다 漢字의朝鮮的意義로만 使用되는 語句發生은 이에힘입은배만하고 나는생각하기까지한다.

春香傳의口誦性과 조선말

春香傳이 春香歌가되기前이와反對의 過程도 짐작되나 先은 金台俊君의『小說로되기는 英正以後요 歌劇으로되기는 憲宗末에서 哲宗初까지인듯하다』는것을 依憑하야 아러케 보아둔다一에 벌써 口誦性을 가진文學이엿다。春香傳이 口誦되여서 드디어 春香歌로 展開한것은 元來 그것이 無識을하나 漫然하 이런 藝術의 享受主體로 參與한 民衆을 獲得하는데 動力인 口誦性을 豊富히 가저잇에 緣由한바 만흐며 春香歌가 이러케 口誦되게스리 만드러젓든것이 그口誦性을 더가밀게하엿다. 그러나 文學으로서볼때이論이 文學的把握의 絕對條件이되기는어렵다. 口誦性은읽음도 堪當할수잇는것이여야한다 바꾸어말하면 어데까지든지 口誦性은 口誦을 把握理解의 條件으로하는 文學性이여야한다. 비록 春香歌로 分身하기前 春香傳이殺使 文學的即 讀書的이엿다고 손치드래도 純粹히 文學的인 읽음으로만 우리에는벌써 滿足을 가지게못하며 어던지몰리 自然 고개를 끄덕대거나 발끗長短을 제스스로 抑制할바모르게스리 마추리만큼 口誦을 把握의條件으로하는 特殊한읽음을 아니 오히려 그觀覺的要素를보담 훨신 强烈히가저지는 作者便으로보아 口誦的 敎衆便으로하야 聽聞的合치서 音樂投影的 文學性인 朝鮮古典文學의 한特殊性의 典形的形相을 春香傳이 지니고잇다. 그리고이것은 決코 박그로부터의 賦與가아니오 春香傳스스로가 간직하고잇는것이니 이것이 春香傳이 成長文學인 素模한 한原因이기도한다. 即 그때까지의 모든 言語藝術의 攝取 아니 그들의 集大成이 原作者의 博識과 다음 添補者들의 살들한修補로 因하야 하나 하나式 寒洲에시 朝鮮語와漢語의 混淆語使가 이루어저잇서. 그에서 韻律性의洗練을 口誦에알맛게 任意로히 自由로히 하엿다는 그內在的要因을 우리는 이저서는 안된다。이때에 도우리는想起하지아니치못하리니 漢字音韻이가저오는 韻律的規一性의 支配가 곳이것이다。이미韻律性이란말이 낫스니 附言하나 이韻律性이야말로 口誦文學 或은 口誦을方便으로하는 成長的文學에 잇서서는 그線的波動의 最大契機가 된다고본다. 보다 古礼春香傳을 읽어도 그中에는 勸酒歌、春眠曲、想思別曲、處士歌、黃鷄打令等 讀香傳이 이미親熟한韻律性의路線이 하도만타. 그러나 이外의것은어떠냐? 格言的成句가 보이는 音調美도잇다. 우에도할한바 허잘것업는地名의羅列 그도이따이닙 고장의 그것조차도 퍽으나만타. 그러면서 저기서보여지는韻律은 오직三四調 或은 四四調式의 그러나 수體를 반드시 求書의 韻文律도 아니오 그러타고해서 온전히 內在的散文律도아니니 春香傳一이따의 다른古典에도 그냥適用될때가잇슬것이 짐작되나一이가지고업는『읽음』을豫想하면서도 오히려 그大衆이 허는때거릴口誦的性質이强하엿슴에 結果한 韻文的散文的 외롭슴치저서 一個春香傳的韻律이되여 잇다고한다. 前古에업섯다고 말하는이도잇슬만큼 아롭다운것은 그것이 이口誦性을 把握條件으로 成長한 文學이 엇기때문이다.

그리고 이點이 또 唱劇으로 春香歌가 살리워질 可能性을진사리氣現하고 잇기도한다 여러한口誦性은 根幹的으로 조선말의考察에 誘導한다마는 조선말에對한 知識이 아직이지못한터이라말하기 거북하나 文學의方法의問題가 往往根源的으로 云調될때엔 言語와 文章의發達史의우에 설때가 잇다는까닭으로 면마디膽說을 加하려한다。人類文化의發達을 우에서말한 文學에잇서서의 言語表現의 音樂的投影 口誦的性質을 眞正한散文藝術의 壓縮段에 不適하다고가르치며 口誦을 散文藝術에對한 冒瀆이라고까지 보여진다. 그러나 허는수업는일이다.

春香傳이 春香歌로 우리만큼散文的藝術의 雰圍氣는 新文學以前에는一아니 新文學當初도 아조幼稚하엿다一아직 삭만하여지지를틀못 하엿스며 春香傳은 終乃 韻文散文의 뒤범벅이엿슬뿐이다。問題는 도이 뒤범벅이라는데에 胚胎되섯이다。조선어가가진 表現能力 더구나 그形容的 副詞等의 多形多異한 發達은 다른言語에 先驅的으로뛰어난點이다라고본다면 만言語를 그리 모르는 筆者의主觀的基準이라 誹謗될는도하다。事實내가 只今 어떤言語에對하야 말을한다면 終始의基準이한갓 井蛙式이되여질도 不許하고 終乃 조선말이 그것이되고만다。母語가 우리네의 生活과不可分의것일진댄 어쩌든 母語에 적어도 無意識하게라도 역성을 들게될것이다一말은 단길로 벌으나이따에 生을享有하였다는 單純한 理由로 自己네만이 아는척 自己네의 이척의와由來 根底에對한 感觸을 가지지안흘뿐만아니라 그갓잔 詩人的 直觀이오직 自己世代의그것에만根據하야 時代錯誤的 換言하면 時代의正確한把握을喪失한채 곳장威風堂堂한 所謂聖者가 이따에 有名하잇다는것도 이點으론 사랑스럽기까지하다。阿阿一『異言語면さへ辨り가되고 그사람네가(bohemian)으로보여진다는 번엽지나 事實우리네말이 古典에잇서서 어떠케 쓰여잇다는것을 우리는 個個의作品에沈潛함으로써 그때의 國語語彙를把握하여야된다

사탕이 달다해도 꿀에는 못비할것
조미하는대도제일이거니와 외과약으로도 신통해

꿀이 설탕보담 영양분이 만흔것은 벌써부터 아는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꿀은 원시대로부터 얼마나 귀중하게써워젓는지모릅니다. 그리고 먹는데만 쓰는것이아니라 옛글엔 귀중한약으로 궁중에 진상도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흔해저서 보통 먹기도하고 심지어화장품로까지 씁니다。꿀의성분을분석해보면

수분	二〇·六五%
포도당	三四·九七%
파당	三六·三四%
감서당	一·六六%
단백질	〇·一七%
회분	〇·〇九%

이상과가튼데 이밧게도꼿의향기가잇고 또는 소화효소(消化酵素)의 지아스타ー제 임베르타제가 드러잇습니다.

효 용

심장이 약한사람은 늘이 꿀을 장복하면 효과가잇습니다. 이것은 꿀가운데잇는 포도당(葡萄糖)이나 파당(果糖)이 심장에 에네르기ー를 공급하는까닭입니다.

밤낫도록 잇다가 자면 자고잇는동안에 심장의영양이 부족해서 작용이 나쁘게되므로 꿀을 자기전 한수까락쯤더운물에타서 마시고자면 조흡니다.

취장(膵臟)이 나쁜사람은 꿀가운데 풍부한 포도당이 현저한 효과이잇습니다。또는 외파적으로는 상처에바르면 고름이들지안습니다. 적 소독력이 잇는까닭입니다。불에데인데조코 피부에 바르면 윤택이납니다。

먹는법

보통 떡에도찍어먹고 음식에도너코 밀수도 타먹고 여러가지로 씁니다만 지금에 팡이나 가스테라에다 꿀올너흐면 언제까지나 팡이구더지지안코 말신해가지고잇습니다。그리고 아주노릇스름하게 빗갈도곱게됩니다 서양문헌에보면 팡에다꿀올너코 만드니까 십이년간이나 말신말신하게 보존햇다는 기록이잇습니다。요리하는데 너흐면 물론 설탕올너흔것보다는 상品이됩니다.

치울때 상은음물을 더운물에타서 마시면 맛도잇고추위도 덜합니다. 그리고 피로로 회복됩니다。꿀은 설탕에 비해서 대단히 소화되기쉽고 아이들에게 먹여도 해가 되지안습니다.

이것은 꿀의성분이 벌이 한번소화한 당분이기때문에 창자에서 직접흡수합니다. 어와반대로 보통설탕은 한번소화해서 포도당과파당으로 만들러가지고 흡수하는 까닭에 꿀파설탕은 매우다릅니다. 이처럼꿀은 유익한것이니 겨동에 만히둡구해 잡수십시요.

겨울에살안트는 "기름화장법"
=집에서도간단히됩니다=

겨울이되면 살결이 거칠어지거나 분이잘피지안코 빵파코가 뭉씨붉게되는 분들은 참적정입니다.

이런분이 아니라도 살결을곱고 보드럽게하는것은 누구나다 원하는바이니 겨울엔 이러케살결을 다루워보십시요. 반드시피부가 고와지실겝니다. 이것은소위『기름미안술』이라고 이름을 부칠수잇도록 기름으로 살결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먼저 콜ー드크림으로 얼굴의 화장파 더러운것을 말끔이 씨서낸다음 다시조금 더바르고간단히 맛사ー지를 합니다.

그런다음 보드러운 수건으로 크림을 말끔히 닥거낸다음 순전한 오리부유나 춘유(椿油)를 바르고 깨끗한 손수건이나 손수건만큼한 가ー제를 손이데지안흘정도의 뜨거운물에 당굽니다. 그다음 이것을 짜가지고 얼굴에 덥는데 밥픗하게 눌거나 어쨋든 얼굴을 바로하게가저야 떠러지지 안흘게아닙니까.

그러케 더퍼가지고는 눈가장이 코잇는데 입근처를 얼굴에 오목오목한데는 손으로 가만가만 눌러둡니다.

이러케 세번만 이수건을 갈어더프면 조흡니다。이것이 뭇나거던 상성(酸性)이적은 화장수를바르면 피부가 아주깨끗하고 고와집니다.

그런데 어미안술에쓰는 기름은 향료가들지안흔 순수한 기름이라야하고 화장수도 반드시 자극성이업는 약용화장수라야합니다.

新刊紹介

▲佛敎 十一月號 發行所 京城府壽松町四四 佛敎社 振替京城五四八二番 定價廿錢
▲아이생활 十二月號 크리스마쓰號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三丁目八九 아이생활社 振替京城一五五一番 定價十錢送料一錢
▲農業時代 十二月號 發行所 京城府光化門通一九八 農業時代社 振替京城八九三〇番 定價三十錢 送料一錢
▲新朝鮮 十二月號 發行所 京城府外東大門一二七八 新朝鮮社 振替京城一六五九四番 定價二十錢
▲靑年 第七號 發行所 京城府鐘路二丁目九 靑年雜誌社 振替京城一〇三六番 定價十錢
▲朝鮮商工獎勵 十一月號 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三五 朝鮮商工獎勵館內 朝鮮商品調査研究會 定價十錢
▲朝鮮醫學會雜誌 第二十八卷第十號 發行所 京城帝國大學醫學部附屬醫院內 朝鮮醫學會 振替京城二〇八六番 定價五十錢

長篇小說 愚氓
朴泰遠 作　洪祐伯 畫　【102】

學秀와健永 (二)

아버지는 학수가 대청에 오르기전까지 보료우에 누어 신문을 읽고 잇섯든싶다. 그가 방으로 드러가 공손히 예하자 아버지는 황망하게, 또 반가운게 자리우에 몸을 고처 안즈며,

『그래, 그간 몸 성히 지냇섯느냐?』

자에 기픈 눈이, 애훔는 아들의 몸위를 두루 더듬기에바뻐다.

『네, 그사이 퍽 못됫구나… 네, 어디, 몸이 불편한곳이나 업는냐?』

『네ー。』

『식사는 어떠허니? 잘 먹느냐?』

『네ー。』

『경득이 말을 드르면, 요사이도 뚝 집에 드러안저 책만 읽는다구? 바젠 그래 잘안나가느냐?』

『네ー。별로……』

『그래서야 쓰느냐? 네 보레 나다니기를 실키지 안는성미지만, 그래도 더러 박강공기를 쏘여야만 하지, 가득이나 허약한 아이가 늘 드러안저 공부만 해서야 쓰겟느냐?』

『……』

『참, 지어보낸 약은 성실히먹엇니?』

『네ー。』

『하여튼 그약이라두 성실히먹어라。』

전영호는, 고개 숙이고 안저는 아들의 모양을 언제까지나 바라보다가, 밧은 호잣말 가티

『네, 퍽 보고시펏다。』

한마디를 중얼거리고 두어번 눈을 꿈벅거렷다.

사실 그는 그사이 아들학수의 얼굴에 주려왓다。오늘그를 이러케 집으로 불릇것도 그까닭에 틀림업섯다。그러나 그것말고 또한가지 꼭 학수에게 물어 알고시픈것이 잇섯던것이다。

그것은 다른것이 아니다。올여름에 모처에서 정보를 어더가지고와서 구경득이는 철원읍에 이번에 서부면으로 신작로가 날뜻싶다는 말을 하엿다。그것이 만약 사실이라하면 문제임것이 그들은 일찌기 이번신작로가 날뜻싶다는 근처숲속에다 교도 한명을 기도울려 파무더 버린일이잇는 까닭이다. 만약 길을닥는 인부의 삽끄테 주이업는 해골이 튀여나오며 남의 의심은 길고 자기들의 범죄사실은 도바게도 웬사리 세상에 드러날지도 모를일이 아니겟느냐?

그래 그는 구경득이 외에 두명 간부를 그리로보내어 마을사람 모르게 다른곳으로 옴겨다 뭇게하엿던것이다 그때 공교로운 일이나 잇섯던것은 아들 학수다 한 학숙에잇는 차문답이라나 하는 학생과함께 금강산까지 도보여행을 가던길에 철원읍에서 하로밤을 묵엇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바루 한날인듯 시픈것이다.

더구나 나종에 알고보니 학수는 그날밤으로 신렴이 갑자기 노파서 사흘이나 그곳에서 누어 알코 열이 좀 나리자 차문답이만 혼자서 처음목적하엿던대로 금강산을 바라고 다시 떠나고 학수는 도루 기차로 도라와 버렷는데 원악이 몸이허약한 학수라 거려보지안턴길을 평생 처음으로 나서서 그래는 그만 노독이 난게라고 생각하여 어쩌것은 업지만 그가 철원읍에서 묵던 그날이 바루 구경득이 일행이 그곳에서 일하던 그날이다 대원님은

(혹시나?……)

하는생각에 도무지 마음이 편안할수가 업는것이엇다。

(혹시 이애가 어데케 구경득이라도 그곳에서 발견하고 어렴풋이나마 그들의 범죄를 눈치채고 그래놀란 낭어지에 갑자기 그래케 병이라두난것이나 아닐까?……)

전영호는 한참말이 업다가 마침내 무럿다。

『너 여름에 금강산엘갓섯다구?……』

『네ー。』

『무어 누구동행이 잇섯니?』

『네ー。가치잇는 학생하구……』

『그래 구경이 어떼니?』

전영호는 아들의 동정을 살피기에 바빳다。

『저는 중간에서 철원에서 병이나서 그냥도루 왓습니다。』

『아ー니 병이나다니?』

『거러보지못하던 거름을 거러 그랫나 봅니다。』

『오ー참 도보여행이라지? 워낙이 허약한 네가 그먼데를 도보여행이 말이되냐?……』

그러면서 백백교주는 그동안 지녀던 한가지 불안을덜엇다。아들의 자연스런 태도로우어 그는 철원에서 구경득이 일행을 만나지 안햇고 또그날밤부터 병으로 자리에 누엇든 단순히 노독으로 인한것에 틀림이업다고 자신이생긴까닭이다。

潤製 라이온치마

니에버레가생긴다음에 니가 얼마나고마운것이엇는가를 알게된새는 벌서 늣습니다。

蟲齒가생기지안토록 潤製 라이온치마를使用하십시오。

☆☆☆☆☆

潤製라이온치마는恒常適當한濕氣를가지고잇는關係上、가루가날러나지안움으로쓰기가조흘것은事實이오、또殺菌、淸掃力이强한우에優雅한香味와 니에닷는氣分은果然世界的代表品업니다。

그러고갑이쌈으로大端한好評을밧고잇습니다。

라이온치마本舖 株式會社 小林商店
東京·大阪·名古屋

19C—14

004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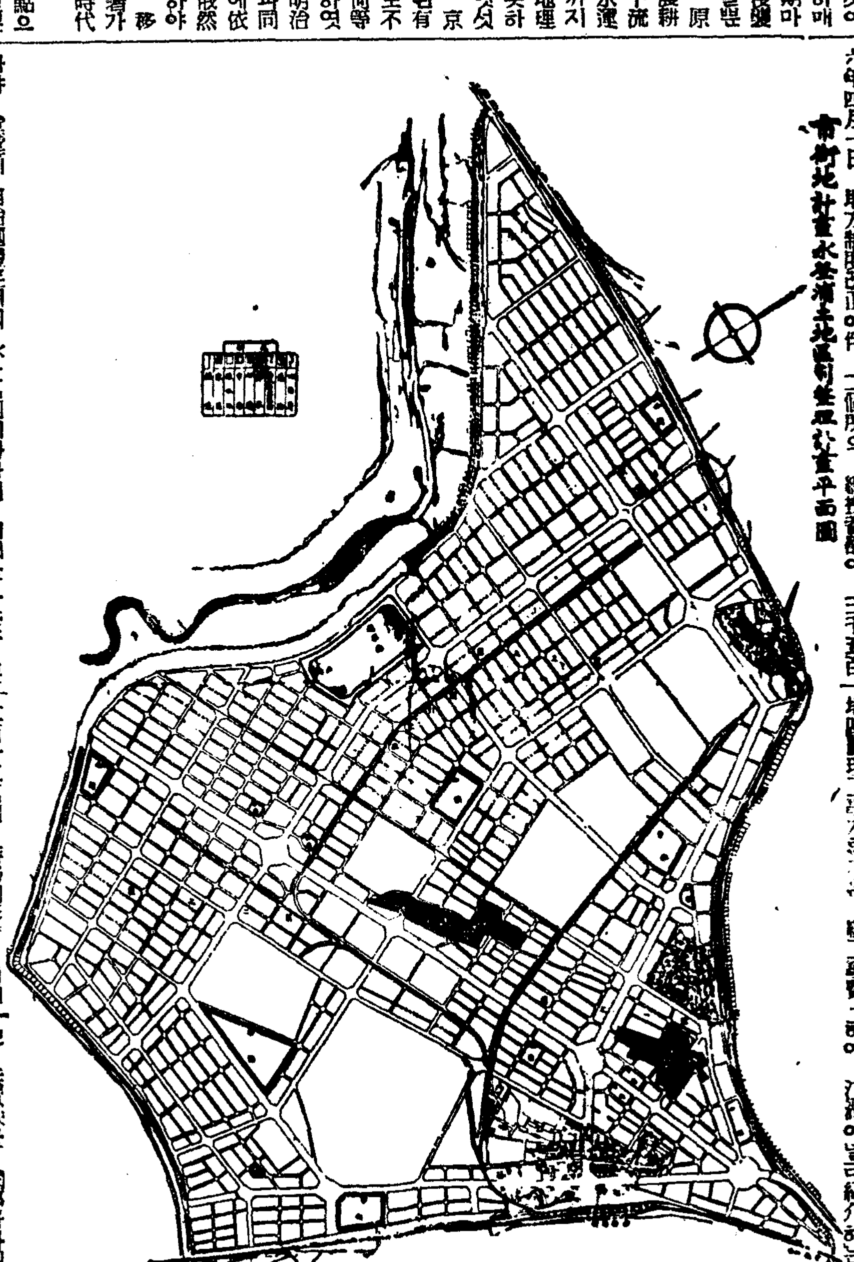
交通의要衝地帶로 大規模의工場櫛比
京仁一體具體化와對支貿易躍進따라
世界的을目標로雄飛待機

적게말하면 大京城의 工業地帶요 크게말하면 國策的生產都市로서 飛躍的發展을보이고잇는永登浦는 最近對支貿易의 急進的發展과 京仁一體論이 事實上具體化함에따라 그야말로 今日의 畵期的 最盛時代를 招來한것이다 三十餘年前往昔을 回顧하매 貧寂한 一寒村으로 每年雨期마다 定期的으로 大洪水의 浸襲을입어 荒廢의 一路가 잇슬뿐이엿섯고 地質上으로보드라도 原來가 沙濱地帶이기때문에 農耕에 不適하엿고따라서 漢江下流에 沿한 地帶라고는하나 水運漁業等의 利便을 享有할程度까지는 이르지 못하야 實로 地理的으로 아무 惠澤을입지 못하엿슬뿐아니라 往昔의 일이엿서든것만큼 半島의 首都라는 京城과 一葦의漢江으로써 隔隣된有利한 立場에 介在하엿슴에도不拘하고 商工方面에 對한 何等企業上 開拓하여 보지 못하엿던것을 距今三十八九年前 明治三十三年 京仁鐵道의 開通과同三十七年 京釜鐵道의 全通에依하야 一市街를 構成하야 屹然殷盛을 보게되자 漸次發展하야 明治四十三年에 始興郡廳이 移轉되엿고 爾後幾年 各官公署가 集中하게된것이 永登浦初創時代의 槪括的沿革이다

其後京仁 京釜線의 分岐點으로서交通의 要衝에 處하게될뿐아니라 到處에 地下水가 豐富하고 따라서 水質도 매우良好한 關係上 일찌기 京城의 工業地로서 重大使命을 가지게되엿스며 世人의 囑目하는바가되여서 朝鮮皮革、京城紡織、龍山工作、京城窯業等이 率先하야 大規模의 工場을 建設하고 其他中小商工業이 漸次集合함에따라 人口도 日加月增으로 激增하게되여 大正九年十月一日 面制施行當時 指定面으로되엿다가 昭和六年四月一日 地方制度改正에伴하야 當當히 自治團體로서의 永登浦邑으로 昇格되엿든것을 昭和十一年四月一日 行政區域變更에따러 京城府에編入되여 今日에 至한것이다

當面에사뽀로麥酒 기린麥酒兩大會社가 進出하고 鐘紡 東紡 日本紡 其他大小工場이 設置되出하야 廣漠한永登浦一帶에는比等大工場의 煙突이林立하야 年產二億에 가까운 工產品을 世界市場에 보내고 잇다 當初 京에 該當한 工場數만도 五十二個所의 總投資額이 三千五百萬圓이라하니 이것만으로도 足히永登浦의 重要性을窺知할수잇스며 將來의急變的 發展을豫測할수가잇다 大正十四年 未曾有의大洪水로 全滅狀態에 빠저던것을 總督府當局의 英斷으로 大堤防이되엿고 最近또다시 莫大한國庫金을 投하야 防水堤의補强工作을 實施中이며 目下總督施行中에잇는 都市計畫에依한土地區劃整理工事가完了된 總工事費一百十五萬圓 時局의影響으로 一時 第一工區、第二工區、第三工區에 區分하야 着着進行中이니 昭和十五年三月末日로써 이것이 完成되는날에는 文字그대로 永登浦의面目은 隔世의感을 느끼게만치 括目할바가잇슬것이다 이와가튼過程에서 劃期的歷史를 燦然히裝飾하여나가는 永登浦의 產業、經濟、人物其他各方面에亘하야 江湖에널리紹介하는것은決코 無意味한 閑事가아닐가하야 이에 紹介版을發行하게된것이다

(寫眞은지금工事中에잇는永登浦土地區劃平面圖)



三和酒의獨舞臺
三和釀造會社의强陣

朝鮮酒固有의醱價保有와 酒質向上에貢獻하고잇는 三和釀造株式會社는 昨年十二月創立된後本年一月一日부터開業한바 總資本金은二十萬圓이다 元來는各個人의釀造業으로되엿든것을 合倂하야 株式會社로組織하고 白寬永氏가取締役會長으로 李昌云氏가取締役社長으로 崔俊永氏가專務取締役으로 就任하야 業務의擴張과 國民保健을主로한 酒質改良에 誠心全力을 傾注한結果年產二千五萬圓의 大量生產을하게되여 商牛을無視하고暴利主義로 無謀한競爭에汲汲하고잇는 外來酒의壓迫가 完全히되엿다고하니 會社當業者의努力과苦心을 推察하기에足하다 現在三百餘의小賣人을抱擁하엿스며 蛇足之勢로繁昌하는業績은 드듸여 今年九月中에 約七萬圓의巨費로써 堂堂六百餘坪基地에다가 三百餘坪釀造場을建築하엿스니 永登浦의한가지 자랑거리라고하겟다 芳香佳酒라고하면 拒用쓰는單語갓기도하지마는 事實上은和酒의 芳香佳味의原因은 여기잇다 첫재는地理的으로惠澤을받은 永登浦의만큼 水質이良好한것과 둘재는原料를 極上品으로採取하야國民保健에 置重하는點과 셋재技術에잇서서 他의追從을 不許하는秘方이잇스니 果然三和酒의三和的特色인同時 朝鮮酒의代表的이라고하겟다 따라서 會社經營方針은 崔俊永專務의明敏한 頭腦와 老練한經驗으로써 小賣人本位의 理想的經營으로 共存共榮의實을 期하고잇다 崔專務는自來로 邑會議員 酒造組合理事 町總代等 數多의 公職에就하야 公共事業과地方發展上 적지안흔功績이잇섯스며 國防獻金其他社會事業에 寄附한것도 相當額에達하야 자못信望이 두터우며 今後氏의手腕에期待되는바가 多大한事業家이다 (寫眞은同釀造所全景과 崔俊永氏)

콜크工業의嚆矢
朝鮮의重要한特產物

近年我國工業의 새로운領域을 占하고 자못飛躍的發達을보이고 잇는것은 半島의「콜크」工業일 것이다 半島「콜크」工業은 그 創業이비록年淺하나 旭日昇天의 旣成의聲價를獲得하야 爾來幾多의辛酸을겪거그며 邁進 現在는 永登浦와京城府、釜山等地에 工場을두고朝鮮內各地에서原料(아버마껍皮)를採取하야 朝鮮內外의需

始興에는第一工場

回顧하면 昔日은 永登浦의 一 이엽지안라. 일즉이 始興郡의區域으로서 지금에는 密接한 關係를가지고잇는隣接地帶로서 永登浦의飛躍的發展을中外에紹介하는 朝鮮

公益事業에獻身
信望두터운 李斗用氏

氏는 일즉이仁川官立實業學校 土地調查局技術員養成所等을 卒業하고 土地調查局技手 郡屬技 京城興業信託株式會社 取締役兼支配人 京畿道會議員等을 歷任한後 現在에는 京工會議所議員 中央商工株式會社取締役 振安自動車株式會社社長等 許多의要職을가지고 活躍하고잇는만큼 그 政治的手腕과 두터운信望은 永登浦에잇서서 第一級의 人物인것을 누구나否認치못할것이다 일직이 道會議員時代 道民의福利增進을爲하야 奮鬪努力한것이라든지 當地普通學校後援會長 其他諸般施設等에 盡倅하엿음은氏가얼마나 社會公益事業에獻身的努力을애기지안는지 證明하고도남음이잇다 當年 四十八歲라고하면 아직도 年富力强한活動期임으로 將來를囑目하는 希望만흔사람中의一人이다 (寫眞은 李斗用氏)

衆望잇는活動家
公職生活十餘年
熱情的人物 金泰集氏

金泰集氏는 現在京城府會議員 京畿道會議員等 幾多의公職을가지고 社會公益을爲하야 日夜奮鬪하는名望家로 永登浦에잇서서는업지못할 큰存在이다 氏의手腕과 歷事業經驗等으로 볼것가트면 氏의存在는 비단永登浦뿐만아니라 어미全朝鮮的이다 더욱이그 豪放한性格과 熱情的인雄辯은有名한것으로 이로써짐할수업을만한 許多한公職을 明快하게處理하야 衆望을一身에모흐고 잇는 精力家이다 氏는明治四十二年早稻田大學經濟科를 마치고 統監府時代道信主事를 出發로 그간 數多의 官公職을 歷任한후 現在에 關係하고잇는 重要한 事業으로는 京城紡績株式會社監 京忠動乂株式會社取締役 中央酒造株式會社取締役 株式會社寶林鐵工所常務取締役等으로 寧日이업는活躍을 繼續하고잇다 (寫眞은金泰集氏)

將來囑望만흔
支那語講習會

南京城支那語講習會는 京畿道會議員金敬植氏가 今年五月京畿道產業視察團員으로 滿洲와北支方面을 널리遍歷하고돌아와서 時局의進展에따라 支那의經濟的地位가 漸次重要視됨에 直感한바잇서서 人的資源의開發上 貢獻하려는誠意로써 지난九月五日부터開講한것인데 現在二十餘名의 眞摯한活動家들이 熱心으로講習을 밧고잇는中이다 講師는多年間支那武昌文華大學에勤務하든尹鎭國先生外에 現滿洲國在京國民會長崔春田氏가 會長金敬植氏의 熱誠에 感服하야 奉仕的으로講習敎授를하고잇는터인데 第一回卒業期는明春三月이라고한다

熱情的新進鬪士
道會議員 金敬植氏

誇張도稱讚도아닌 眞實된批判으로 金敬植氏를評한다면 對人交際에 融和的이어서 熱情的이면서도 謙讓이잇는天質이라든지 校(現東星商業)를 맛친後 東京에건너가서 留學타가 未曾有의 關東大震災로 因하야 不得已歸省 今日獨學所習으로써 法制經濟를 修習精硏한바 當局에官公署數職等에 多年間實際經驗을體得하고 昨年五月 京畿道會議員選擧時에 各界의絕對支持를바더 最高點으로 當選當選된以來 가장强烈한 責任感과義務念으로써 社會大衆을爲하야 至誠奉公을하고잇는것은 世人이周知하는바여

永登浦洋服店
朴俊燮氏의幸運

現在永登浦에잇서 洋服店中가장오래인 歷史를가젓슴에도 不拘하고 가장新新한技術을 系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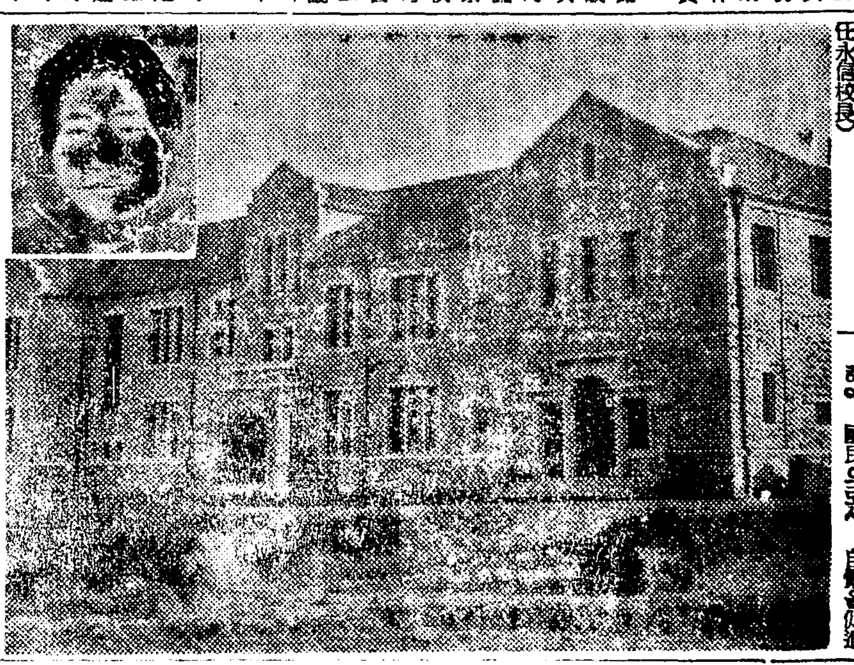
名하니 漢江畔에 ...으로形成, 三角、仁王이 다ー보이고 들건너南山을바라며 南으로冠岳을案山하엿스니 그位置景槪가 瀟陽뿐만아니라 수鮮一일듯십다 봄의冠山 여름의배노리 가을의丹楓구경 어느時節이나 이漢江莊에서 洗心하겟지만 더욱이暖房裝置의꾸밈이 가장理想的으로되엇스니 年中四철찻는손으로 滿堂한다 (寫眞은 漢江莊)

又新公立小學
唯一한初等機關

日前紹介版을發行하야 一言의賀로써 過去를回想하는同時 將來를祝福하는바이다 (寫眞은 [illegible])

永登浦放送合에 屹然이 소사잇는 二層煉瓦의 大建物이 곳江原地帶唯一의 朝鮮人初等敎育機關으로 千二百名의 兒童을 收容하고잇는 京城又新公立尋常小學校의 校舍이다 大正四年三月開校 同十年四月 修業年限六個年으로改正 다시 昭和十三年四月 敎育令改正에 依하야 校名을 現在와가티 곳지고 十七學級으로 增設하엿는바 그도도한 不足하야 現在增築工事中에 잇는것은 慶賀한바와 갓다 前校長嶺淸明先生은 大正五年 京城第一高普敎員養成所를나와 以來 二十二年間 朝鮮人初等敎育界를爲하야 盡力한 恩人으로 그溫厚篤實한人格은 學童들에게는勿論 學父兄과 一般個에도 師表로서 欽仰의的이되여잇는바 特히 永登浦는 特殊工業地帶로서 細民層의 子弟가만흐미로鑑하야 禮儀作法과 國語普及의 徹底를 校是로하야 日夜 그指導에 努力하고잇다한다 (寫眞은 宮崎校長)

高遠한理想의象徵
中央保育의雄姿
石造四層의文化殿堂



中央保育學校는 大正十一年一月十一日 私立中央幼稚園師範科라는 일홈으로 이社會에出現되어 爾來 昭和三年度까지 五回에亘하야 一百七名의 保姆를이社會에보내어 偉大한 奉公을하엿다한다 이러한 成績을거두든동안에는 敎會堂을 校舍로提供한 府內仁寺町에 잇는基督敎朝鮮監理會中央敎會여러분의 援助가컷스며 그中에도 柳瀅浩、朴熙裕、金昌浸諸氏의 功勞는 實로크다한다 當時大阪『랭버스』女學院에서 保育을 專攻하고歸鄕한 車士伯女史야말로 同校設立維持에잇서서 技術的產婆役이엇다한다 이러한 經路를지나 時代의 變遷을따라 名實相副을圖謀하야 金相敦、張斗鉉、申泰和、朴熙道諸有志의 도음으로校名을 中央保育學校로 改稱認可를바더가지고 이미十餘回 四百餘名의 卒業生을 내엿다한다그러나 이學校는 數年前에 京畿金剛이라는 果川冠岳山등에서고 漢江의 洋洋한 銀波를눈아래보는 山明水麗한 明水臺에一萬五千餘坪의 廣闊한基地에다가 十餘萬圓의 建築費를 던저서 石造四層本館을 세웟는데 그殿堂의 雄大하고도 美麗한것은近代文化의 尖端的極致를 說明하는同時朝鮮의情趣를 그윽히보이고잇다 그바게同校附屬幼稚園과 寄宿舍等은 方今設計建築中이다 現下代理校長으로잇는 車士伯女史以下十餘人의 職員이寢食을닛다십히 一百二十餘名學生을熱心으로敎養하고잇다 同校長任永信女史는 目下米國에滯在中이며서同校의發展을爲하야 모든것이 눈부신活動을하고잇는터로任校長의歸朝에따라 萬般準備가되어잇는同校를專門學校로 昇格시켜서 保育科以外에 다른專門科를두려타한다 그리고同校의基地와建物 其他設備만하여도 時價三十萬圓이될것이며 이것이모두 現校長 任永信女史의私財와同女史가米洲에서極力活動한結果라는데 그中에도大端한 米國에서도有數한財產家이오事業家인파이퍼女史의寄贈한것이라한다 이러한貴重한機關 또이러한巨額의 寄贈을 어찌任永信校長이나 副校長이오現代理校長인 車士伯女史의功게一任하야 受苦를외로히 他國에가서만하게할것인가 이땅의有志 이땅의돈잇는이들도 이學園의發展을爲하야前보다몇倍의愛護이잇서야할것이아닌가 가까운將來에모든計劃이 成就되기를비러마지아니한다 (寫眞은 同校와任永信校長)

京畿染織株式會社
職工에溫情主義
設備도最新式을자랑

京畿染織株式會社는 三井物產株式會社를 主體로한 東洋第一의 綿花會社인 東洋棉花株式會社의 經營하는 染織工場으로그 主要產品은 雙本綃、雙人綃、交織物 또는 여러가지 撚絲를主로諸般原料로써 平織綾紋織等의 高級織物을 生產하고잇다 同工場은 最新機力織機等貨員共히東洋第一의 最新式設備를 가지고 그採光 通風 暖房等各時期에適宜한 裝置는 敢히他會社의追從을 不許하는 豪華한裝置이다現在同社會에는 男女都合하야千數百名의 職工이잇는데 各各別個寄宿舍에 收容하야 住宅으로最新式蒸氣浴槽으로 浴場 洗面所 洗濯所等完備해잇고 나제는 職場으로서 밤에는寄宿舍로서 各各다른環境에잇서 職業에對한愛着과家庭的團欒을이루어 宛然히一大家族的生活을해나가고잇다 이제同社에서 從業員을 爲하야實施하고잇는福利施設의 一二三을들것가트면

(1) 非常時局下國策에順應하야 國民으로서 自覺을促進하는一方 또는將來를 爲하야 勤力貯金을奬勵하고잇는데 每月給料는 日用費用程度바게本人에게주지안코 殘額은 全部郵便貯金을 시켯다가 本人의希望 또는父兄의 要求에依하야만 送金하도록되여잇는것

(2) 會社內에 醫務室을設置하고 專屬看護婦를두어 疾病에 盡力하는同時 從業의保健衛生에對하야 萬全을 도모하고잇는것

(3) 作業中負傷에 對하야는 會社가治療費를 負擔하는것은勿論 그休業에 對하야는 全額或은半額等 區別에依하야 給料를支給하고잇는것

(4) 寄宿舍에는 夜學部를 設置하고 專任敎師를두어 그程度에依하야 初等程度또는高等小學程度等 各各敎育을하고잇는것

(5) 時時로講演會 精神講話等을開催하야 將來家庭婦人으로서 부그럽지안흔만한人物을養成하기에힘쓰는것

(6) 寄宿舍에는 娛樂室을두어 라디오、蓄音器가잇고 屋外에는 鞦韆其他運動具의 設備가잇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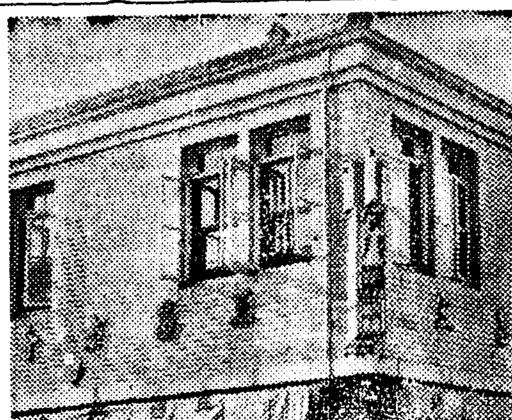
等 勞資融合하야 渾然한 一大家族을 形成하고잇는것은 同會社의特色으로 非常時下 朝鮮產業陣營의 一翼으로서 將來의飛躍을 期待하고잇다 (寫眞은 同會社全景)

荒蕪地가沃土로
千餘町步의農場
陽東殖產會社의偉業

金浦郡陽東面木洞里에 本社를둔 陽東殖產會社는 開墾 稻作 畜蠶 牧畜其他一般 農事經營을 目的하고 明治三十八年七月設立된 가장 歷史가오랜 純農事改良會社로서 朝鮮의 米產地로有名한金浦 始興 富川等三郡에亘하야 畓五百餘町步 垈田畓으로田畓地 桑園等千餘町步에 達하는 廣汎한耕地農場을 所有하야 五百餘名의 小作人을 擁하고農事改良 副業獎勵 小作人의生活安定等 大綱領下에 競作會의設置 各種品評會의 開催 一方獎勵風會를設하고 一人當一日金十錢式 獎勵金을 支給하야 朝鮮婦女의 屋外勞動을 獎勵하는等 簡易理髮店 共同浴場等의 衛生施設을하야 生活改善을 計圖하는同時 農民子弟의 敎育을爲하야 簡易學校를設置하고 當局의政策方針에順應하 農村振興運動을 獎勵하는 鮮農改良上傑然한 貢獻을하고잇다

同社는現社長인 前代議士 閔安藏等歡氏가 距今三十二年前 韓國時代에 某貴族으로부터 草生地 約八百町의 借地權을어더서 多額의經費를投하야 輪航施設을整備하고 堅實한方法으로農事를經營해내려오든동안의 事業的難關과 每年잇다시히水害 旱魃等 天災地變으로困해 存廢岐路에頭하기를數回 經營絕望에까지 直面하기도한 二二回 이러한波瀾가운데서 오직同社重役 大谷健介氏의 百折不屈한 畢死的効力과 그후李氏인 支配人長谷川修一氏의 社是에 則한 大家族主義下에 五百小作人指導에 熱中하고 있는 十餘名의 社員의努와 關係當局의 深甚한 同情에 依하야 陽東水利組合의 灌排水計劃完成을따라 事業成績을 引上드디어今日과가든 完全한基礎를쌓아올리엿스니 鳥獸縱橫의荒蕪地는 全鮮의有數한沃土로化하여 資本金百萬圓 堂堂한大會社로陣容을整備하고 現在는 全鮮各地에 農場을두엇스며 近者는 鑛產界에도 相當한領域을占하엿스며 더욱이同社에서는 戰時體制下에處한 銃後防空防火에 가장安全하고理想的인 消化器를製賣하는바 大阪잇는 日本消化器製作所의製作으로 그性能에잇서서 如何한猛火燒夷彈의 火災이라도사람의손을要하지안코 自動消火하며 婦人兒孩도使用容易한効力絕對永久不變 永久保存可能한『日本號』라는것이데 先般府內南大門前第一消防署자리에서 京畿道警察部及京城消防署側立會와官民有志多數參觀下에 初實驗에서 大端良好한成績을거두엇스니 至極防火의 完全을爲하야 매우반가운消息이다 어쨋든同社의發展은 大谷 長谷川兩氏의血汗의結晶이라하겟다 아므로더욱隆昌이 잇슬줄밋는다

三昌商會의雄飛
雜貨와食料品으로



新興都市永登浦의 心臟部一角을占領하고잇는 華麗한化粧煉瓦二層洋屋이 雜貨와食料品으로永登浦商界에 雄飛하고잇는 三昌商會다 主人梁錫烈氏는 當年三十五歲의 中堅商業家로 戰時經濟下에 商業報國을 目標로奮鬪하고잇는분이다 氏는十五歲에 嚴親을여희고 幼少時부터 商業에從事하야 忠南唐津에서 釀造業을經營하다가 昭和十年四月三昌商會를引繼하야 現在의大擴張을成功시킨 手腕家로 그進步的인商法과 絕對한信用은 斯界의定評이잇다 現在同商會는 五六人의男女店員을 驅使하야 踏至하는顧客을 應接하기에 寸暇가업는形便으로 今後大永登浦의 發展과함께 크게飛躍을 期待한다 (寫眞은同商會와梁錫烈氏)

祝 永登浦紹介版發行

昭和麒麟麥酒株式會社 永登浦工場

朝鮮麥酒株式會社 永登浦工場

鐘淵紡績株式會社 京城支店

東洋紡績株式會社 京城工場

朝鮮織物株式會社 安養工場

大中材木商會 李二奉 京城永登浦町三三四ノ八 電話永登浦三三二番

朴寅德

永登浦飲食店組合

京城府鷺梁津 百人의宴會席 貸別莊 食室 遊園地 龍鳳亭溫泉 電話龍山(一)八三二六七番

永登浦華僑親睦會

永登浦郵便所長 梶山周介

閔允植

永登浦金融組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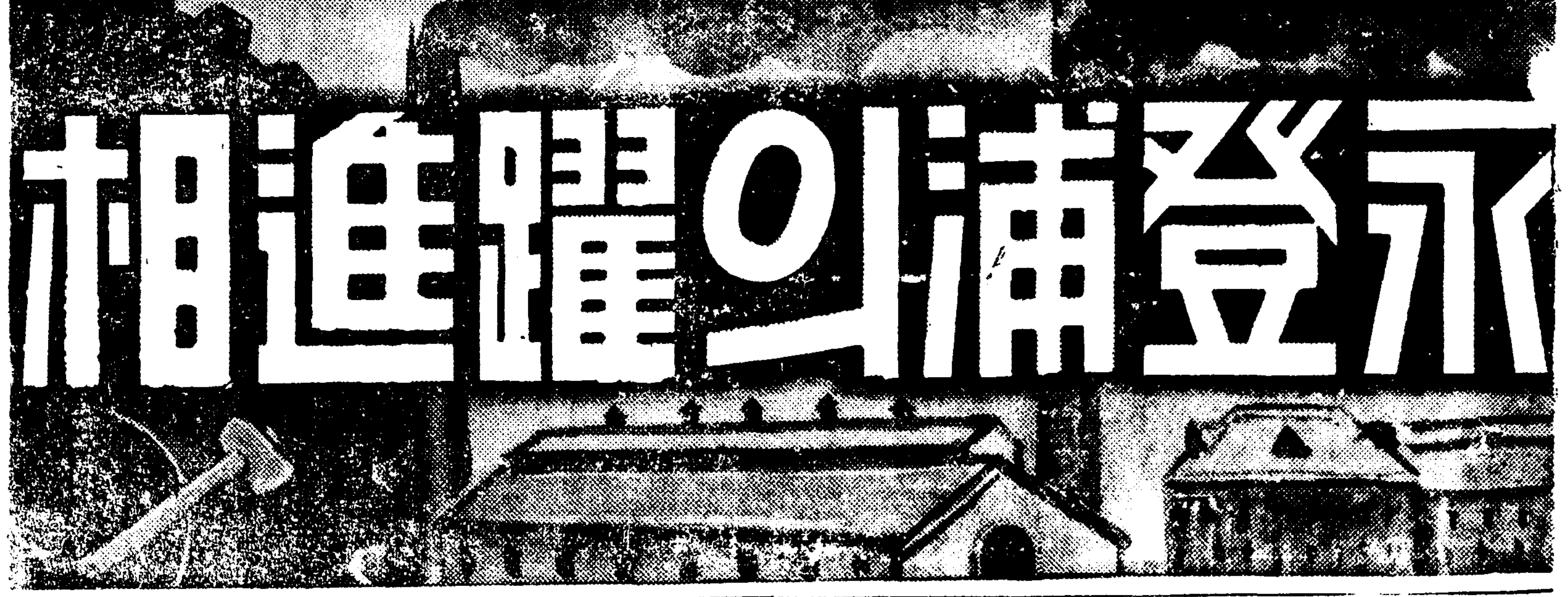
京城鷺梁津本洞町 三盛百貨店 電話龍山一三九二番

太田光

京城永登浦町 日新商店 電話永一三二番

京城永登浦町三四의七九 東洋미싱社 宋東植

永登浦의躍進相



總數로 年産約三百五十萬圓 實價格으로約百二十萬圓을 突破하니 全朝鮮生産額의約七割을占하엿는바 그中八割 即年産二百五十萬圓을朝鮮皮革會社가 提供하고잇다 同會社는昭和二年中 爲替工業의嚆矢로 江原道一帶에 ……
各工場에까지 供給하는外에 自的技術로서 各種紙袋、皮革을 製造移出하고잇다 同社社長 趙江鎭一氏는 皮革工業界에 多年 勤續해온지 十餘星霜 그의老練한 手腕과卓越한技能에는 斯界가 囑望하야 期待하는바이다

始興郡時代와는 隔世的으로發展

始興郡守 宮野寬氏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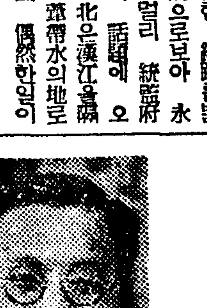
금번朝鮮日報永登浦支局에서 永登浦地方紹介版을 發行하게된것은 참으로意義잇고 適宜한일이라고생각한다

再昨年京城府로 編入되면서 特殊工業地帶로서 劃時期的 發展을하야 今日에 이르기까지에는 그간 相當히 複雜한 經路를밟어온것으로 地理的으로보아 永登浦의 發展性은 멀리 統監府時代부터 識者間의 話題에 오르고잇든것이엿다. 北은漢江을隔하야 積京城과 一葦帶水의地로 今日의 發展은決코 偶然한일이 아니라할것이다.

永登浦는 明治三十二年、京仁線開通에 依하야 그分岐點으로서 조고마한 市街地를 形成하야 尋常小學校가 設置되고 同四十三年 始興郡廳의 移轉과함께 各官公署가 모혀드럿서 겨우小都市의形態를 具備하게되엿다 그리고 水質의良好함과 京仁京釜兩線交通要點으로서 好條件의具備가 偶然一般企業家間에 工業地帶로屬目되여 于先朝鮮工業으로서 朝鮮皮革株式會社를爲始하야 龍山工作京城紡織等의進出을보게되고 大正九年十月定面 昭和六年地方制度改正에 依하야 自治團體로서 永登浦邑이된것이다 그간大正十四年未曾有의大洪水로해서 家屋其他施設等이全部流失된慘狀이잇서 그復興이자못 困難하게되엿스나大正十五年總工費百四十五萬圓으로總督府直營十個年繼續事業으로 邑復舊의護岸工事가着手되자他方安養川의改修工事도進涉되여 이곳에大永登浦의生命線이라고할만한 二大堤防의完成과함께 永登浦의安全을泰山盤石우에 노케되엿다 그후「기린」

實踐的信仰示範

天主敎宣敎師徐神父



氏는當年三十九歲의 神父로 一九二五年 京城天主敎本部宣敎師學校를卒業하고 爾來十三年間을 純全히 宣敎事業에 從事하야 溫厚謙讓하야 宗敎家로서의 雅量과 愛情을具有하면서도 恩惠와威嚴이 法度에잇서서 어데까지 誠實로써 示範하야 實踐的信仰을 培養하고 嚴格하고仁慈한 司祭이다 氏가 카도릭京城敎區 宣敎師로 永登浦主任司祭가 되기는 年前인데 아직永登浦에는 敎堂이업시 同敎會에서 自初敎育機關으로 使用하던것을 爲先當分間 敎堂으로 利用하고잇는바 不遠한將來에 敎堂을建築하고 現在의物을 敎育機關에使用할은 勿論 其外工場地帶인 永登浦敎徒를爲한 理想的工場까지 建設하야 靈肉兩方面의 糧食을베풀려하는 雄圖를가지고 實習勉勵하고잇다 現在一千七百九十名의敎徒는 勿論 社會一般에서도 氏에게 囑望하는바크다 (寫眞은 徐起昌氏)

永信材木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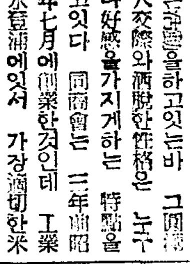
郭岐鳳氏의成功

永登浦町三三二의一永信材木店主 郭岐鳳氏는 江華一流實業家 郭城鉉氏의長子로 永登浦에잇서 가장年少한靑年商業家이다 昭和十年三月 齊成高普를마친후 바로永登浦로나와서 永信材木店을 經營하기始作하야 今日의成功을 이루엇는데 나히에 比較하야 溫厚愼重한對人交際와 그機敏한 商法은 가장將來를囑望받고잇는 有爲한人物이다 現在同材木店營業種目은 建築材木及附屬材料一般을위시하야 薪炭 海産物、石物等으로 이곳의特徵은 모든 商品을直接原産地에서 都賈로大量購入을하야 販賣하는만큼 다른商店에比較하야 單價가헐한것이다 同氏는 商店의業務外에町會、防護團에도關與해서 社會公共을위하야 奮鬪하는一方 府內漢江通八의一二에서 林泰俊氏와 『하야시』萬貨材料店을 共同으로 經營하는等 四面八臂의猛活動을하고잇다 (寫眞은 郭岐鳳氏)

得勢한米油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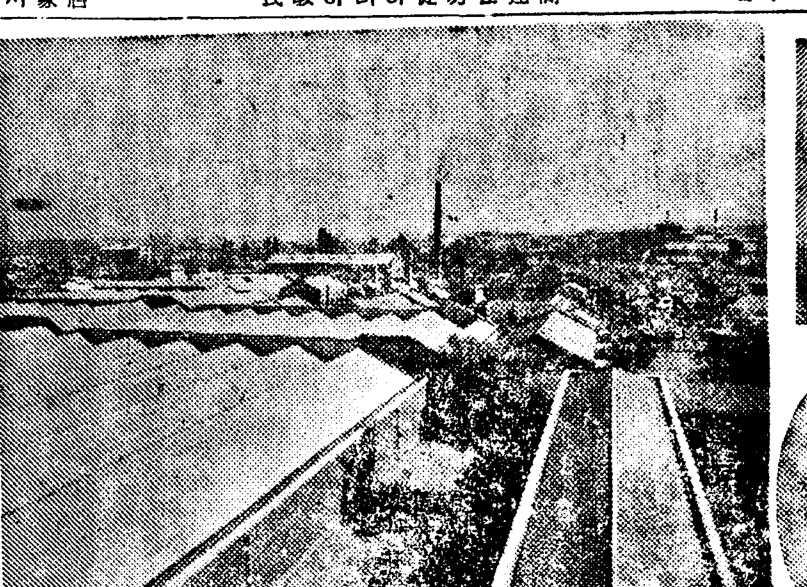
靑年實業家 金尙淳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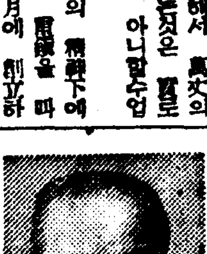
永登浦町五五〇 永登浦米油商會主 金尙淳氏는 當年二十歲의 年富力强한靑年商業家로 크게將來가囑目되는 人物中의한사람이다 氏는現在 永登浦防護團、町會、商業會等 幾多의榮職을가지고 同業者의重鎭으로 그圓滿한性格과 對人交際와洒脫한性格은 누구에게나好感을가지게하는 特點을가지고잇다 同商會는 二年前昭和十年七月에創業한것인데 工業都市永登浦에잇서서 가장適切한米油商業으로 同時에永登浦의發展과함께 今日의繁榮을招來한것이나 또한 아직도永登浦의完成과함께 빗나는明日을約束바든幸運兒이다 現在 同商會營業種目은 石油、揮發油、重油、機械油、植物油及 自動車다이야等各種으로 永登浦에잇서서는 唯一한商店이다 (寫眞은 金尙淳氏와米油商會)



滿洲、北支에도進出

京城紡織의飛躍的發展





京紡의 儼然한存在가 永登浦에 잇다고 하는것은비단永登浦의 자랑일뿐아니라 朝鮮사람의 자랑인것이다 最近世界經濟市場에잇서 飛躍的進展을하고잇는 우리나라의 對外貿易中그二○「퍼-센트」를 占領하고잇는것은 綿布輸出이다 이國策的大企業에잇서 우리朝鮮사람으로 직唯一한 京紡을通해서 萬丈의 氣焰을 吐하고잇다는것은 實로 意味깁흔 일이라고 아니할수업다.

同社는 自作自給의 精神下에 金秊洙氏가 斯界의 重鎭을 따 合하야 大正八年十月에 創立하여 當時資本金一百萬圓에 二十五萬圓拂込으로써 工場設備에着手하려하얏스나 때마침 世界大戰直後로 財界反動期에 當面하야 幾多의波瀾曲折을 經由하고야 第一回株金拂込을 徵收하야 工場建築과 또한織機百臺의 設備로써 大正十二年四月中에처음으로 製品을 生産하게되엿다 當時 우리朝鮮사람으로서 斯界의 經驗과 技術에 잇서 아무도經驗이 업서 ……을 增設하야도 오히려供給不足을 늣기게되야 이에飛躍的으로 去年中에 資本金四百萬圓을 增資하야 五百萬圓으로하고 紡機二萬五千六百錘와 織機 一百二十四臺를 增設하야 名實共히 國內有數한 大紡織工場의基礎를 세우게되엿다 現在同工場內의 職工만도 男四百五十名 女一千二百五十名 合計一千七百餘名이라는 엄청난살림으로 特히會社側에서는 職工의保健 敎養等諸般施設에잇서 優良한 製品을 市場에 보내므로써 目的하고 事業을 遂行키위한 職工養成等에 全力을 傾注하야 技術과 ……을 竝行하고잇다 이에對한 同社側의 苦心과 努力은 얼마나 莫大하엿는지 알수잇슬것이다

同工場의 製品으로는 綿布에 저 有名한 「太極星」을爲始하야 「不老草」 「山蔘」 「三神山」 「天桃」 細布로는 「鳳凰」 「雙鶴」 「海駝」 等이잇는데 그年産數量이 四萬三千梱 이것을金額으로換算하면 一千一百萬圓이라는 宏壯한 數字를보히고잇스며 主要販路는 朝鮮은勿論 滿洲 關東地方으로부터 멀리北支方面까지나가고잇다

同社의 重役陣을살펴보면 取締役社長에 金秊洙氏를 비롯하야 取締役에 崔斗善 朴興植 金在洙 玄俊鎬 崔昌學 李康賢 監査役에 高光駿 閔奎植氏等 斯界第一流人物들의 豪華版이며 다시 支配人에 金容完 郭基鉉 支配人代理兼營業主任에 李相卨 等一騎當千의 强力陣이다 더욱이永登浦工場長金鍾善氏는 大正九年四月京城高工紡織科出身의 技術者로 多年間釜山朝鮮紡織會社에잇다가 昭和十一年二月에同工場長으로 來任한 朝鮮人으로는 紡織界에 唯一한權威者인바 그우에 庶務主任 金德培 織布主任 金顯勳氏等의 適宜한補佐를바더將來크게飛躍을 企待하고잇는 人物이다.

現在同社에서는 京釜線始興驛前에工場敷地로서 十餘萬坪을 미리買收하야 第二工場建設을 計劃中이며 다시時局推移에따라 滿洲北支方面에서도 活躍할意向이 잇는모양이니 同社의飛躍的進展은 斯界注視의 焦點이 되여잇다 (寫眞은 永登浦工場全景과 金秊洙、金鍾善兩氏)

剛直하고도 誠實되고 潔白한性格이 一般의信望을 聽集中하는 原動力이라고하겟다 氏는明治三十七年 一流鐵業家故金鎭務氏의 四子로태여나서 十五歲時에 不幸히先父를여이고 南大門商業學校를 마치엇다 일직이 開山金融組合監事에 被任되엿든일이잇스며 現在에는 永登浦北部町會總代를 비롯하야 十六七種의 重要公職을가지고 寢食을니저버리고 活躍하는 新進靑年鬪士이다 (寫眞은金歡權氏)

柳新成商店繁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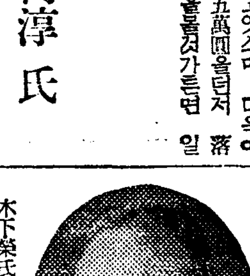
永登浦驛前에新築中

永登浦商界에잇서서 柳新成商店은 한갓 …… 婦人兒童들까지도 모르는 사람이업슬만치有名하다 事實創業의歷史、商品의豐富 또親切叮嚀한『써-비쓰』를 볼것가트면 이商店이永登浦商界에서 群小同業者들을누르치고 千客萬來의繁昌을하는것도 無理가아닌것을알것이다.

同商店主人 柳新成氏는 當年三十一歲의 靑年商業家인데 그親切한應接과 機敏한商略으로『조흔作品을 ……』 目標下에 永登浦商界의제標을 로邁進하고잇다 今次永登浦方面의 臨時都市整理를機會로 總工費五萬圓을投하야 煉瓦二層의『빌딩』을 新築中인바 느저도今年末에는完成될豫定으로 이것이竣工되는날에는 永登浦의『銀座』이라고할만한 驛前廣場에 一大偉觀을이룰것이라한다(寫眞은 新築中의同商店)

明水臺의主人公

木下榮氏의功績多大



木下榮氏는 福岡縣柳河의出身으로 五十이넘은 命後加歲之期이다 事業家로서 異彩를띄내이는 氏가渡鮮二十有餘年間朝鮮社會에끼친功勞는 緊緊히記錄지안트라도 世人이認定하는바어니와 溫厚沈着한 資性과剛毅大膽한意氣의 男兒인 氏에게는 今日의大成이엿음은 決코偶然이아니나 勇斷果敢한 靑年學生時代만든지海外巡歷등 十餘年前부터 明水臺土地事業을 經營하야 黑石町一帶를 文化村으로 造成한것이라든지 恩賜學校를 비롯하야中央保育、商工獎勵等敎育機關과 官公私團體며 其他寺院神社佛閣에至하기까지 各方面에 寄附한 巨額의 土地와 金額은모두氏의 誠實의 表이오 氣魄의現이며現在京城金剛의傾斜진벼랑 노들江邊 버들어리인 石壁우에다 터를닥고 蒼落한松林 隱隱히울을삼아 漢江亭에 기둥을세워 이 …… 의誠忠을 …… 國家的이오 社會的至誠이다 아모리로 …… 氏의存在 는 國家的이오 社會的至誠이다 아모러로 …… 바라는바이다 (寫眞은 木下榮氏)

004220

東銀出張所도 支店昇格在邇

東一銀行永登浦出張所는開業한以來躍進永登浦와步調를가치하야 只今에는工都永登浦金融機關의王座를占하고잇다 地方發展과金融機關의有機的關係는 서로不可分의關係를가지고잇는것으로 今日永登浦가如此한發展을한것도 생각하면背後에잇는 同出張所의功績을默過할수업슬것이다

支配人丁學鎭氏는 今年一月二十二日에來任한분으로 그溫厚謙讓한氣風은各界의信望이두터워業務가日益隆昌하는一方이다 同出張所의 創業初인 昭和九年度에는 預金十二萬圓、貸出二十二萬圓에不過하더것이 現在에는 그것의 約四倍인 預金五十五萬圓、貸出八十萬圓이라는 놀라운 數字를보히고잇는바 이것은오로지 丁學鎭氏를 爲始하야 歷代支配人의 奮鬪努力한 結果일것이다

同出張所의支店昇格問題는 벌써부터物議를 지어오든터인데發展永登浦와함께 멀지안흔將來에 昇格될것으로 當地人士間에는하로밧비實現되기를期待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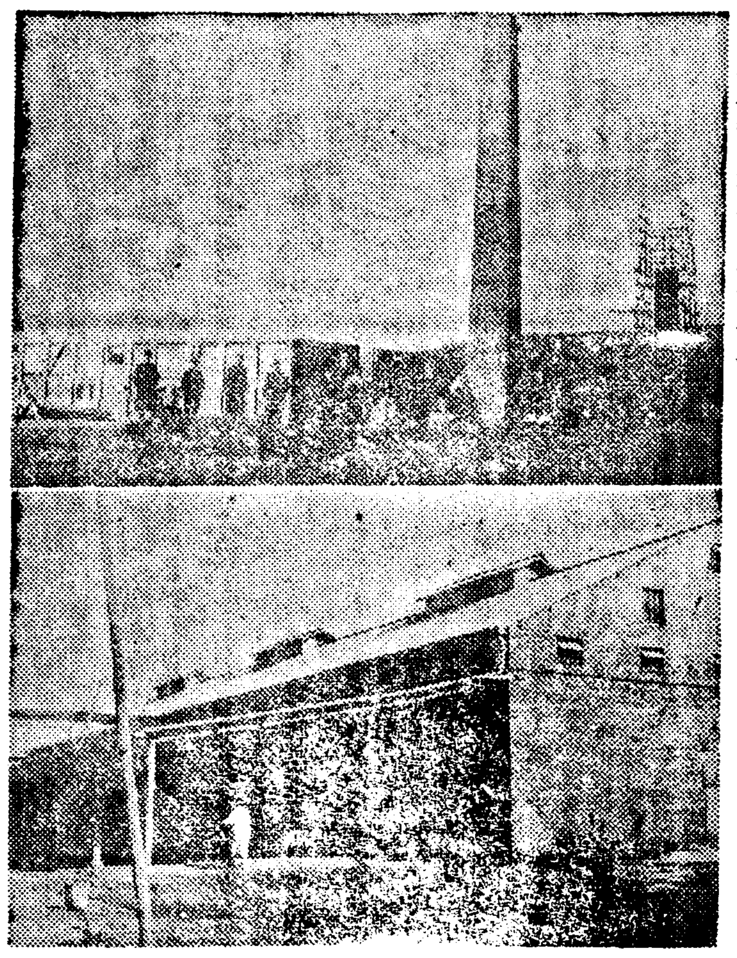
꿋으로는 永登浦洋服店을 처음 …… 지아니치못할곳이다 昭和二年二月創業이라고하니 지금으로부터 十一年前! 永登浦가京城으로 編入될것은 꿈에도생각지못하든 아득한 始興郡時代이다 主人朴俊燮氏는 赤手空拳으로開業하야 오직技術과 親切을唯一의資本으로 躍進永登浦와步調를가티하야 오날의 殷盛을이루엇바 그成功은 바다시時의利를어든幸運만은 아닐것이다 무엇보다도 그經營로는 현재永登浦에만도 群少同業者가 七八處나잇지만 唯獨永登浦洋服店만이 繁昌하는것을보아도 알것이다 지금은 永登浦中央地帶에宏壯한樓五二層店舖를 가지고 十二三名의從業員을 부리고잇는터인데 氏도한將來할 大工都永登浦와함께 希望이가득찬 前途를約束바든사람중의 하나일것이다 (寫眞은 朴俊燮氏)

七顚八起의奮鬪로 마침내事業界에大成

立志傳的人物李昌云氏의積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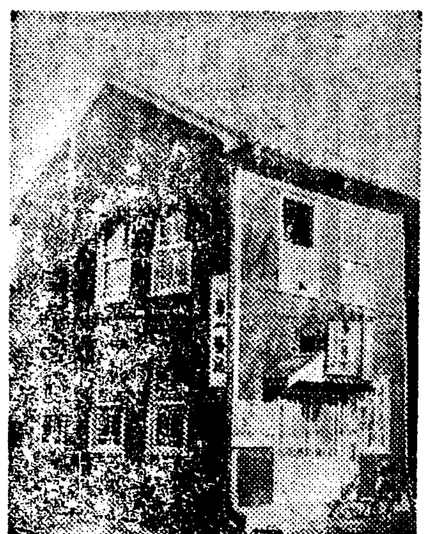
永登浦의 李昌云氏는 그隱麗事業 手腕으로보아 氏의存在는 이미 朝鮮的인일을 누구가否定하라 氏가赤手空拳이라기보다는裸一貫으로 今日의大成을이루엇現代朝鮮立志傳中人物의 特異한一頁을 裝飾하기까지의 奮鬪努力의 血史는이러하다

氏는今年四十七歲의 元氣旺盛한朝鮮實業家中의 一人으로 名聲이 近畿一帶에振動하는이지만 氏의 幼少한때의역경은 지금안저서 想像도못미칠만치 悲慘그것이엿다 겨우十四歲에 父親을여히氏는 片母侍下에 一家生計를가열피두어깨에지고 在學中이든 永登浦開明學堂을 中途退學한후 남의商店의 심부름을해주며 四年間모흔돈이 모다겨우六十圓그러나 이六十圓이 今日의大李昌云을맨드러내 惟一의資本이엿다 氏는이것을가지고 小規模이나마 永登浦에서 조고만雜貨商을獨立開業하얏다 가개는적으나 物件이차고 親切하고부지런한것이 近處에所聞이나서 營業은 漸漸繁昌하야갓다 그러나 大望을품은氏는 이까지小成에滿足하지안코 大正三年二月에 商店의規模를 大擴張하는 同時에 卽賣部와 精米業을 開始하야 地盤을 鞏固히하고 다시 釀造業에까지 손을 뻐처 文字그대로永登浦商界에 君臨하얏다 허나盛衰浮沈은 商界의 常事로 千客萬來의繁昌을하고잇든것도 南柯一夢! 大正九年世界大戰終熄期에財界를襲來한 前古未曾有의不景氣는 氏의事業에도 莫大한影響을던저 急轉直下로 一時는閉店의悲運에逢着하얏스나 堅忍不拔의 鐵石가튼意志를가진그는 漸次商店을小規模로繁昌하야 京城煉草元賣捌株式會社販賣所를兼營하는一方 大正十一年總督府行政整理에對한 永登浦監獄이廢止될때에 約二萬圓의資本을던저 土管工場을 新設한것이 一陽來復、漸次回復의曙光을 보혓스나 다시大正十四年七月에 漢江沿岸一帶를 襲來한 所謂乙丑年大洪水의災禍는 多年苦心의結晶인氏의全事業을 倏地에破壞하야 한때는 家族店員들과함께路頭에彷徨한 悲慘한至境에까지이르럿다 그러나 失敗할수록落膽은커녕 도리혀勇氣百倍하는 百折不屈의精神을가진氏는 오직復興의一念을 가삼속에품고 再擧의計劃을할때 東一銀行의前身인韓一銀行에서 氏의剛毅不屈의鐵石가튼意志를 信任하고金融上最善의便宜를供與하게되여 往年의精米部、釀造部、土管部를 復興擴張하고 煉瓦工場을 新設하야 그基礎를 泰山盤石우에 세운後 精米部는 實弟李昌仁氏로하여금 專擔하게하엿다 數年前에釀造部는株式會社로 分離하고 煉瓦工場은 工業組合令에依하야 京畿煉瓦同業組合에 加入하게되자 氏는또다시 時局에鑑하야 鐵材、木材像體의 代用品에對한 研究를하든中 最近에燒酎入土瓶製造에成功하야 年産六十萬個目標로二十餘萬圓의 巨資를投하야 着着그設備에萬全을 다하고잇는中인대 三井、三菱에서 그製品을 受領할것이 決定的事實이라한다 事業의將來는 實로隆昌할이 크다 지금이야말로 氏의壓倒한步調는斯界注視의焦點으로 朝鮮實業界에잇서 斷然히자랑할지 안을것이다 또한 氏는 國防、敎育、其他社會事業에잇서서도 自發的으로 지금까지에 그總額이 數萬圓에達하는바 如此한氏의 一面이 永登浦에서는 엇지못할 第一級의人物인것을 如實히證明하고잇다 (寫眞上은 李昌云氏 下는 李昌仁氏)



上은 燒酎土甁工場 下는 精米工場

醫療界의重鎭들



第一醫院

院長申弼浩博士

第一醫院長 申弼浩博士는 永登浦方面에잇서 가장權威잇는存在이다。 세상에서도熟知하는바와가티 氏는『세부란스』醫學專門學校 敎授를 歷任한이로 昭和十年七月 九州帝大醫學部敎授會에提出한『姙娠腎臟機轉及乳兒期의 基礎的研究』란는 主論文外에 大項에 分類된副論文이 外有數한 貴文을위 聖人을바더가지고 쪼日이업시 淸淨仁術에 浩瀚하고 잇는바 將來大永登浦의發展과함께 同醫院의 前途는 益益 隆昌할것이다 醫療界의 至寶인同醫院長 李化永氏는 그老練한技術과 圓滿한社交로 患者와 一般의 人望을集中하고 잇는데 申、李兩氏의名『콤비』야말로今日同醫院의 繁榮을招來한 原因이될것이다 現在同醫院은 京紡醫院 …… (寫眞은 同醫院外景)

永登浦醫院

院長 洪承喆氏

朝鮮人醫師로서 醫術과人望兩方面에잇서 일반의信任이가장두터운永登浦醫院長 洪承喆氏는 昭和七年五月八日永登浦에서朝鮮人으로서 最初의開業을한 醫療界의先進이다 氏는治療에誠意를 다하야 患者를對하는 態度가 親切叮嚀하야 一般의信望이 두터운同時에近來遠近各地로부터 懇至하는患者가 연일 病院門前에 連絡不絶하는現狀이다 氏는今年二十八歲의 靑年紳士로 昭和六年三月京城『세부란스』醫專을마친후 同校研究室에서 小兒科內科一般에 對하야 硏究를거듭하고 當地에서 開業한터인바 그후昭和十一年十一月에 現在永登浦町四三二番地에다 建坪七十五坪의 新築擴張한 二層洋屋을 新築擴張한터이며 內部裝置 入院室等 諸設備에잇서 嶄然頭角을나타내고잇다 (寫眞은洪承喆氏)

京仁醫院

院長閔載敬氏

京仁醫院長 閔載敬氏는 大正九年에 京城醫專을卒業한뒤 바로全州道立醫院에서 醫務를보다가 다시東京에가서 日本醫科大學을 昭和二年에마친뒤 公醫로서活躍하얏다 作年四月에 永登浦町四二六의八現在病院에서 開業한바 氏의特技한專攻科目은 內科小兒科花柳病科이다 氏는仁術의誠의施療와 그圓滿한人格으로 一般患家의 信望을集中하고 잇는데 特히 永登浦方面에는 職工患者들 하고잇는 細民層의患者가 大多數인데에 患者들에對하야 施療費를 最少限度로 하야 그들의 빈곤한 患者들을 爲하기에 盡力하고잇다。 現在氏는 同醫院을大擴張하고 永登浦便宜에 廣大한基地를買收하야 이곳에 이미整地工事를마친바 이곳에로운 病院이完成되는날에는 永登浦醫療界의 一大偉觀을이룰것이다(寫眞은洪承喆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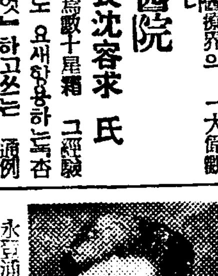
金剛醫院

院長沈容求氏

刀圭生活於茲數十星霜 그經驗으로만하드래도 요새항용하는『독 한말 유어뭇엇』하고쓰는 通例術語로가지고 氏를評할수는 업다 一般內外科에도精通하려니와특히 肛門病(치질)에는 斷然獨自的技術이잇서서 手術치안코라도 單純히 注射의施藥으로 아모痛症을 感케하지안코서 能히迅速完治함에는 果然驚異的定評을 거두고잇다 氏는今年五十歲라는 한창 經驗에잇슴으로 特疾患者의 福音의 엿되이를 應하고잇는 救主라 고하겟다 일직이 忠南論山 ……에서 開業하야 여러해 硏究하엿스며 現在永登浦에서 金剛醫院을 開業한지도 이 미여러해다 (寫眞은 沈容求氏)

中央齒科醫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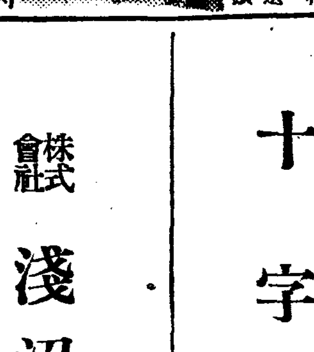
院長尹在旭氏



永登浦町三五一의一八 京城府 中央齒科醫院은 永登浦에잇서 第一代表的인 齒科醫院이다 그設備의 完全한점과 治療의的確한점에잇서서는 이미定評이잇지만 은 最近에는 同院長 尹在旭氏의活動으로 數千圓의經費를던저 專門醫와 醫療機具의 充實을圖行한結果 그最新最完의施設에잇서서는 아마全鮮第一이될것이라 한다 院長尹在旭氏는 이미齒科界에從事한지 十五年이라는 百戰練磨의老練한技術者로 口腔一般外에 特히技工科 光線科等에 는 他의追從을不許하는 手腕을 가진분이다 氏는永登浦에와서開業한지 四年만에 벌써確乎한王座를占領하고잇지만 事實氏의前途는 이제부터일것이다 大永登浦의 成長과함께 企待되는人物中에 한분이다 (寫眞은 尹在旭氏)

清一堂漢藥房

主人 金亨坤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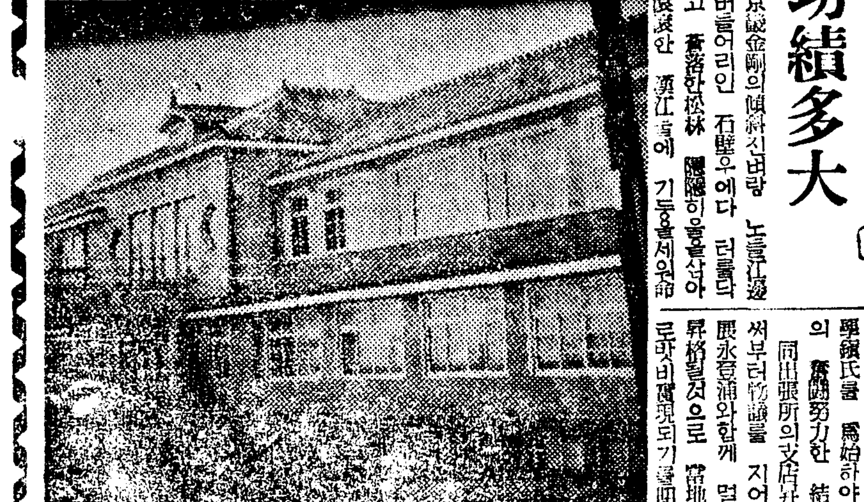


皇漢藥에對한科學的認識은 이제새삼스러히 이곳에서說明할必要도 업슬만치 이미城大醫學部가튼곳에서도 率先하야 硏究에着手하고잇는等 그傳統과效力으로써醫療界에君臨하고잇다。 永登浦町四四八 淸一堂漢藥房은 永登浦에잇서 漢方醫療의權威로 그精選된藥材와 的確한施療는 斷然頭角을나타내고잇는바 이는오로지同藥房主 金亨坤氏의豐富한度外視한 仁術濟衆의大乘的良心이今日의繁昌을招來한것으로 八年前開業當初에는 微微하던一藥房이 現在에는 藥劑師 從業員等七人을두고 每日밀리는 患者를 應接하기에 寸暇가업는形便이다。 (寫眞은 金亨坤氏)

食道園支店 漢江莊

四時의景槪絶勝

食道園!! 朝鮮料理業界의元祖食道園하면 京鄕間에너무도有名한 存在이다 그別莊이 鷺梁津에잇다면 不要再言하더래도 江湖諸位의認識을 기다릴것이다 接客、設備、料理도 勿論이러니와



鷺梁津本洞町 輕便料理 顧客本位 第一樓 主 李 愚 燮

料理 貸室 法德溫泉 電話(永)三三二番

京城木土 合資會社 京城府都染町一四四 電話光化門③二四五五

株式會社 柳町染工場 電話(永)三〇五番 私書函(永)一五番

朝鮮皮革 株式會社

龍山工作 株式會社

京城恩露公立尋常小學校 西村竹市

永登浦카페ー組合

기린빠아호ー르 電話(永)二六五番

霞月 電話(永)四六番

永登浦會舘 電話(永)二二四番

아까쓰끼 電話(永)一六二番

十字路

株式會社 淺沼組京城出張所 京城府永登浦町 電話(永登浦二三七 龍山一六二四) 本社 大阪市天王寺區生玉町九〇 出張所 名古屋市中區島西町三丁目二六

韓昌鎬

李章夏

永登浦町五〇二 朴聖勳商店

大東商店 盧台鎭

永登浦町五二四 各種印刷 文化印刷所

京城鷺梁津 趙仁祿商店 電(龍)一四八五

永登浦公設市場 販賣人組合

牛肉豚肉 新興屋

和洋雜貨 東星商店

和洋菓子製造 泰山堂製菓所

各種荒物 荒物陶器店

野菜委託販賣 海國商會 電(永)二六九

食料品 三起屋 電(永)二二七

野菜委託販賣 同信商會 電(永)二六〇

野菜委託販賣 石山商會

丸榮商會 電(永)二六九(取次)

米穀委託販賣 泰昌商會 電(永)三

酒類醬油販賣 協同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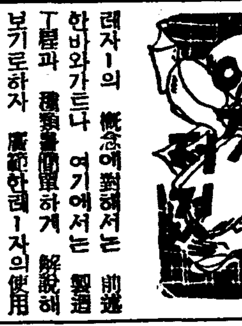
海産物委託販賣 永光商會

米穀委託販賣 南山商會 電(永)貳貳一

野菜委託販賣 開豊商會

化粧箱文房具等 各分野로 用途擴大

皮革代用 레자ー ②



레자ー의 槪念에對해서는 前號에 말한바와가트나 여기에서는 製造工程과 種類를簡單하게 解說해보기로하자 廣範한레ー자의使用原料를 種類에依하야 分類하여보면 如左하다

一、레자ー크로ー스、레자ー페이퍼ー
二、오일크로ー스
三、라버ー크로ー스
四、북크로ー스

以上의모두가 業品原料는 國產品으로서 充分히充當할수잇는것인데 生地는 綿製品의 使用制限으로因하야 純綿布로부터 混紡品으로 스ᆢ파等으로 漸次移行치안흘수업게되엿다 먼저 레자ー크로ー스로부터 順次로 解說하기로하자

一、레자ー크로ー스

布地또는 종이(紙)表面에다가 硝化纖維를 主體로하는 塗料를 塗布하고 그우에다가 多種多樣의 紋型을 押捺하야 製造한것인데 生地의 種類에依하야 다음과가튼 五種類로 區分되여잇다

(가) 粗布레자ー＝이것은 生地에 粗布(미ー징)을 使用한것으로서 엷은것은 大部分이 이것으로되여잇다 其用途는 極히廣範하야 其一例를드러보면 書籍의 케ー스 化粧箱 名刺入 文房具 玩具 벨트 瓜草 鼻緖 履物等으로 이루枚擧할수업다。

(나) 金巾레자ー＝粗布레자ー와함께 엷은代表的인것이다 一般으로 엷기때문에 書籍用 製本用 文房具類 化粧箱等에 使用되여잇다

(다) 大幅特殊生地레자ー＝이것은特別히 製織된 帆布等의 厚地를 使用하야 一般으로 自動車의 座席 椅子 汽車 電車等의 耐久性을 要하는 시ー트로서 使用된다

(라) 小幅特殊生地레자ー＝履物레자ー와 薄物레자ー의 中間物인데 兩者의 長點을 取하고 短點을 補充한것으로서 其用途도 亦廣範하다 車輛의커ー텐 帽子 家具用으로서 使用된다

(마) 製本用레자ー크로ー스及종이(紙)레자ー＝이것은 製本用과 文房具用等에 使用되여잇다 特히 레자ー크로ー스는 從來의크로ー스의 缺點인 물에對한 弱點을 防備하고 耐水耐濕에 잇서서는 過大할만큼 優秀하야 革을 凌駕하게되엿다 또從來의 不可能이엿던 表面의 印刷도自由롭게 되엿스므로現在에는 "型紙" 노ー트表紙等에도 歡迎되여잇다

二、오일크로ー스

油性塗料 即 乾性油를 加熱하야 樹脂또는라이야ー顔料 미네랄스피릿等을 混合하야 擬革한것을 塗布하는것이다 오일크로ー스는 外國에서는 歷史도깁고 高級品을 生產하고잇스나 我國에서는 工業的으로 幼稚한것은 比較的 最近이라할수잇다 耐久性은 레자ー와同樣이나 光澤은 一般의 레자ー中에서 特히 優秀하고 色彩의點과 柔軟의妙味는 其特長으로 賞用되여잇다

三、라버ー크로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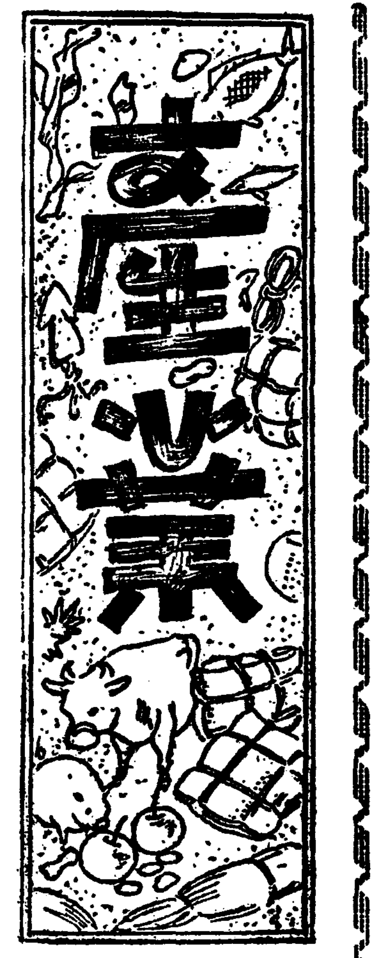
從來의製品은 고무糊를 主로하고 塡充劑及顔料의三者를 混和하고 이것을揮發油로서 溶解하는것인데 所謂 고무塗料를 生地에다가 塗布한것이여서 其需要는 相當이만타 現在에는表面에다가 여러가지 加工法이 進步되여잇섯든것이 地의 型押을하고 또 레자ー의 製品과가티 艶付까지하야 一見皮革에 漆色이어서 用途는 다시 新分野로擴大되고잇다 또고무塗料를 塗布한生地를 二枚의 붙는서 느러서 마춘 所謂袷고무製品이 製造되엿는데 現代人의 嗜好에 適合하야 自動車의幌을 初頭로 가방 登山用具 其他 廣範한 用途를 所有하고잇다

四、북크로ー스

이것은 書籍類를 主體로한것으로서 여기에 북크로ー스、트레ー싱크로ー스、빠ー퍼리이낭等이 잇고 노ー트帳簿의 表紙、大陽을 除外하는것等에 使用되여잇다

◇…◇

以上으로서 레자ー의 大略에 對하야 論한것인데 이것으로레자ー의 全部는 아니나 紙面關係上 이것으로 縮少한다 그러고 레자ー라고 稱하는것은 生地兩面에다가 레자ー를 加工한것따 레자ー의 裏面을 起毛하거나 或은 이起毛面에다가 고무와 木綿屑(카드)毛屑(울)기루쿠屑(기루구) 皮屑(皮粉)等의 混合한塗料를 塗布한 두터운레자ー도잇다 荷札用、看板用으로써 色塗料를塗布하야 카렌다ー에 貼付한 特異한 存在이다



生產、需要量調査하야 叺의需給을調整

價格은總督이指定 朝鮮產業協會가配給을擔當코

穀用叺、鹽用叺及 肥料用叺等 藥工品의 需給關係의 調整을하기爲하야 總督府에서는 지난二十九日 府令第二百三十七號로써 藥工品需給調整規則을 公布하야 來十日부터 이를施行하게 되엿는바 이法令實施와 함께各種叺의生產配給及 價格을 統制하기로되여 五日다음과가튼 統制計畫을 發表되엿다

各種叺의生產配給及價格統制計畫書

第一 生產統制

一、穀用叺
(一) 各道는 總督府에對하야 十月十日까지 道內의 翌米穀年度의 月別生產豫想數量、需要者別所要豫想數量及月別所要見込數量을申出할것
(二) 總督府는 每年十月末日까지 各道의申出에檢討를加하야 翌米穀年度의 各道別需要者別 所要豫想數量及 生產配定數量을決定하고 이를各道及朝鮮產業協會에通告함
(三) 各道는 前項의生產配定數量을 更히各郡에配定하는同時에 道의實情에從하야 原料藁의貯藏及配給、講習會、競技會의開催機囊의普及等의 事項에亘하야實行計畫을樹立함
(四) 生產實行計畫의 樹立은 穀用叺에準함

二、肥料用叺
(一) 各需要者는 總督府에對하야 十月十日까지 翌米穀年度의 品位別納入場所別月別需要數量을申出함
(二) 各道는 總督府에對하야 十月十日까지 翌米穀年度의月別生產見込數量을申出함
(三) 總督府는 每年十月末日까지 (一)(二)에基하야 翌米穀年度의 各道別品位別需要者別生產配當數量을決定하고 이를各道、朝鮮產業協會及各需要者에 通告함
(四) 生產實行計畫의 樹立은 穀用叺에準함

三、鹽用叺
(一) 專賣局은 總督府에對하야 十月十日까지 翌米穀年度의 納入場所別月別需要數量을 申出함
(二) 各道는 總督府에對하야 十月十日까지 翌米穀年度의月別生產豫想數量을 申出함
(三) 總督府는 每年十月末日까지 (一)(二)에基하야 翌米穀年度의 各道別生產配定數量을決定하고 이를各道、朝鮮協會及專賣局에 通告함
(四) 生產實行計畫은 穀用叺에準함

第二 配給統制

一、穀用叺
(一) 配給機關은 朝鮮產業協會及其會員으로함
(二) 總督府는 每年十月末日까지 各道間의 月別配給計畫을 樹立하야 關係道及朝鮮產業協會에 通告함
(三) 各道는 (二)에基하야道內의 各需要者別配給計畫을樹立함
(四) 各道의 配給機關은(三)의配給計畫에 基하야 各需要者와 納入契約을함
(五) 朝鮮產業協會는 總督府에서定한 各道間의 配給計畫에基하야 關係道配給機關相互의 取引斡旋을함

二、肥料用叺
(一) 配給機關은 朝鮮產業協會及其會員으로함
(二) 總督府는 每年十月末日까지 各道別需要者別納入場所別 月別納入計畫을 樹立하야 이를關係道、朝鮮產業協會及各需要者에通告함
(三) 朝鮮產業協會는 關係配給機關을 代表하야 各需要者와納入契約을함

三、鹽用叺
(一) 配給機關은 朝鮮產業協會及其會員으로함
(二) 總督府는 每年十月末日까지各道別納入場所別月別納入計畫을 樹立하야 이를關係道、朝鮮產業協會及專賣局에通告함
(三) 朝鮮產業協會는 關係配給機關을 代表하야 專賣局과 納入契約을함

第三 價格統制

一、穀用叺
(一) 各道配給機關의 當該道生產叺의 道內賣値及他道配給機關에對한賣値는 同一價格으로하고 朝鮮總督이 이를指定함
(二) 他道로부터 供給을受한叺의賣値는 道內同一價格으로하고 (一)의公定價格에道知事가定한 運賃諸掛等을 加算한 金額으로하야 道知事가 이를指定함
(三) 生產者로부터의 買値는 道內同一價格으로하고 (一)의 公定價格에서 道知事가定하는 運賃諸掛等을控除한 金額으로하야 道知事가 이를指定함
(四) 價格은 特別한 事情이업는限 年間을通하야 變更치안흠

二、肥料用叺及鹽用叺
(一) 總督府는 肥料用叺及鹽用叺의賣値를 決定하고이를關係道 朝鮮產業協會及 各需要者에通告함
(二) 生產者로부터의 買値其他에對하야는 穀用叺에 準함

第四 各種叺의 輸移出入斡旋은朝鮮產業協會에서 이를하기로함

第五 穀物協會員의 所要豫想數量의 申込及 配給은其所屬穀物協會를通하야이를하기로함

우리地方의名產자랑 ⑩

高山乾柿의 今昔譚 (七)

全北支社 一記者

한접에 最下 八十錢으로부터 最高 二圓六十錢까지 팔게되는 이高山柿에는 改良柿 樽柿 꼬쟁이감 生柿等 여러가지種類가 잇슬뿐아니라 傳來하여오는 名稱도 만히잇다고하다 即地理的으로 高山東方 東上面에서 生產한다는 生產地의位置를 表明하는것으로 高東柿、달과가티等 그럿고 光澤이잇다하여서月如、製造方法을 改良하여서 맨드러낸것으로 改良乾柿等 各各名稱을 區別하고잇스나 천부를 槪括하야 高山乾柿라는 名稱으로 널리세상에 알려지고잇다 朝鮮의 特產으로써 食料品市場에내여놀만한 이高山柿의將來는 品質이 優良한點으로보아서 比較的 低價일뿐아니라 다른감에比하야 甘味가 絹大하고 씨가하나도업는 特色이 잇는 關係로 더욱이 有名하고 現在에도 山과土地를 가지고잇는사람은 勿論 一般이 全力을 다하야 감나무를 繁殖하고 乾柿製造方法의改良에 總力量을 集中하고잇는 點으로보아 더욱 發展가 노파질것도 事實이다 그리고감의栽培는 다른果實栽培에 比하야 失敗가적고 山間이라할지라도 農富한收穫을 할수잇는형편이니 栽培보다도 乾柿製造에힘쓰는모양이다『감은 논과가티야만한다』는 이地方에 전하는 말을드러도 알수잇는대로 누게되거서 감리것이 단맛시더잇다고하니 가른감이라할지라도 製法如何에따라 美味에相當한差異가잇는모양이다 如何든 이곳은감으로서全生活이 左右되고 또한生活慣習이 이감과 不可分의 關係를가지고잇는데 일반的으로보아서다른농촌보다도 人心이厚하고 淳朴한기분이 자연이러나게되는것이니감이 수량으로보아서 만히나는所致이겟지만은 一面不知한 사람이라할지라도 감따먹는것을 揖留하는일이업고 오히려 지고가는감이라도 먹기를청하면 好意로對하는것이 一般의慣習이되고잇는편이니『감고장의인심』이라는것은 여기에서 나온말이다 要컨대 감이만히生產되고 또한 生活의全般을 涵하야 감과因緣이 업는것이업슬만한程度에잇는것으로미루어『高山 강아지 감꼬쟁이 물고나선뜻하다』는것도 結局은감이 만타는것을 比喩하는 말이다이와가티 이地方의 主產物인감을通하야 生活의 面貌를 살펴보면서 우리一行은 東上面에 오직하나잇는 祠濟里東生部落을 向하야 감나무을 헤치고 사람을 거려나려왓다

咸南棉作擴充

耕作面積百町步로擴張

【咸南支社發】咸南道에서는今年度試作第一年의 棉作의 結果가 매우良好하므로 明年度에는 이것을 三十町步를增加하야 百町步로擴張하야 大大的으로 試作할터이라고하는바 各郡의配定은 다음과갓다

咸州 三〇町步 北靑 五町步 安邊 五〇町步 文川 五町步 永興 五町步 其他 五町步

七月末現在의 桑田面積

農林局發表에依하면 昭和十三年七月末現在 桑田面積은 本面積一六、二〇七陌 豫想面積五二、三三三陌 合計七八、五四〇陌으로 前年에比하야 一、四〇八陌의增加이다 또山桑利用豫想面積은 三、一七一陌으로 前年보다二一二陌의減少다 이것을桑田面積의 仕入法別로보면 立通桑田이가장 만허三七、九四四陌으로 全體의 四割八分三厘에當하고 中刈及高刈桑田은 一〇、六五四陌으로 그다음이고 根刈桑田이 가장적어 一九、三九七陌이다

紡績原料로서 大麻를積極獎勵

◇…栽培技術도簡單

朝鮮產大麻는 纖維가너무粗雜하기때문에從來 紡績原料로서는 不適當하다하야 거이보도라지안허겨우特殊用途外에 大部分은 農家의自家用으로 消費되고잇섯는데 最近麻類의 輸入難에伴하야 朝鮮產大麻가 注目되여 硏究한結果 處理方法에 若干의改良을加하면 充分히紡績할수잇다는것이 證明되여 다시品種改良을行하면 優秀한 麻資源이될수잇는것이 判明되여 農林局에서는 다시 一段의 硏究를더한後 積極奬勵를行하게되엿다 大麻의 栽培面積은 現在約二萬町步로 苧麻等 熱帶性麻類의 栽培에 適當치안흔 寒冷地帶에 發育과 栽培技術은至極히 簡單하므로 西北朝鮮地方의 耐冷作物로서도相當히 有望視되여 잇다고한다

咸北各地에試作中인 亞麻栽培大成功

明年부터本格的栽培

【咸北支社發】鐘紡의進出에依하야咸北道에서는 本年처음으로亞麻의 試作을한結果 左記와가티 大端히好成績이엿스므로 來年度에는 規模를擴大하야 本格的栽培를하기爲하야 道農務課에서는 專門技術者를 新設키로 되엿다한便鐘紡에서도 朱乙에다가製絲工場을 新設하야 道의計畫에應키로되엿다 이제亞麻栽培의實績을보면 如左하다

亞麻栽培總戶數 五一七
反當收穫 平均三〇九斤
跡作 大根 白菜 蕎麥 人蔘 秋播苗蒿
收入 基本收入八圓에對하야二十圓의 增收가잇서平均反當十圓

寧邊產業組合 評議員會開催

【寧邊】寧邊產業組合에서는 오는十二月六日 午前열시부터 當組合事務所에서 第八回評議員會를 開催한다는데 附議要件은 다음과갓다한다

附議案
第一號案 當組合珠場出張所敷地內規制定의件
第二號案 業務用土地 建物取得의件
第三號案 組合員加入及 除名脫退의件

鎭南浦產組 十周年記念

【鎭南浦】鎭南浦產界에 莫大한 貢獻을 끼치고잇스며 지금도 來栗의 販路其他를擴張하여 各方面으로 活躍하고잇는 鎭南浦產業組合은 지난二十七日이 同組合創立十周年記念日이므로 盛大히擧行하려든바 時局關係로 中止하고 同日組合員數百名이 同組合樓上에모혀簡單한式을 마치엿다고하며 祝賀行事記念事業等은 來五月에開催되는 來栗大會때 盛大히 擧行키로되엿다고한다

府營屠殺場 十一月成績

京城府營屠殺場의 十一月中의 屠殺數는 牛千八百十一頭 價格二十二萬九百十五圓 豚千三百八十六頭 價格三萬二千三百八十七圓 馬十三頭 三百七十二圓 羊一頭의 十六圓으로 合計三千百十一頭에 二十六萬五千二百圓인바 前年同期보다 頭數三百七十三頭價格 一萬三千百四十一圓이모다 減少되엿다한다

府營水產市場 十一月業績

京城府營水產市場의 十一月中 入荷價格은 十二萬九千百二十三圓으로 賣上價格은 二十一萬五千三百二十圓인바 前年同期에比하야 入荷는四千七百四十五貫이 減少되엿고 價格은二千八十二圓이 增加되엿는데 이것은十貫當十五圓四十八錢으로 前年보다 三圓三十七錢이 昂騰된結果라한다

物價 (日大)

▲果實類

梨(早生赤)	三貫五	二・五〇	二・三〇
梨(明月)	同	三・〇〇	二・六〇
溫州蜜柑	石油箱入	五・五〇	三・八〇
紅玉(鎭南浦)	四貫	五・〇〇	四・〇〇
同(大邱)	三貫	三・七〇	二・五〇
바나나臺灣	十貫色付	八・〇〇	四・五〇
葡萄(간)內地		一・五〇	・八〇
同(마스캇)岡山		四・〇〇	七・〇〇
梨(二十世紀)內地		四・五〇	五・〇〇
國光(大邱)	三貫	四・〇〇	三・〇〇
同(鎭南浦)	四貫	五・〇〇	四・〇〇
메론	一貫	六・〇〇	三・五〇
柿(富有)	四貫	七・三〇	六・五〇

▲海產物

乾明太新(元山)	一駄	[illegible]	[illegible]
同(西湖津)	同	[illegible]	[illegible]
同(退潮)	同	[illegible]	[illegible]
同(前津)	同	[illegible]	[illegible]
北海道乾明太	一等	[illegible]	品絕
同 小明太	一等	[illegible]	品絕
同 猿面若目	百斤一等	[illegible]	品絕
乾大口(元山)	百斤	[illegible]	[illegible]
同(北海道)	百斤	[illegible]	[illegible]
鹽鹹魚	百斤	[illegible]	[illegible]
鹽蝦漬(새우젓)	一甕	[illegible]	品絕
生明太新入荷	壹級上品	[illegible]	[illegible]
生鰈	百尾	[illegible]	品切
鯖古同魚	百手上品	[illegible]	[illegible]
新入荷生刀魚	百尾大	[illegible]	[illegible]
(新入荷)新生大口	一箱	[illegible]	[illegible]
明太子新入荷	一桶五貫上品	[illegible]	[illegible]
明太子(咸南產)松印	一樽	[illegible]	[illegible]
同 竹印	一樽	[illegible]	[illegible]
同 梅印	一樽	[illegible]	[illegible]
生明太	同一駄	[illegible]	[illegible]
江原道新乾明太入荷	大一駄	[illegible]	[illegible]
中	小	[illegible]	[illegible]
메루치漬	一甕	[illegible]	[illegible]
鯖 靑魚	百級	[illegible]	[illegible]
生鰒魚(新入荷)	一個	[illegible]	[illegible]
生鯖魚(統營產)	大羽十貫	[illegible]	[illegible]
同	中羽 同	[illegible]	[illegible]
同	小羽 同	[illegible]	[illegible]

▲菜蔬

松茸	百匁	[illegible]	[illegible]
百菜	十貫	[illegible]	[illegible]
玉葱	十二貫入一個	[illegible]	[illegible]
白葱	一貫	[illegible]	[illegible]
土蓮	同	[illegible]	[illegible]
甘藷	同	[illegible]	[illegible]
馬鈴薯	同	[illegible]	[illegible]
玉菜	同	[illegible]	[illegible]
酢登石油箱		[illegible]	[illegible]
長大根	十個	[illegible]	[illegible]

(京城◯會社調査)

▲家畜飼料

粉末配合產卵鷄用	一二五斤	一號品	[illegible]
		二號品	[illegible]
同 離用			[illegible]
同 中離用			[illegible]
同 三種配分粉餌		普	[illegible]
成鷄用四種配合粒餌		上	[illegible]
同 二		特上	[illegible]
雛用二種配合粒餌			[illegible]
후스마	一〇〇斤		[illegible]
玉蜀黍	(丸)		[illegible]
同	(中割)		[illegible]
同	(粉末)		[illegible]
高粱	(丸)		[illegible]
同	(粉末)		[illegible]
玄米	五斗		[illegible]
小麥	〃		[illegible]
大麥	〃		[illegible]
無砂穗	七五斤		[illegible]

▲家畜類

鷄卵	一貫	[illegible]	[illegible]
雛鷄	同	[illegible]	[illegible]
生豚	同	[illegible]	[illegible]
生兎	百匁	[illegible]	[illegible]
鶉卵	百個	[illegible]	[illegible]
鶉	十羽	[illegible]	[illegible]
蜂蜜	一罐	[illegible]	[illegible]
四季鳥卵	百個	[illegible]	[illegible]
豚毛(原毛)	百斤	[illegible]	[illegible]
同(選毛)	一斤	[illegible]	[illegible]
雛	一羽	[illegible]	[illegible]
羽毛	一貫	[illegible]	[illegible]
雉	一羽	[illegible]	[illegible]
鴨	一羽	[illegible]	[illegible]

(朝鮮畜產協會調査)

體力과 食慾을增進하는

牛乳蛋白消化아미노酸製劑！

아미노酸이란 血液과筋肉은거이 蛋白質로되고잇습니다。그래서 우리는 이體蛋白을 間斷업시消費하야 健康과生命을 保持하고잇는것입니다마는、몸시活動할때와兒孩의發育時、或은病에걸린경우에는 一層그消耗가더해지므로 恒常多量의蛋白質(肉과卵의成分)을補充하지안흐면안됩니다。

어떤것인가 그러나 食物中의蛋白質은반드시 胃腸에서消化를바다서아미노酸으로 分解된뒤가아니면 吸收되지안흐므로 그대로는榮養으로서 所用이업습니다。

榮養作用과體 따라서 消化力이減退한病衰患者와虛弱者에는 肉類와卵보다도 蛋白質의消化體아미노酸을攝取하는것이 合理的인것입니다。特히아미노酸은 必須의榮養源일뿐아니라 人體細

細胞賦活作用 胞를賦活하야 新陳代謝를旺盛케하고 食慾을增進하는獨特한作用이잇고 또호르몬合成料로서도 重要한것입니다。

ポリタミン은 如上의見地에基하야 榮養價가豐富한牛乳蛋白을 胃腸酵素로人工的으로消化해서어든 아미노酸을主成分으로하고 兩히비타민B를配하야잇는故로…

一、身體가衰弱하야 胃腸이弱한경우에도、그대로 잘吸收되여서榮養을充實하고 體重을增加합니다。
一、食慾을增進하고 新陳代謝를促進하야 抵抗力을强케하고 身體를健全케합니다。
一、甘美味한液劑인故로 婦人과小兒도질겨서 服用합니다。

小瓶 一圓五五錢 中瓶 二圓五〇錢 大瓶 四圓五〇錢 各地藥店にあり
グアヤコール、ヨード アルゼン、キナ入各種 小瓶 一圓六〇錢 中瓶 二圓六〇錢 大瓶 四圓七〇錢

發賣元 大阪市道修町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關東代理店 東京市本町 株式會社 小西新兵衛商店

補血 强壯

ポリタミン
포 리 타 민

武田發賣

33(1)559

二年間試驗에成功 高地營農의轉換
長津、三水、甲山等五個郡에 明年부터實施計畫

【咸南支社發】함남도 농무과에서는 명년도예산편성을 압두고 고지대영농의 전면적개량장려비를 약오천원의 예산을 계상하고잇다 이것은 함남도의 제일주요한 자리를 점령하고잇는 고지대의 영농법을 근본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야 지난십이년도부터 풍산군풍산면사아리(豐山郡豐山面士雅里)에 고지대영농개량 종합지도(綜合指導)부락을 설치하고서 금년까지 이태동안 지도하야왓는데 그성적이 극히양호하므로 내년부터 이지도결과를 전면적으로 실행에옮겨서 고지대인장진(長津) 삼수(三水) 풍산(豐山) 갑산(甲山) 신흥(新興)의 다섯군에 적극적으로 장려할계획이라고한다 그리하야 이장려의 방법으로는 요로오개군에 산업기수 한명식을 배치할려는것이다 그리고 영농법개량의 근본적 방침은 러하다 첫재 나냉성(耐冷性)작물즉 조 피 아마등을 장려하는 동시 연맥 대소맥이라고하야도 비교적 내냉성이 ... 종을가려서 심을것과 다시 종래의 약탈농법(掠奪農業)을 전폐시키고 자급비료를만들어서 시비심경(深耕)을 장려시킬계획이다 이러는한편에 양잠(養蠶)과유축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야토비와 수입을늘리게할려하며 농용림지도 조성시켜서 연료의대책을 세울려이다 즉농림목(農林牧)의 종합적개량으로 근본적으로 바꾸어지게 하는데 계획으로그의의는 극히 중대성을띄고잇다고한다

證人訊問百餘名
岐陽農倉事件不日送局

【江西】농민의 복리를 위하야 창립된 평남선 기양역전(平南線岐陽驛前)농회창고지원을 중심으로하야 대사기사건이 발생하엿다함은 이미 보지를통하야 루보한바이거니와 사건이 중대하니만지 소관강서경찰서 사법계에서는 서장이하 사법계원일동이 주야불휴로 이개월여나 계속취조를 하엿스나 아직도 사건은 결말을 보지못한 모양이다 그런데사건이 발생한후 벼를 입고하엿든 농민 또는 상인들중에서 백여명을 소환하야 증인신문을하고잇는데 지난사일에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정문압에는 실로 장군가티 운집하고잇서서 증인소환신문에 따라 생각치안흔 사실도 삭삭히 드러나는모양이다 지금까지에드러난 피해액은 수만원에달하리라는모양이며 창고장대리로잇든모씨는 전연사건을 부인하는모양이나 입부들과 기타 증인신문에따라 기탁한 정조를 교묘히 절취 혹은 어떤 자와 상의를 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것은 명백한 사실이라한다 그리고 창고장 목촌(木村)씨는 고임인이되지 일년이넘엇스므로 임모(林某)만을추궁하게 되엿는데 년말판게도잇서서 사건의취조를빨리마치고 느저도 금월중순경에는 일건서류와가티 송국할모양이라한다

杜鵑花滿開
白馬驛元一嶺에

【白馬】진달래꼬지 철을몰으고피엿는지? 기후가 철을몰으고잘못된지? 치위반갈을들으고 호한 바람이 불어와 조곰자연진백설(白雪)도 다녹어버린이때 경의선백마역전상단동원일령(白馬驛前上端洞元一嶺) 양지쪽에잇는 철부지 진달래는 요사이 만발하엿다 한다

雙頭蛇出現!
구경군이날로殺到 安城地方에

【安城】저번 안성군안성읍에 장두사를 팔러온사람이잇서 이상한뱀이라하야 안성군안성읍내사는 손영순씨가사서 잘보관중인데 부근사람의 구경군이 매일 답지한다고한다 (寫眞은雙頭蛇)

無子로구박밧고 분김에自家放火

【春川】딸만나코아들못낫는다고 구박을바다못하야 원한을품고무손애착이잇서던지 의복류를불지여내고 북쪽차노흔 정인는축부가잇다 그우에 딸둘불따려서변석에까지 눕게하야 상해、절도 방화란중죄를범하고 방금유치장에서 취조를받고잇다 그는홍천군동면노천리(洪川郡東面魯川里) ...

盧先達氏의美擧

【唐津】연하초비상시국을당하야 황국신민으로서 더욱총후보국을 강조하는이때에 농촌진흥이필요함을느끼 당진군당진면 읍내리 노선달(盧先達)(二八)씨는 자기부락에 진흥회실이업서 유감으로 생각하야 오던나머지에 몃일전에 적기노씨가 오백여원이란 금액을 내노아 초가륙간을 경영하게 도 단독으로 건축하야다는데동민은 물론이요 일반에서도 씨의미거에대하야 칭송이 놉다고 한다

就職戰線에朗報
明春卒業할大邱各學校生 벌써各機關에豫約濟

【慶北支社發】구직난시대는 지내고 구인난(求人難)시대가온 은 금년에 졸업하는 대구부내각학교의 졸업생은 어떠한가 라진해본면─◀대구의전(醫專)은 벌써 ... 구할여가 ... 결정되엿다는바 그 ... ◀대구농림(大邱農林)─졸업생 ... 구십명중 상업학교에는 사오명이요 그외는 은행 금조 각사업관게관청과 만주국정부 임야국(林野局)으로부터 이십명의 대량 채용도잇서서 금구할여가 결정되엿다고한다

◀대구상업(大邱商業)은 졸업 ... 바이도 ... 시작하야 부의만 유한여명이불엇고 면비도 막대한비용이들은 곳으로로 평판되엿스나 남은곳은 나중사로되엿스나 ... 지청한것이금희불합치 열타고 ... 여서번째타한다

大邱葉煙草洋行
埃及에二十萬瓩輸出

【慶北支社發】지난소화오년경부터매년 멀리『아푸리카』『에집트』국으로부터대구지방전매국에다량의 연엽초(葉煙草)의 주문이잇는데 금년도에는 이십만키로야삼남반원의 주문이 잇서서 지난 십일월하순부터 그발송을 하는 중이라는바 이수출로은 달성군월배(達城郡月背)면에서 산출되는것이라고한다

三陟鐵道
明春二月開通

【三陟】연산백만톤의 채탄수송 파판동산업개발에 일대기원을 그릴 삼척철도(三陟鐵道)의부호지 연장사백이십삼키로 부설공사는 그사이 북평(北坪)、도경(桃京)、미로(未老)、상정(上正)、고토(古土)등의 칠개역을두고 시국적요구에서 일대촉진을가하야 오던중 지난입일로 종점인 도계(道溪)까지『레일』까는 공사를마치고 재료운반의기관차등이 통래한다는데 선로가에는 남공사로인한 가선이잇슬뿐더러 방금주문중에잇는 객차급 화차등의조립판게로 정식개통과 영업개시는 명춘이월에할모양이라한다

前川氏의美擧
社會에巨金寄附

【南市】용천군남시(龍川郡南市)에서 양조업(釀造業)을 경영하는 전천희삼랑(前川喜三郎)씨는 전번 장남희팔랑(喜八郎)군의출정을 자축하는의미로 지난삼일부터각 단체와학교에 좌기와여히거액을 기부하엿다는바 일반은씨의특지를칭송하야 마지안는다한다

五拾圓 在鄉軍人分會
五拾圓 愛國婦人會外上面分區
壹百圓 國防婦人會南市分會
壹百圓 旭小學校
五拾圓 南市小學校
五拾圓 南市消防組
五拾圓 永明學院、永明幼稚園
五拾圓 南市防共團

復緣에不應한다고 少婦를亂刺重傷

【平南支社發】나이어린소녀와노총각의짝맛지안는 결혼은 항상 비극을낫는다 ─ 평원군(平原郡) 송매(松梅)리라는 곳에사는 농부 우영학(禹永學)(二二)은 사년전평양부관후리(館后里)거하는 김순(金順)의장녀 복녀(福女)(一七)와결혼을하엿스나 복녀는 나이만흔 남편을 섬기기가 너머나 어려워금년사월에 본가로 도망해가 잇섯는데 남자는 어린안해를잇지 못하야 편지로복연을 애걸하엿스나 종시듯지안흠으로 지난 ...

貨物車에少兒轢傷

【盈德】경북영덕군읍내 이회회춘당(李花回春堂)약방을 경영하는 이모(李某)의 차녀 이용숙(李容淑)(五)은 지난 사일오전십시삼십분경 집압큰길가에서 놀고잇든중 당지 합동『트럭』회사 소유 경북제일천오백이십팔호 화물자동차 운전수이상욱(李相...

旭町에白晝大火
損害萬圓原因調查中

【元山】오일오후세시반경 부내 원산욱정(旭町)이정목 조곡상점(組谷商店)뒤에잇는 그상점창고에서돌연 불이 이러나서 때마침세차게부러오는 바람이 가세하여 맹렬히 타올러 흑연이충천하는광경을보이엿다 불은 그상점 석유창고와 미우회사 석유창고등연소성이 만흔 창고와조선운송회사를 위시하야 이상충건물이 출비하게 밀집한곳이므로 일시대단히 위험하엿스며번화가인판게상 대혼잡을 이루엇다 때마침 원산소방조와 방호단등의 기민한출동으로 요행동건물과 동창고에 싸여잇든그물(漁網)과유류(油類)등을 전소하고 동네시 이십분경 겨우진화하엿는데불난원인은 아직상세치안허 원산서에서 엄중조사중인바 손해는 약만원정도라한다

公設住宅을大擴張
四十萬圓으로百五十戶新築
釜山府에서基地物色

【慶南支社發】조선의 팝문도시 부산은 최근수년래로 상공업의 발전부여의 은성함과 더부러인구의 팽창이 현저해가는데 이에반하야 주택건축이 보조를갓치못하게된 관게로 발전의대부산은 지금 심각한주택난에 빠저 그주이가 우려하게되엿다함은 기보한바이거니와 부산부사회게에서도 이현상을 완화하려는생각으로 지금 부영주택의증축을 게획하는중이라한다 즉 부에서는 지난대정십삼년도에 십육만원의 기채로 중로정、대신정、초량정에 백십오호의 공설주택을 신축하야 일반에게 저렴한집세로 제공하고잇는데 이번에도 주택의부족을완화하고저 백오십호를 신축할게획을 세우고 지금 그기지를 물색하는중이라하며 기지가 해결되면 그에 소요될경비는 기채로、충당하려고 한다는데 일호평균삼천원으로 잡으면 적어도 사십여원에 달하며 기지는 공유지 불하를 어더 실시하려고 한다는바 일반은 그실현을기대하고잇다

明太漁業의繁榮策
魚族保護次漁船制限
咸南道에서今年부터斷行

【咸南支社發】소위저어(底魚)류로서 유동성이적은 함남의특산 명태어는 아직까지의 어획에만 치중한 어업방침으로 그어족의 격감을초래하고잇는 현상이므로 금후 도수산당국에서 단연이정책을 백팔십도로전환 어족보호의중요한견지에서 어선의척수제한을단행키로되얏다고한다 명태어의합성으로보면 이것은 대개 저어로 기피해중에잇서 유동성이극히적으며 함남도에서 잡는다는것은 산란기(産卵期)에 천해(淺海)로나오는것을 일제히어획하는것이다 그러므로 기트곳의 어름을 잡을수잇는 수조망(手繰網)저각망(底角網)이라던지 기선사망 저각망(底角網)가튼것이 함부로 잡게되면 필연적으로 이족의 감소를 보이게 될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러므로 금년부터는 함남도에서도 어족보호회 취지로서사십오척의 수조망은 금지구역을 업수시키는동시 기선저망가튼것도 삼백십일척의 출원에 칠십칠건의 허가 저각망가튼것은일천사백칠십칠건에대하야 사백오십일건의 허가를하야 어선의척수를 제한하는동시 난획에도엄중한 제한을 하기 시작하얏다 이러한 현상에 더욱이 타구역의 어업자들의 침범은 일층엄중이 감지하여야할 형편이며금후명태어의 어족보호라는데 원측으로 나아갈것을표명하고잇다

川水産課長談

유천(柳川)수산과장은 이문제에 대하야 아래와가티말한다 명태어가튼것은 어족이 전멸되기 가장 쉬운것이므로 이것에 뚝을부지안흐면 안될것은 당연한것이다 금년에도 출원에 비하야 허가가 너무지나는 비난까지 잇고 진정도 여러번 바덧스나 실로더원족을 어길수는 업다 금후 더욱이에주의하지안흐면 함경남도의 마지막보이오것도 예상할수잇다 타구역의개방이란 더욱 문제안되는것이다운운

朝石元山工場 뽀나스九十割

【元山】금년도결산의가회사판정행동의『뽀나스』도 차출그정점을보아가는바 지나일일 맹면저 조선석유회사 원산공장(朝石元山工場)의『뽀나스』뚜껑이열렷다 그런데 그비율은 구십할로일반『싸라리맨』의 흠선의적이아님 ...

照明彈

◇진남포에서는 겨갈용을올리겟다고 조하을결정하엿다고 ◇그래서 세민중에서는 동하기를엇부고 겨갑시올라간다고 야단법석 ◇그러나 경제경찰당국은 벌써 그눈치를알고 겨한포대에 이십오전이상을 밧지말라고명령 ◇그뿐이가 겨한포대에 팔전을 남겨먹는 소매상들도 조합을결성하엿다니 경제경찰의부단한감시가필요 (鎭南浦)

鳳山탈춤保存會
來十七日에發會式
沙里院에서十七八日에公開

【沙里院】본 ... 노에 의하야 세계의 알리어젓스며 어느 또한 그예술의가치를 ... 아

나라고전예술에비하여 손색이업는 우리향토민속예술의최고봉인『탈춤』이 봉산지방에서만가지고잇다는것은 지방의 자랑이요 한거름나가 조선의자랑이다하여 그동안 중앙에서는 본사와 및 조선민속학회등의 희생적지도와 봉산에잇서서는 봉산탈춤의공로자인 이동벽(李東碧)씨의 성의와 본보지국의특별한후원으로 다시업슬 우리의『탈춤』을 영구히보존할목적으로 보존회의 창립이 착착진행중에잇다함은기보한바이어니와 그간 동보존회조직은 예정보다도 훨씬빨리 완료를보아 오는십칠일 봉산군청회회의실에서 발회식을 거행하기로 되엿는데 개회후 사리원에서여러 조선민속 ... 게에 다시 이업을여사의 한토막을 장식하게되엿는데 특별히 이발회식에는 서울의 수씨가 지도와 연구차로 출석하게되엿스며 이기회를이용하여 탈춤의보존방법과그내용확신에대한 의견과기타 유감업는 협의를하려고하는테 방금(現在)게자들은 준비에분망중이라한다 (사진은 탈춤공연)

槐山道安道路擴張

【槐山】다년숙제중에잇는 괴산도안간 삼등도로는 폭이조비서 교통사고가 빈번하므로 주민들은 개수확장을 갈망중이든바 장괴산군수가 착임되면서 도당국과협의하야 개수확장 승인을어더 ... 한게각면에 지시하야 도로 ...

軍事相談所設置

【元山】장기총후의임면을 기하고자 군사원호상담소(軍事援護相談所)가 원산에 설치되엿다 오일오후한시로부터 부청회의실에조합여회의를열고 남배우(南百船)서전(西田)씨등 삼십여명으로 만반부서를결정하고 금후활동사업에대한것을 토의하엿다는바 그부명은 군사부조부(軍事扶助部)직업부(職業部)보건부(保健部)금융부(金融部)등 사부라고 한다

麟蹄、襄陽線工事 促進을上道陳情
回數만도十六回에亘해

【春川】지방발전이 결국은 교통발달에 수반되는것이므로 산팝인 강원도에서도 제일교통이 열리지못한 인제(麟蹄)군에서는 도로수축에 전력을다한다고 국의힘을 요망하고잇는데 인제양양선(麟蹄襄陽線)은 도에서도 살로도로를 만들라고 우금계획중에잇스나 예산관게로 아직착공치못하고 이도로공사를 위하야 인제군민은 이종형(李鐘衡) 기린면장(麒麟面長)양씨는 지난오일 강원도지사와 토목과장을 방문하고 진정한바잇섯다 기린면리(麒麟里)에서 읍내까지 칠십리간을 명년도에 착공하도록 하야달라는것으로 예산편성기를 ...

三浦土木課長談

설로교통이불편한 인제지방의 도로개척은 금번인축을얼고 벌써부터 게획은 수립하얏스나 예산관게로 우금 착수치 못하고 잇는데 양양선중 인제읍까지만 공비가 삼십만원이 필요케 되야잇다 그우에 예산관게를 고려하고 잇스나 총독부보조가 얼마나될튼지 아직모르겟스며 실현된다하야도 일이년간에는 어려울것 갓다

社告

今般本社에서 左記와如히支石分局을設置하얏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支石分局 分局長 金千命 總務 李根祚 記者 李命均 右新任

謹告

豊川支局 記者 張瑚沐 右新任 豊川支局白

北一分局 位置 漢?郡北一面馬山里 設置 昭和十三年十一月二十日 分局長 柳興烈 右新任 忠北支社白

金川販賣所 販賣所主任 李鐘仁 右新任 榮山浦支局白

新上支局 記者 韓成文 右解任 記者 池昌洋 集金員 沈鳳變 右新任 新上支局白

東豆川分局 總務 李光文 記者 洪在璽 右新任 東豆川分局白

榮山浦支局 電話開 榮山浦三七番 榮山浦支局白

龜浦支局 記者 金海柱 右新任 龜浦支局白

運餉支局 記者 康東善 右新任 記者 文得雲 右解任 運餉支局白

金堤支局 記者 孫奉彥 右新任 金堤支局白

濟南支局 顧問 金大裕 記者 梁達浩 右新任 濟南支局白

長湖院支局 記者 李相麟 右新任 長湖院支局白

西湖津支局 記者 姜鏞鳳 右新任 西湖津支局白

三湖支局 總務兼記者 朴漢壽 集金員 朴都壽 右新任 電話開通三湖一四番 三湖支局白

江西分局 顧問 韓吉錫 同 白光洙 分局長 尹昌達 總務 金相會 右新任 咸興江西分局白

唐津支局 支局長 全月峯 記者 李光烈 右新任

朝報案內

製粉、製油機讓渡 京城鍾路四丁目十字街角 天興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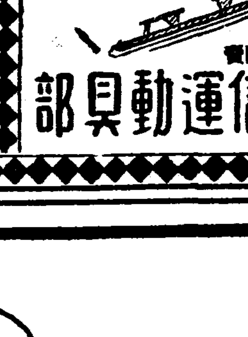
採用 高給社員敎養ある方須履歷書送れ面會日通知す 京城府黃金町一丁目 三井物產內 三井生命保險株式會社京城支部

裁縫 有利な條件で代理店特約店設置希望 ミシン手拾錢添付申込次第明細規定書送呈 ミシン總發賣 ミシン商會 平壤府鏡里

募集 男女外交員 ミシン販賣ニ經驗アル者希望 香ニ本人來談 鍾路四街 里(…)三瓶合名會社 電話光一六八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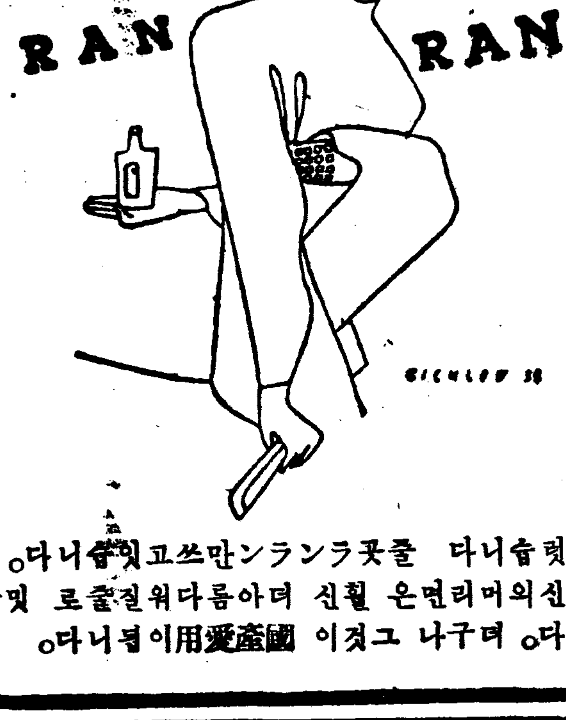
御宴會は時局柄
文友會館
安國町 以文堂三階 電光③二七〇一

男女選科生聽講生募集 詳細ハ…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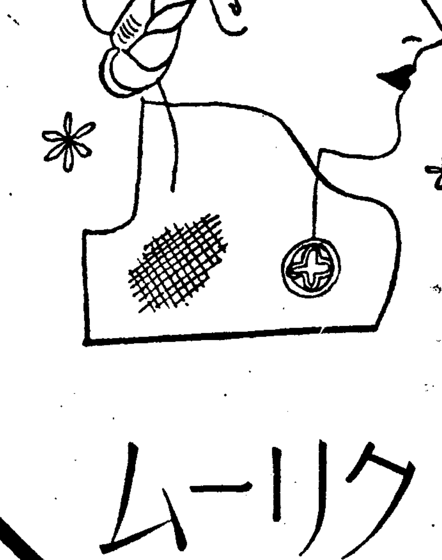
朝鮮總販賣
和信運動具部

女給至急募集
國際大都市一流카페ー
カフエー喜樂館
六十名限收入이만흔것組對策
前借金에對하여相談도應함
締切期日은本月九日까지오니 希望者는至急來談하시오
每日午前十一時부터 午後四時까지 本人來談
地方希望者는電話電報通信도可함
京城府貫鐵町二〇五番地 電話光二五三一
貫鐵旅館 七號室



ランラン 洋髮香油
그럿습니다 줄곳ランラン만쓰고잇습니다。
당신의머리는 언제든지 윤택하고 아름다운것은 그것이나던요 줄곳ランラン만쓰고잇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國產愛用이겟습니다。

準備잇스면憂慮업다!



겨울의살거침
은 直接皮膚를 寒氣에내노으므로 脂肪分의分泌를 減退하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完全히乳化된 滲透性의强하고優良한 콜드(油性)크림으로써外部로부터 榮養을補給하면 크림의被覆力으로 살거치러지는것을 防止합니다
야들야들한 살결을맨드는
資生堂コールドクリーム
콜드크림 ¥.55 ¥1.10

新マツダランプ
東京電氣株式會社 川崎市

長期建設經濟展望

財政은 空前의 膨脹

公債消化는 자못 順調

事變第二年의 回顧 ②

我國財政은 事變第二年인 十三年度豫算에잇서서 明確한戰時豫算을 編成하엿다。그것은 爲先 第一에豫算總額이 異常한膨脹을보인것 그리고 其中에 軍事費가 壓倒的比率을占하고 또其他의經費에잇서서도 今日 就役施設 生産力擴充 物資需給의調整 其他事變關係施設에 重點을둔것 利益配當稅 公債及社債利子稅 通行稅 入場稅 物品稅의新設 臨時利得稅의改正等을 包含하는 非常時的增稅를한것 公債發行額은 未曾有의 巨額에 達한것等에 戰時財政的特質을 明瞭하게示現하엿다。

即 十三年度一般會計豫算은 本豫算 二十八億六千七百萬圓에 追加豫算 六億四千六百萬圓을 加하야 合計三十五億一千四百萬圓이고 이에다가 臨時軍事費特別會計의 十三年度追加額 四十八億五千萬圓을 加算하면 八十三億六千四百萬圓으로되어 右에서 兩會計에 共으로 計算되어잇는 支那事變特別稅收入 三億一千八百萬圓을 除하여도 八十億圓을 突破하는 超彪大豫算이다。이것을 十二年度豫算에 잇서서의 一般會計 二十九億八千百萬圓 臨時軍事費 二十億二千一百萬圓 合計五十億一千萬圓에 比較하면 二十五億二千六百萬圓의 膨脹이고 十一年度豫算 二十三億一千百萬圓에 比하면 正히三倍半의 數字이다。그리고 一般會計에잇서서의 陸海軍兩省豫算이 十二億四千七百萬圓 이에 臨時軍事費 四十八億五千萬圓을 加하야 六十億九千七百萬圓으로 總額의 七割五分이 直接軍事費로 計上되엿다。

右의 財源으로서는 支那事變特別稅의 新設 增稅等을 行하엿스나 公債發行額은 一般會計에잇서서 十億六千四百萬圓 臨時軍事費特別會計에잇서서 四十四億四千九百萬圓 合計五十四億八千八百萬圓이다。이에 各特別會計의 公債를 加하면 總額五十六億二千八百萬圓 이라는 驚異的 數字를 보이고잇다 다시이것을 事變以來의 臨時軍事費에 對하야 보면 總計七十三億九千萬圓 其中六十八億八千七百萬圓은 公債財源에 調達되게되어잇다。

그러나 이러한 超彪大豫算은 아무런對策도업시 遂行되는것은아니다 爲先巨額의 出費에 對應한 物資의 供給을 確保하여야하는것으로 暫時의 國策的遂行을 目標로한 物資需給計畫確立의 必要가 생겻다。政府는 一方에잇서서 生産力擴充 四個年計畫을 樹立하는同時에 今年一月企畫院을 中心으로 先 十三年末까지의 物資需給計畫을作成하엿고 六月池田藏相의손으로 다시이計畫에 再檢討를加하야 所謂物資總動員計畫을 確立하엿다。그結果 一方에잇서서는 이改計物動計畫에 對應한 實行豫算을 編成하기로하고 主로重要物資를 除하는 不要不急으로 認定되는 事業은 節約을加하고 一般會計에서 一億三千二百萬圓 特別會計에서 一億一千八百萬圓 計二億五千二百萬圓의 節約을하엿다。그와同時에 漸次 重要物資에對한 徹底的 消費制限 物價에對한 强度的抑制方策 輸出의 積極的增進策等을 遂行하여왓든데 이러케하야 超彪大한 軍事豫算의 遂行은 我國經濟의 各部面에 戰時的變容의 徑備를 要請하게되엿든것이다。

物資需給의 確保가 許多한 困難을 經驗하고 各方面에深刻한 打擊을 惹起하고잇는데對하야 公債의消化는 今日까지 比較的順調로운 推移를 보이고잇다。公債政策으로서는 只今까지 强度的措置를 講究하지안헛다。金融機關、保險會社等에對하야 所謂行政的

生産力을加한것은勿論이나本的消化工作으로서는 今次國民에依存하고잇다。國民貯蓄獎勵運動의 實施는 四月十九日의閣議에서 決定하고 大藏省에貯蓄獎勵局을 設置하고서 國民精神總動員中央聯盟과 提携하야 全國的으로 展開한것으로써 貯蓄年額 八十億圓의目標에對하야 九月까지에 四十七億圓의 成果를내엿다고 稱하고잇다。

그리고今年에드러와서의 公債發行額은 十一月一日發行의 公債를加하야 支那事變公債가 二十六億五千萬圓、滿洲事件公債가 一億圓、鐵入補塡公債가 三億圓 合計三十億五千萬圓으로

결局 前記今年度 發行豫定額 五十六億二千八百萬圓에 對하야 二十二億一千七百五十萬圓의 未發行額을 남기고잇다。그중에 發行額分은 적어지고 主로 預金部에서 引受하는 方法인 內譯은

引受가 四億五千萬圓 日銀引受로 現在 日銀所持는 十二月一日引受의 二億五千萬圓을 加하야 約五億八千萬圓으로 보이므로 大體에잇서서 好成績을보이고 잇다할수잇겟다。

그리고 十四年度一般會計豫算 實際案은 二日의 豫算閣議에서 正式決定을 보앗는데 支那事變의 長期抗戰 長期建設의 新情勢에 對應하야 去益國防豫算의 擴充을 强化한것으로 事變의 背景에잇서서는 三十六億九千四百萬圓으로 其中支那事變特別稅收入金三億五千萬圓의 共通計算을 除外하면 實質三十三億四千四百萬圓으로 이것은 十三年度豫算에 比하면 一億四千八百萬圓 其間旣定의增加로되어잇는데 이것에對하야서는 三億一千萬圓에 對하야 二億一千萬圓이라는 巨額의 節約을加하고 陸海軍費도 出征에 基한 部隊費減少의 結果 十三年度에 比較하야 約一億圓을 減하고잇는 反面에 新規豫算十一億六千萬圓의 大部分은 從來計畫의 擴充 生産力擴充 民間航空防空施設、鐵道、港灣、道路、河川改修等의 支出에 集中되고 잇다。그리고明年度에 臨時軍事費의 追加豫算을 加하야야 할것이나 此等의 豫算에 對應하여야 할 公債發行額은 十三年度에比하야 今日에이르러 이것을 十二年度에比較하면 一億四千八百萬圓의 增額이나 其全額을 公債로 充當하게될것이므로 公債發行 巨額에 達하게될것이다。約九十億圓에 達하리라 하니까 國債總額은 그때 約三百億圓에 達하게될것이다。然이 此大豫算의 實行에 當하야는 今日의 物資計畫、公債政策、生產力擴充計畫에 一層의 加하게될것이다。

(계속)

生産力擴充一段落

計畫資本增勢鈍減

日銀調査에 依한 十一月分計畫資本調査槪表에 依하면 新設은 四億五千九百萬圓으로 前月보다 四億二千五百萬圓의 激增이나 增資는 五千六百萬圓 社債九百萬圓으로서 各其 一億圓以上의 顯著한 減少를보이엿다 그러나 新設中에는 雜業關係로서 北支開發會社(三億五千萬圓)와 鑛滿鑛業(六千萬圓)이 包含되어잇스므로 이것을 除하면 新設도 겨우五千萬圓에 不過하므로 總體的으로보아 生産力擴充의一段落狀態觀測을 示하고잇다 또 銀行業三千萬圓의增資는 朝鮮殖産銀行의것이며 詳細한것은如左하다(單位千圓 △印減)

業別	新設	增資	社債
銀行業	—	三〇,〇〇〇	—
運輸業	三〇,〇五〇	九,〇〇〇	—
鑛業	六三,〇五〇	三,〇〇〇	—
電氣瓦斯業	五〇〇	六,一五〇	—
製造工業	一六,五六〇	九,五三〇	九,一五〇
紡織業	一〇〇	二,九五〇	—
化學工業	一二,一〇〇	八〇〇	九,一五〇
製紙業	—	二,三五〇	—
機械及器具工業	三,〇九〇	三,〇〇〇	—
窯業	六〇	—	—
金屬工業	三,一五〇	四,〇〇〇	—
食料品業	三五〇	—	—
雜工業	四五五	—	—
商業	三,五三五	—	—
雜業	四〇五,〇〇〇	—	—
合計	四五九,三二六	五六,三三五	九,一五〇
前月比	四二五,四五二	△一三五,四五五	△一〇八,八二〇
前年比	四三八,五五六	△四四,四五〇	八,八二〇

金融機關大膨脹

預金九億七百九十五萬圓 貸出高는十三億九千萬圓

모두新記錄을示現!

朝鮮에 잇서서의 金融界는 三六益好轉을 거듭하고잇다 十月末現在 全朝鮮金融機關(銀行、金組、信託、東拓、郵貯)의 預金貸出高는 預金總計는 九億七百九十五萬六千圓이고 貸出總計는 十三億八千九百七十八萬三千圓인데 預金貸出과 함께 모두 新記錄을 示現하고잇다 即前月末現在와 比較하여보면 預金은 三千六百二十三萬圓 貸出은 三千二百二十九萬七千圓의 各其增加이엿고 前年同期에 比하면 預金에 잇서서는 實로 一億九千四百八十一萬一千圓 貸出에잇서서는 六千四百二十八萬九千圓으로서 모두激增되엿다 十一月末의 詳細한 內容을보면 如左하다

(單位千圓)

	預金	貸出
銀行	三七九,六三二	七四三,一三
金組	一六八,〇九八	一八八,一五八
東拓	八,三七	三四五,四九
信託	三七,八五三	六三,五三
郵貯	三四八,五七	—
合計	九〇七,九五六	一,三八九,七八三

關西銀行大會

第二十七回大會

【大阪電話同盟】關西銀行會第二十七回大會는 六日午前十時부터 新大阪호텔에서 開催하고 池田藏相、大田次官、入間野銀行、大野理財兩局長、結城日銀總裁、森東京手形交換所理事長、明石東京銀行集合所會長等 來賓三十餘名 會員四百二十餘名出席 中根大阪手形交換所 委員長이 人사를하고 議事에드러가기前에 皇軍에 對한 感謝決議를 行하고이어서 八代前大阪手形交換所委員長에게 謝意를 表한後 會務를報告하얏다 議事에들어가

一、本會制定各銀行間에 收受될 諸用紙의樣式又는 規模改訂에 關한件

一、次回大會의開催地(大阪으로 決定)

二件을可決하고 少憩後 十二時부터 演說을試하고 零時半午餐會에移하야 午後一時散會하얏다

漢江水力電氣

二萬株公募決定

創立準備中이든 漢江水力電氣(資本金二千五百萬圓)는 總株數五十萬株中 四十八萬株를 發起人과 贊成人이 引受하고 그남어지 二萬株를 公募키로 決定하얏는데 公募要項은如左하다

▲募集株數 二萬株▲申込單位 十株▲申込期間 十二月十三日부터 十五日까지▲申込證據金 一株에 一圓五十錢▲第一回拂込 一株에十二圓五十錢▲拂込期日 昭和十四年一月十二日▲申込及 拂込場所 殖銀本支店(內地는包含)朝鮮信託 京城證券組合有志 山一證券本支店 藤本 野村證券本支店

發起、贊成人引受株

漢江水力電氣의 株式引受者中 主要한者는如左하다

▲發起人=小林采男二萬株 金季洙萬株 有賀光豊五千株 荒井初大郞 石川登盛 伊森明治 牛島省三 菊池一德 小杉謹八 谷多喜磨 高橋省三 林繁藏 林茂樹 朴榮喆 以上各千株

▲贊成人=殖銀八萬株 京春鐵道八萬株 日本高周波八萬株 朝鮮信託二萬株 殖銀二萬株 金剛山電氣萬株 漢銀二千株

東銀과漢銀

增配至難視

上期末의 銀行決算에잇서 朝鮮銀行、商業銀行의各一分增配는오래동안 配當固定에는 各金融機關에 增配運動을 招致하얏는데 本期末에잇서서는 信託、漢銀、東一이 各其增配를 當局에 折衝中이다 朝鮮信託의 一分增配는 認可可能性이잇스나 殖銀은 東一의增配에 難色이잇서 漢銀도至難視된다한다

○朝鮮重工業總會=朝鮮重工業에서는 十日重役會 二十五日定時總會를 今期決算案을 釜山本社에서開催、當은 年四分据置로 附議할터인데配當은 年四分据置로 內定한다고

穀用叺價格指定

一月中旬은二十二錢

總督府에서는 重要工品需給調整規則 第九條에 依하야 一月中旬의 穀用四斗叺 價格을 指定하기로 되엇는데 指定價는當該道內生産品의道內販賣及其他道業者에의 販賣는 三十二錢으로하기로 內定하얏스므로 五日附右指定까지의 臨時措置에 對하야 各道에 對하야 通牒하얏다

一月五日부터 全朝鮮의 郵便局所에서 一齊賣出하엿는데 五圓券으로 一等 五百圓의割增金附이라는것과 貯蓄獎勵의 意味에서 賣出開始前부터 各局所에繼續 大量의豫約申込이 殺到하야 配付數의 大半은 이미豫約의赤札附이라는 好景氣인바 初日의賣渡高는 二萬千餘枚에 達하엿다한다

昭和水組復活說

有望視되나豫算이難關

時代는變轉하야 産米制限時代이든것이 今次의事變長期化에伴하야 食糧充實을期키爲하야 産米增産에 拍車를加케되엇는데總督府에서도 從來의 消極的産米政策에서 百八十度를 旋回하야 積極的으로 方針을改하고 從하야 平南道에서도 明十四年度부터 三個年計畫으로써 不完全畓의 改良에依한 九萬石增産計畫을 樹立中인데 이情勢로보아 假死狀態에잇는 昭和水利組合復活問題가 當初豫定蒙利區域內의地主 關係者間에 再燃되어 近間具體化할形勢라한다

同組合設立一步前에 産米制限에依하야 流産된것으로 豫定蒙利面積三萬町步關係農民十萬을擁한 我國第三의大水利組合이며또 産米의 積極的增産政策을取케된關係로 同組合의 復活은理論上當然하며 有望視되나 다만豫算關係가 어떠할지 이것이唯一의難關이다 同組合의 復活問題에 對하야서는 石田知事도 關心을가지고 係員에게 調査를 命하고잇는모양이라한다

私設鐵道買收

明年度實現

慶北線筆頭로數線

朝鮮私鐵買收는 數年來資源開發上의 理由로 南朝鮮鐵道 買收以降 數年間懸案이되어 實現線에 빠지고잇든바 明年度에는 드디어 私鐵鐵道慶北線의 買收가 具體化되는同時에 明年度以降에는 다시 數線의 買收가 豫想되고잇다 即 一、京慶線의 開通에依하야 이의連絡關係인 朝鐵慶北線 忠北線은 當然買收의 運命에잇는것

一、補助期限滿了切迫의 金剛山電鐵及 京南鐵道

一、明年以降開業될 西鮮中央平北、京春 三鐵道는 私鐵의 補助金交附上에도 旣設線의 整理上에서 買收를要하는것

以上에 基하야 慶北線買收를 筆頭로하야 慶北線도 ...

信託財産

一億突破

一分增配決行

朝鮮信託會社 今期의 業績은 異常한進展을보이어 前期末에比하야 金錢信託이 約五百四十萬圓 有價證券信託이 約四百萬圓 不動産信託이 約三百萬圓 合計千二百萬圓의 增加로 期末의信託財産은 드디어 一億圓을突破하야 一億一千餘萬圓에 達하엿다 來十二月頃 重役會를 열고 總會附議事項을 決定할터인데 配當은 年七分으로 一分增配를 決行하야 七分配當으로할모양이라한다

國內金屬資源開發

時局需要에對處

帝國鑛業開發會社創立

商工省에서는 戰時下에잇는 重要資材原料인 金屬의增産을 圖謀하기爲하야 諸種의 具體策을 講究하고잇는데 一方省內에서 論議되여잇든 半官半民인 國內資源開發會社案은 近來에 와서急速히 具體化되어 今般帝國鑛業開發株式會社를 設立하기로 되여 其準備를 進行하고잇는모양이다 右國策會社는 事變의進展과 相伴하야 일쪽이 考慮되여잇섯든것인데 十一月以來로 急速히 具體化하게되엿스므로 商工省에서는 來議會에 法案을 提出하기爲하야 萬般의準備를 整備하고잇다 同社는 日本産金振興會社와 가튼 金融的任務를 主로하는一方 未開發國內資源의 探掘을 行하야 時局의 需要를 對處하는 方針으로보인다

支那事變債

半數豫約!

第七回 支那事變貯蓄債券은 十萬五千二百十二石의 ...

移出港在米

六十八萬石

米穀調査=十一月末現在 朝鮮內 主要移出港 在米高는 總計六十八萬二千百七十二石으로 前旬보다 三十五萬四百三十二石의激增을 示하엿다 이것은 正租出廻增을 示하얏슴에 不拘코內地가 玄白米의 不採算으로 倉入이 增加된것을 反映한것이다 이제 昨年同期에 比하면 十二萬五千二百十二石의 減少이다

南浦代理店

米倉이買收

米倉에서는 鎭南浦에잇는 辰馬、飯野、東和의三汽船會社代理店을 大和組로서 買收하얏는데 石塚社長은 五日午後二時發 鎭南浦에 出張、披露宴을開催하얏다

○故松井氏追悼會=故松井房治郞氏의 一周忌에 當하야 米倉에서는 來十日午後一時本町二丁目回敎院에서 追悼會執行

株式

續騰後에反落

前場昂騰

今日의 市勢=六日=

今朝는 東新一氏인 二三八、八、鐘紡一高인一五〇圓八에 不透明裏寄付後 東新入圓二六、鐘紡一五〇圓一까지 下押되다가 引際에 다시買氣가 動興되어、東新은 二三二圓臺突破 鐘紡도이에 追隨하야 結局東新一二〇圓을 中心으로 强調하고 年內에는 結局 「모찌쓰끼」程度에 지나지 못하리라는 見解가 至今까지 有力하든것을 생각하면 市勢의 今後動向은 極히 注目되는 바인데 强氣는 惡材一巡과 環境好化에 依하야 買勢一氣에 挽回하려고 策하고잇는모양으로 무엇보다 政局의 內部分裂에 對하야 甚大한 期待를 가지고잇는것으로 보이엇다

後場反落

後場은 東新一二三〇圓二、鐘紡一五一圓四에 昂高한 一二三〇圓三、鐘紡은 四低인 一五一圓丁에 臨時寄付後 日產、東新、鐘紡이 모두 前場引値 蘇聯漁業條約 交涉에 關한 悲觀說도 擡頭하여 警戒賣物이 出現하야 長談으로 新己前場落되엇다

東新百三十圓

昨日東新은 一暴五圓가량이나 急騰되고 鐘紡도 一五〇圓關門을 突破하야 비로소 年末市況와가든 强味를 示現하드니 今朝도 綻續騰調를 呈하야 東新도 一二〇圓 門을 突破하는 好勢이어서 滿殺低價에서 十四圓가량 反騰되엇는 데 이로써 强氣當面의目標는 一日達成되엇다고할수잇겟다 그런데 東新一二三〇圓을 中心으로 强調하고 ...

仕手戰激化?

今朝는 米英米日寄合의 續騰後場과 同調寄付後 少跳되어 東新은 八圓二까지 下押되드니 一圓二에 이르러 다시 買氣가 再發되어 東新은 一二〇關門을 突破하야 一二〇圓丁까지 下押되었드니 ...

市場人氣

昨日急騰의 뒤를이어 今朝는 東新一二三〇圓突破를 示現▲이것으로 强先强氣當面의 目標는 實現된셈이나▲東新一二〇圓關門을 强弱의分岐點이라고보면 今後의 仕手戰은 매우興味를 끄는바이다▲東新의 獨步傾向은 去益顯著하야 雜株는 金剛에서 追隨하지안코잇스니▲此際로 長大弗으로보는見解도 有力한모양이나……▲市勢가 新年末市勢가를 떠게될때 冷却仕手戰에 終始하고잇는데 「지로도」 調으로 ...

國債無材料閑散

【東京電話同盟】 年末接近關係와 注目되는바이다 ...

期米

少落後에下澁

前場少落

今朝阪地三十六圓十九錢인 一丁低로 當地는當限三十三圓丁中三圓八十錢인 三丁低로 先限은 三十三圓八十錢인 亦三丁 低로 寄付한後 阪地五節二十錢이 一錢으로 十九錢까지 稍弛하엿다가 九節二十二錢으로 二錢에 止寄하엿다가 七十六七錢에서 終始하야 結局 二十三圓七十八錢으로 寄付後는 四丁高, 三四五節이 모두 七十八錢이

後場釘付

後場은 寄付後 引値와 同價로 二、三四五節이모두 七十八錢이

年末固定市勢

當地市勢는 其株有力一派의 買支로 阪地보다 又一層强硬하야 波亂의 割合는 二百二十餘丁까지 縮少하더니 今朝에 至하야 最高公定米價 引上되지안는다는說에 市中人氣는 潮殺하야 當地는 先驅賣物이 盛하야 若干의 低落을 告하엿다 그러나 一方 農家의 態度가 强硬하야 米價가 어느 程度까지 低落하는 데는 賣應치 아니할 形勢이므로 深入落은 期待키難하고 結局은 다시 反騰하는 現象을 招來하고 말모양갓다 더구나 當限은 買納入米를 準備하라는 策動으로 이미 中限時代부터 買占한것이 多하엿스니 此際四圓臺에서 强硬利退하리라할지라도 一二 程度의 受米를 하고말모양인 則 容易히 瓦落하지는 안흘것 가트며 딸아서 當限과의 關係를 가지고 잇는 中先兩限도 當限을 高、牽制되어 單獨落을 許하지아니할것가트므로 年末市勢는 「모찌쓰끼」로 終始하리라는 見解도 잇다

最高公定米價

引上與否一考

一時는 最高公定米價 引上說이 濃厚하야 買氣가 亦動한다는說이엿더니 今朝에 入하야는 引上하지안는다고 其消息通의 傳하는바이니 그래서 當地는 若干의 低落을 告하엿다 그러나 當局의 方針은 낙비의 動機로 어찌될지 알수업다 그러나 今年末이 다가오든 農林大臣이 말하는 公定價格을 引上하지 안는다고 天下에 聲明한바 잇스므로 聲明한바 있는 政府의 面目上 引上하지 안을수 업슬 것이다 그러면 萬一公定價格을 引上하는 때는 即國民을 欺瞞하는 것이 되므로 一般米界에서는 모든物價에 比하야 米價만은 반드시 引上될것이라는 推測하여잇스며 따라서 市勢도 不知中 行動을 加하여 왓스므로 萬一 引上되지 안는다하면 市勢의 一落은 免치 못할 모양이다 果然今月十八日에 決定될 公定米價의 發表가 如何?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	中	先	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今日財界大日

◆米 (單位十錢)

	今日後止	比前日後止
仁川期米先限	三三七	低
大阪期米先限	三六二五	二二低
京城(二等)米一石	三三〇〇	不變
白米百斤(二等)	三五〇	不變
正租(仁川)一等	三三〇〇	—
玄米百斤	[illegible]	—

◆株 (單位十錢)

	今日後止	比前日後止
朝新	三二	—
東新	三三〇	一·〇低
鐘紡	一五〇	一·〇低
綿絲	三二	—
人絹	—	—
砂糖	三三〇	—

仁川不動

奧地는 依然히 强硬態度를 繼續하야 低價와 共히 販賣除는 低價에는 賣物이 업는 一方 精白側은 警戒하는 內地人注材着로 原料準備까지도 躊躇하고 잇스므로 一般도 比前은 小口的이여서 活氣가 업고 끝價도 定期의 保合으로 不動이엇다 ⊕穀良三等三四、〇〇 ⊕一等白米 三三、八〇 四等三三、〇〇 二四、〇〇

釜山保合

新公定米價發表를 翌日에압두고 其政策의 透觀難으로 氣迷되여 單只結果待로 消極的이고 各地市勢의保合으로 地場當用筋도 小口的賣物이 잇스나 市勢는 前價同樣이고 場面도 閑散하야 商談은 薄이엇다 ⊕穀良一等三三、七〇 四等三三、五〇 一等白米三三、五〇

大邱同調

産地는 正租高를 觀望하고 低價에는 賣應치 안허 廻米도 昨日부터 減少되엿스나 一方 內地人注는 內地米의 割低로 外米來의 進出로 依然히 杜絶 되여 新公定米價發表待로 商談薄이고 市勢도 保合이엇다 ⊕穀良三三、五五 四等三三、二五

群山强調

廻米는 三十輛이나잇스나 大部分이 豫約物이 여서 直積及入庫되는것이 만코市中에는 浮動米가 적은데 內地人注는 多少잇스나 指値注文이며 一般人氣는 高價出現期待로 賣惜하야 底堅이고 目前의 買曙와 新公定價格發表待로 强調이엇다 ⊕銀均主 三等 三三、二〇 四等 三三、一五 一等白米 一三、七〇

木浦硬勢

廻米는 十五輛으로 減少되엿는데 臺灣米早食과 共히 內地人注가 多少잇서 豫約物의 移出側의 適品買

京城不變

産地態度는 高値에 若待하고잇스므로 廻米가 적은데다가 賣物이 업고 普로 市中人氣가 頑强하야 氣配는 十錢高이며 奧地는 共販制度의 徹底로 低價에는 賣物이 업고 廻物은 모두 豫約物入荷로 入庫되여 閑散場面이나마 氣配强調이엇다 ⊕銀均主三等三三、〇〇 四等三三、一〇 一等白米一三、九〇

正米

保合裡에强含

期米 趙後鎬取引店 仁川府海岸町三丁目 電話 一六一・一九五・二九

○仁川米豆取引所取引員 ○桑野取引所 電話 六一九番

三和商會鑛業部 重石 水鉛 京城南大門通一丁目 電本 六〇〇七

京城 金益證券 仁川 益東

株式 賣買 東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委託書類呈

海外經濟 (五日)

[illegible]

銀行券 (五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東京金利 ◆大阪金利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阪神鰯油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東京金銀價 ◆金買入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仁川正米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滿洲特産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東京現株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朝取主要株取組 ◆算定代引日步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賣買高 ◆仁川期米 ◆群山期米 ◆木浦期米 ◆大邱期米 ◆大阪期米 ◆大阪期米取組 ◆東京期米 ◆各地期米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illegible]

生絲

◆橫濱生絲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綿絲

◆大阪綿絲 [illegible]

京城物價 (六日)

[illegible]